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 031-257-1841

제196호 2021년 05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93-0445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482번길 7-3 (영통동), 104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164 (도당동)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코로나19 시대, 다문화가족 일자리, 교육, 보육 등 점검하고 보완해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 사진 오른쪽)이 지난 4월 23일 결혼이민자 추창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다문화 교육실태를 점검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진행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정책의 하나로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10명과 추창업 프로그램인 ‘빵 만들기’ 과정에 참여하고, 정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관련기사 10면>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교육 걱정 덜어주는 ‘다문화가족 진학 과정 설명회’ 열린다

「다문화가족 진학 과정 설명회」 일정

| 연번 | 시·군 | 일정 | 모집 인원 | 연번 | 시·군 | 일정 | 모집 인원 |
|----|---------|-----------|--------|----|-----|------------|--------|
| 1 | 의정부시 | 6월 1일(화) | 10~15명 | 7 | 오산시 | 8월 28일(토) | 5~10명 |
| 2 | 성남시(외북) | 6월 5일(토) | 10명 | 8 | 안산시 | 9월 11일(토) | 10~15명 |
| 3 | 안성시 | 6월 12일(토) | 15명 | 9 | 시흥시 | 10월 16일(토) | 10~15명 |
| 4 | 포천시 | 6월 19일(토) | 10~15명 | 10 | 안성시 | 10월 23일(토) | 15명 |
| 5 | 이천시 | 6월 22일(화) | 10명 | 11 | 성남시 | 10월 30일(토) | 15명 |
| 6 | 성남시 | 7월 24일(토) | 15명 | 12 | 고양시 | 11월 6일(토) | 10~15명 |
| 7 | 오산시 | 8월 28일(토) | 5~10명 | 13 | 시흥시 | 11월 13일(토) | 10~15명 |
| 8 | 안산시 | 9월 11일(토) | 10~15명 | 14 | 수원시 | 11월 20일(토) | 10명 |

※ 시군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문의 : 경기도청 031-8008-4427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당황한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경험해 보지 않은 다문화가족들은 자녀가 학교에 가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무얼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걱정은 ‘엄마가 잘 몰라서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닐까’하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국내적응 어려움 질문에 대해 ‘자녀 학교와 진로 정보획득 부족’이 47.1%를 차지해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40.9%를 차지한 교육비 부담, 3위는 25.1%를 차지한 ‘인터넷 사용 갈등’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경험한 한국 교육 및 진학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된다. 이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학 과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6~11월에 개최한다.

교육청 및 각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협업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진학 과정 설명회’는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 관련 정보획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부모로서 알아야 할 중학교 입학 준비부터 진학 과정 등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전문가의 설명과 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알려준다.

예비 초등학교 과정은 현재 상당수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6월 1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 20일 수원시까지 10개 시군에서 14회 개최된다. 초중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설명회가 열리는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다문화가족 학부모가 한국의 학교체계, 교육 과정,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생활 안내’ 자료 및 관련 다국어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다문화가족 학부모 요구 사항 및 중고등진학 예비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교육청 및 각 시군과 협업해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다문화가족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5, 18, 20, 21, 2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6, 15, 23, 26, 34, 43 일본어(Japanese) 日本語 32, 43, 45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4, 26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9, 11, 13, 17, 19, 45, 47 타갈로그어(Tagalog) 31 네팔어(Nepali) नेपाली 25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3, 21, 45 생활정보 Information 4, 6, 16, 20, 22 금융 Finance 14 도서관 Library 15 복지 Welfare 7, 18, 26, 43 교육 Education 1, 31, 47 문화 Culture 19 코로나 Covid19 35, 39 요리 Cook 13 노동 Labor 17, 25 육아 Infant Care 37, 48 인터뷰 Interview 30 비자 Visa 5, 11, 26, 45, 46 기고 Column 24, 27 행사 Event 9, 23, 32, 34, 40, 41 나의 학습 My Study 32, 33 한국어 Korean 36 미안마 민주화 21

아동·청소년·입양가정·교육재정 지원 노력, “결국은 가족이 답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4개 조례안 통과시키며 경기도 가족 지키기 나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창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19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의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미리의원)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태환의원)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방역 강화를 위해 2분기 중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무척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회의에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처음 선임된 백현종 도의원이 참석했다.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먼저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

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성에 의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사각지대 방지

역시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되었다.

아동급식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지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19일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키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지역화폐 들고 군포 찾은 이재명 지사, “재난소득, 지역경제 선순환 도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를 찾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도민

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또 지역화폐로 직접 화상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응원, 격려했다.

이 지사는 21일 낮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지역 화폐를 알리기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부제: 지금은 점심시간) 군포편에 출연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그맨 박미선, 허경환과 함께 한 행사에서 이 지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중의 일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를 살리고, 이를 골목상점에 쓰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재난기

본소득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는 적은 기회를 나눠야 하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경쟁하는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느 한 곳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자본, 기회가 시중에 풀려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중 일부가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본로데오거리의 화장품가게 등 점포를 차례로 둘러 선물용 화장품과 파파기, 모자 등을 지역화폐카드로 구매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송하성 기자



‘소중한 당신! 곁에 계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 진행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4월 30일 가정의 달 한국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 ‘소중한 당신! 곁에 계시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끼고, 더불어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결혼이민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버이날의 의미를 배우고 카네이션 꽃을 활용한 선물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센터는 가정의 날을 즈음하여 여러 가족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부모와 동거 중인 결혼이민자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입국 초기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 체험과정을 보조할 통역자를 배치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좌석간 안전거리 확보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강사로 나선 박선아 꽃이니 대표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 사회복지사로, 화훼장식기능사로 변신해 결혼이민자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만들어서 기쁘다”며 “한국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고양다가 연계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고양시청소년재단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2회기에 걸쳐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참가 청소년들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를 건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중국과 필리핀에 대한 문화이해 강의가 중국과 필리핀 현지인 전문 강사의 수업으로 이뤄졌으며,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감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법무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합법체류 구제대책 실효성 떨어져

법무부가 불법체류(미등록)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역시 불법체류 상태로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법무부가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주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체류 아동이 조건부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미 고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경우에도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을 달고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등록 아동은 강제출국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를 단속해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인권국가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마지막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

업해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워 자신의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아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받았다면 대학교 진학과 함께 취업을 기대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부모 역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 비자(G-1)를 발급받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

그럼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문제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 2가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제를 신청한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에 있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면 900만원(3천만원 중 70% 감경)을 납부해야 한다. 통지 후 3개월을 넘어서 범칙금을 내면 감경 비율이 줄어들어 납부금액은 증가한다.

미등록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2500만원 중 70%를 감경받아 7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5세 이상의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의 미등록 기간이 7년을 넘는다 점에서 9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과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부족해진

마당에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주다문화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하라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와 같다”며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기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도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에 진학했다면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국인들의 법감정과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크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터프한 제도가 된 것 같다”며 “4월 23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3가족이 이 제도를 통한 구제를 신청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중국어 21면, 러시아어 45면),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송하성 기자

한결같은 13주년 '고양다가', 손글씨로 전한 축하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관 13주년 맞아 깜짝 이벤트로 함께 축하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개관 13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함께 할 수 없지만 좀 더 많은 회원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개관 13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됐으며, 회원들로부터 이용 소감과 감동의 축하 메시지를 손글씨로 받아 소정의 상품을 주는 행사로 마련됐다.

'개관 13주년 기념 이벤트'에 참여한 팜티타이린씨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네요. 13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문화가족에게 아름다운 문화정보를 선사해 주고 정성스럽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축하의 손글씨를 보냈다.

팜티타이린씨는 또 '앞으로 23년, 33년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더욱 오래가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두영 탄 와이씨는 '작년에 연년생 아기가 커서 공부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의 추천으로 가정방문 보육수업을 신청했습니다.'라며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러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근황과 함께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덕분에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 식구와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 어디 혼자 가도 한국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두영 탄 와이씨는 '공부하면서 목표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주민에게 많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개관 1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마음을 보였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회원과 개관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 선정된 10명의 회원에게 드리는 깜짝 이벤트가 되어 모두 즐겁고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지원 체계 필요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의 향후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전략 제시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문화 수용성 증진, 고양시민 및 지역사회와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정연구원은 2019년 진행하였던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와 2020년 상반기에 수행한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양시의 향후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고양시는 2020년 7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을 명문화하여 향후 관련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고양시의 현행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인 하향적(Top-down)에서 지방정부 주도인 상향적(Bottom-up) 접근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법정계획인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 중장기 비전을 '포용적·호혜적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 '통합', '인권', '협력'을 핵심 가치로 적용하며 ▲ 3개의 정책목표, 즉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Ⅰ)',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Ⅱ)',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Ⅲ)'와 ▲ 그에 따른 6개의 전략과제, 76개의 세부과제, 그리고 성과평가체계 등을 제안했다.

김영의 기자

공유자전거 타조(TAZO) 고양시 1천대 본격 운영

고양시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타조(TAZO)'의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조는 5월말로 실시 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자전거 '피프틴'을 대신할 새로운 자전거다.

거치대가 없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전거 위치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양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했으며 오는 5월부터 1000대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타조를 운영한다. 내년까지 자전거 2000대를 추가해 총 30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타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타조 앱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후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20분에 500원(기본요금)으로 10분에 200원씩 추가된다. 30일 정액권은 1만원이다. 또 타조의 홍보도 강화해 전담 콜센터 별도 운영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카카오톡 상담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생명사랑 공모전' 진행 나와 타인에 희망 메시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생명사랑 공모전(희망 메시지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 나와 타인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 자살 생각으로 힘겨운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다.

1인 1작품 응모 가능하며 글자 수 25자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자살예방 인식을 개선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 접수는 QR코드 및 구글 설문지(bit.ly/생명사랑공모전)를 통해 하면 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5월 28일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고양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goyangmaum.org)에 확인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政府将外国人就业时间增加一年”解决工作单位和农渔村人力难问题”

持有E-9 H-2签证的外国劳工最多114 596人滞留及就业活动期限延长



韩国政府决定将外国劳动者的滞留及就业活动期限延长一年。政府考虑到因新冠病毒，而难以入境和出境的外国劳动者和因找不到劳动者而面临人力短缺的中小企业及农渔村的困难，将把截止到今年12月31日在国内滞留及就业活动期满的外国劳动者的滞留及就业活动期限延

长1年。受新冠病毒扩散的影响，自去年4月以后，外国劳动者(E-9)的引进规模急剧减少，以2020年访问就业的同胞(H-2)的外国人注册人数为基准，约为2019年的10%，滞留在国内的外国劳动者人数大幅减少。

因此，外国劳动者因减少航班等原因在出入境方面面临困境，中小企业和农渔村的人力资源困难不断加深，因此决定将被限制在最多5年以内的外国劳动者的就业活动时间延长到1年以内。

就业活动期限延长方案

持E-9签证的外国劳动者将目前滞留及就业活动期限延长50天的措施改为延长1年，访问就业同胞(H-2)将雇用中心发放特例雇用可能确认书及申报开始工作的劳动者滞留及就业活动时间延长1年。

此次对外国劳动者的就业活动期限延长措施，政府计划无需外国劳动者及雇用事业主的个别滞留及就业活

动期限延长申请，一律予以延长。

但是，雇主应提出延长与外国工人的劳动合同期限以及根据这一规定延长雇用许可期限的申请，而访问就业同胞(H-2)的情况是，雇主必须得到特例雇用可能确认书，并由雇主或劳动者进行劳动开始申报。

由此可见，被列入此次延长措施对象的外国劳动者(E-9、H-2)至少从70,128人增至114,596人。

韩国雇佣劳动部长官李在甲表示：“尽管因新冠病毒导致外国劳动者出入境困难很大，但没能招到外国劳动者的中小企业和农渔村现场的人力供需难问题也非常严重。但希望通过此次延长外国劳动者的就业活动期限，多少减轻外国劳动者和事业主的困难。”

法务部长官朴范界表示：“希望此次措施能够对目前人手不足的制造业、农渔村等一线现场提供帮助，并希望目前根据防疫状况限制性地引进新的外国人人力尽快恢复正常。” <한글 기사 11면> 왕그나 기자

Chính phủ, "Giải quyết nạn thiếu hụt nhân lực trong ngành nông ngư nghiệp" trong chính sách gia hạn thêm 1 năm thời gian lao độ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Gia hạn thời gian lao động dành cho khoảng 114,596 đối tượng thuộc diện visa lao động là E-9, H-2.

Trong quyết định mới nhất của Chính phủ đã công bố sẽ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cũng như thời gian lao động dành cho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với thời gian là 1 năm.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mà nhiều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thể nhập cảnh cũng như nhiều cơ sở doanh nghiệp không thể tuyển dụng được nh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ưu trú và lao động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hời gian lưu trú đến hết ngày 31 tháng 12 năm nay và thời gian lao động sẽ được gia hạn thêm 1 năm nữa.

Do những ảnh hưởng tiêu cực của dịch Covid-19, kể từ tháng 4 năm trước số lượ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giảm một cách nhanh chóng cụ thể là những lao động visa E-9, với những người có quốc tịch Trung quốc nhập cảnh theo diện lao động H-2 cũng chỉ chiếm 10% so với số lao động nhập cảnh năm 2019, tính tổng thể số lượ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giảm một cách đột biến và với số lượng nhiều.

Để giảm thiểu được những có khăn trong ngành sản xuất của các cơ sở lao động cũng như những khó khăn không thể nhập cảnh lao động do lịch bay của các hãng hàng không bị ngưng trệ, Chính phủ đã đưa ra quyết định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ao động cũng như thời gian lưu trú đối với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với điều kiện tổng thời gian lao động không vượt quá 5 năm.

Phương án gia hạn thời gian lao động

Đối với nhữ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mang visa E-9, Chính phủ thay đổi quyết định gia hạn thời gian lao động từ 50 ngày sang thành 1 năm,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mang visa H-2, họ cũng sẽ được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ao động là 1 năm với điều kiện họ phải nộp giấy thay đổi thời gian làm việc và giấy xác nhận có thể lao động trong diện lao động đặc biệt do Bộ lao động cấp.

Theo như phương án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ao độ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lần này của Chính phủ,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không phải trực tiếp đến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ể làm thủ tục đăng kí mà bên phía Chính phủ sẽ tự động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ao động dành cho những đối tượng đủ điều kiện như trên.

Tuy nhiên những chủ lao động sẽ phải đăng kí gia hạn thời gian tuyển dụ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í kết lại hợp đồng lao động với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lao động mang visa H-2, chủ lao động bắt buộc phải đăng kí cấp giấy xác nhận có thể lao động trong diện lao động đặc biệt và chủ lao động sẽ trực tiếp hay người lao động sẽ trực tiếp phải khai báo thời gian lao động đã được thay

đổi.

Theo đó, số lượ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bao gồm cả visa E-9 và H-2) tối thiểu nhất là 70,128 người và tối đa nhất là 114,596 sẽ được Chính phủ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ưu trú và lao động.

Bộ trưởng bộ Lao động Lee Jae Gap cho biết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 19 mà số lượ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giảm rất nhiều và các cơ sở lao động cũng không thể tuyển dụng được lao động do ảnh hưởng từ vấn đề trên, đây thực sự là một tình trạng rất gay go” và “phương án gia hạn thêm thời gian lưu trú cũng như thời gian lao động dành cho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dự đoán sẽ nhận được sự ủng hộ rất nhiều từ phía người lao động cũng như phần nào giải quyết được những nạn thiếu hụt nhân lực trong ngành sản xuấ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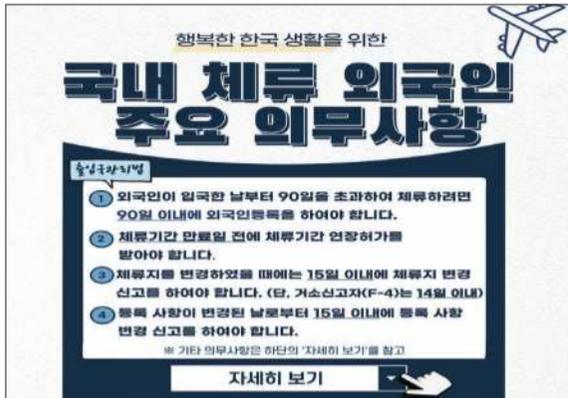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Park Bom Gye cho biết thêm “Thông qua phương án này sẽ giải quyết được phần nào những khó khăn trong vấn đề giải quyết nhân lực dành cho những cơ sở sản xuất, ngành nông ngư nghiệp trong tình trạng hiện tại, hy vọng thị trường lao động sớm mở cửa để phần nào giải quyết những khó khăn trong nước đang gặp phải, tuy nhiên chúng ta vẫn phải nghiêm ngặt trong vấn đề phòng chống dịch bệnh”.

<한글 기사 11면>

강혜나 기자

Những quyền lợi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thời gian lưu trú tại Hàn quốc

외국인주민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얻을 수 있는 혜택, 국적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



Chúng ta đang lưu trú, tạm trú hay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với một visa nào đó, có thể là du học, có thể là lao động, cũng có thể là thương mại, du lịch hay quốc tịch, v.v. Nếu đang sống tại Hàn quốc, các bạn đã từng nghĩ đến việc mình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hưng có thể có những quyền lợi gì tại đất nước Hàn quốc hay không? Đại đa số trong chúng ta sẽ có suy nghĩ rằ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chưa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những quyền lợi mà chúng ta có thể nhận được tại Hàn quốc rất ít, v.v.

Hôm nay mời các bạn hãy cùng chúng tôi tìm hiểu về những quyền lợi mà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nhận được từ phía chính phủ Hàn quốc như thế nào nhé!

① Quyền bình đẳng Con người.

Như các bạn đã biết, ở mỗi một quốc gia, quyền cơ bản nhất của con người sẽ được quy định đầu tiên tại Hiến Pháp của quốc gia đó. Hàn quốc cũng không ngoại lệ. Trong trang đầu tiên của Hiến pháp Hàn quốc cũng quy định rất rõ những quyền cơ bản của con người, trong đó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Ví dụ đơn giản nhất đó là chỉ vì một lý do đơn giản đó là các bạ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mà cảnh sát Hàn quốc có quyền bắt các bạn vô cớ là vi phạm pháp luật. Đây chính là quyền tự do của mỗi con người đã được Hiến pháp quy định rất rõ ràng.

② Quyền tham gia chính trị

Một điều mà các bạn bắt buộc phải chấp nhận ở đây đó chính là không có một quốc gia nào có thể đối xử một cách công bằng bình đẳng giữa công dân của quốc gia đó v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có thì chỉ có một số lượng rất ít và cực kì hiếm. Bỏ qua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có thể biết đến một sự thật rất hiển nhiên đó chính là người nước ngoài thì không thể được phiếu bầu cử Tổng thống cũng như đại biểu Quốc hội. Việc tham gia chính trị của một quốc gia thì chỉ có công dân của quốc gia đó mới được quyền tham gia.

Tuy nhiên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có được visa định cư vĩnh viễn F-5 thì có thể được bầu cử thành viên chính trị mang cấp địa phương. Không nhất thiết là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có visa F-5,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dài, chiếu theo điều lệ bỏ phiếu bầu cử chính trị cấp địa phương,

người nước ngoài vẫn có thể được tham gia bầu cử. Như vậy, trong khối Asia thì Hàn quốc là quốc gia duy nhất đồng ý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ham gia chính trị đối với quốc gia của mình.

③ Quyền tự do trong kinh tế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à công dân Hàn quốc sẽ có một sự phân biệt trong quyền tự do kinh tế. Lý do bởi vì họ sẽ phải phụ thuộc vào tư cách (loại visa) lưu trú tại Hàn quốc. Theo đó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không thể tự do lựa chọn được ngành nghề lao động dành cho bản thân mình.

Trước kia Hàn quốc có một số những quy định nhằm giảm thiểu hay không cho phép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mở hay kinh doanh doanh nghiệp trên địa bàn Hàn quốc. Tuy nhiên từ những năm 1997 đến năm 1998 do ảnh hưởng của khủng hoảng tài chính mà chế độ này đã được cải thiện rất nhiều. Hiện nay những vấn đề kinh doanh doanh nghiệp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hầu như không gặp cản trở gì nhiều.

Ngoài ra, người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sở hữu cho mình một diện tích đất rất nhỏ nếu có nguyện vọng mua đất. Tuy nhiên năm 1998 luật đất đai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ban hành do đó nếu có nguyện vọng và năng lực tài chính thì việc sở hữu diện tích đất đai tại Hàn quốc không còn là vấn đề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hưng có một chú ý nhỏ ở đây đó chính là mặc dù việc sở hữu đất đai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gặp quá nhiều cản trở nhưng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đó là công dân của một quốc gia mà Hàn quốc hạn chế việc đầu tư hay mua bán đất đai thì sẽ có một sự hạn chế trong việc mua bán đất đai này.

④ Quyền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lao động tại Hàn quốc sẽ phải thông qua một số những chế độ lao động do Bộ lao động đặt ra. Thêm vào đó, việc lao độ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bắt buộc phải phù hợp với loại visa mà mình đã đăng kí. Nhưng sau khi người nước ngoài kí hợp đồng lao động thì những quy định trong lao động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giống so với những quy định lao động dành cho công dân Hàn quốc được quy định trong bộ Luật lao động cơ bản của Hàn quốc. Ví dụ,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tai nạn trong khi đang làm việc thì cũng sẽ được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giống như được áp dụng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Mặc dù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ó là hợp pháp hay bất hợp pháp đi chăng nữa, họ cũng vẫn sẽ được luật Lao động bảo hộ tương đương. Quyền lợi này đã được phán quyết bởi Tòa án vào những năm 1990.

⑤ Những chế độ phúc lợi mà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nhận được

Tất cả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có thời gian lưu trú được gọi là dài hạn từ 90 ngày trở lên tính từ ngày nhập cảnh sẽ được đăng kí mua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của Hàn quốc. Một chế độ nữa đó chính là chế độ liên quan đến lương hưu nhưng chế độ này chỉ dành cho một bộ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đáp ứng đầy đủ điều kiện yêu cầu. Thêm một điều kiện nữa đó chính là quốc gia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ó cũng phải chấp nhận cho công dân Hàn quốc đang định cư tại đó đăng kí lương hưu chí thì tại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đó cũng sẽ được Chính phủ Hàn quốc đồng ý cho đăng kí chế độ lương hưu. Đây có thể coi là một chế độ không dành chung cho toàn bộ người nước ngoài. Chế độ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của Chính phủ dành cho những người đang có hoàn cảnh sống khó khăn cũng là một ví dụ tương tự, đều không dành chung cho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Kể cả người có visa F-5 cũng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ủa chế độ này. Tuy nhiên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sẽ nhận được những sự hỗ trợ của các chế độ phúc lợi mà chúng tôi đã đề cập phía trên.

⑥ Quyền lợi được học tập

Công dân Hàn quốc có nghĩa vụ phải cho con em mình đi học khi đến tuổi đi học cấp tiểu học và trung học cơ sở. Đây cũng là hai cấp học mà Chính phủ hỗ trợ tiền học phí cho các trẻ là 100%. Các trẻ thuộc gia đình của công dân Hàn quốc khi đến tuổi đi họ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sẽ gửi giấy thông báo đi học về nhà cho từng trẻ. Tuy nhiên giấy thông báo nhập học này sẽ không được gửi cho những trẻ thuộc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Lý do đó chính l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không có nghĩa vụ về giáo dục học tập. Cũng như vậy, bố mẹ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không có nghĩa vụ phải cho con đến trường khi đã đến tuổi đi học.

Tuy nhiên không phải vì không có nghĩa vụ này mà những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thể đi học tại các trường học Hàn quốc là một suy nghĩ sai lầm. Nói chính xác, chỉ là Chính phủ Hàn quốc không gửi giấy thông báo nhập học dành cho các trẻ em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ác trẻ có nguyện vọng đến trường vẫn có thể đăng kí đi học như bao trẻ em khác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về vấn đề nhập học. Trên thực tế có rất nhiều trẻ em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cùng học tập với trẻ em là công dân Hàn quốc tại cùng một lớp, một mái trường.

Kết thúc bài giới thiệu của chúng tôi, các bạn cảm thấy thế nào ạ?

Hy vọng những thông tin mà chúng tôi cung cấp sẽ giúp ích được cho các bạn trong cuộc sống, giúp các bạn hiểu thêm được về những quyền lợi mà mình có thể nhận được trong thời gian vẫn còn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nhé.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trong các bài viết tiếp theo!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 기자단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친환경농업 체험

독도사랑회, 고양시에 어린이 농부학교 돌섬농장 개장



새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가 독도학당 어린이들의 농사 체험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고양시 대장동의 '돌섬농장'을 개장했다.

독도사랑회 김종성 회장과 '독도는 우리 땅' 가수 정광태씨를 비롯해 독도학당 지도교사 및 어린이들은 이날 농장에서 농장 간판을 내걸고 텃밭 명패를 세운 뒤 독도 사랑의 의지를 다졌다.

독도학당 어린이들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농장에서 자신들의 텃밭을 가꾸면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독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마음을 익히게 된다. 또한 독도사랑회 청소년 봉사단이 농장에서 텃밭을 일궈 식단에

올리게 된다. 김종성 독도사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소년봉사단원들이 야외활동의 제약을 받는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새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바른 먹거리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익히게 하려고 돌섬농장을 개장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광태씨는 "독도의 옛 이름인 돌섬으로 농장 이름을 지었다"라면서 "청소년 봉사단원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텃밭에 명패를 걸고 직접 재배에서 수확까지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창립한 독도사랑회는 돌섬농장 개장에 이어 다음 달 일산 태영프라자로 독도홍보관을 이전해 전시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콘텐츠로 국민이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켜 수도권의 새로운 독도명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경기도,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6월 4일까지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균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 26일부터 시행)에서 가능하다.

<중국어 18면, 베트남어 26면, 일본어 43면> 이지은 기자

2021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글로벌 챔피언

2021. 3. ~ 11.

Global Champion

| | |
|---|--|
| <p>강의식 교육</p> <p>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특강</p> <p>학교 및 유관기관,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감수성 향상 특강</p> | <p>문화체험</p> <p>세계문화 체험 활동</p> <p>체험부스 및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세계 문화 알아보기</p> |
| <p>다문화 공연</p> <p>공연발표를 통한 문화교류</p> <p>지역 행사 및 축제 참여를 통한 공연발표로 실력 뽐냄!! 공연으로 다양한 문화 즐기기</p> | <p>캠페인 활동</p> <p>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p> <p>문화다양성 및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다문화감수성 향상</p> |

프로그램 신청 문의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5)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4월 19일 롱디망쉬(LongDimanche)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캄찬(KhathChen) 주한 캄보디아 상무관의 상호문화 이해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지난 주한 스리랑카 대사 초청 특강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기업인, 캄보디아 출신과 시민, 안산시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상호문화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특강은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을 초대해 캄보디아 문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투자하기 좋은 사업 등을 소개해 한국-캄보디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행사에 참석해주신 롱디망쉬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캄찬 주한 캄보디아 상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경제적 글로벌 파트너로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4월 2일 사지 멘디스(Dr. A. Saj U. Mendis) 주한 스리랑카 대사를 초청해 양국 우호 협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문화 이해 특별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 ICC)로 지정됐으며, 전 세계 주요 26개 상호문화도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영의 기자

안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5월 21일까지 신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접수를 5월 21일까지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1단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2단계 대상자인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 학생은 만 29세 이하로,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자녀) 1인 이상이 공고일(2월22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대학 재학 학생은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율과 함께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은 우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은 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에서 하면 된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과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2021년 2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과정 신청 및 운영 일정

(경기9개점)

신청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 배정 받은 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의 체류자가 안산시, 시흥시,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인 자

교육방법 Cisco Webex Meetings(시스코 웹엑스 미팅즈)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온라인 신청(선착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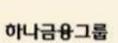
세부일정

| 단계 | 과정신청 시작일 | | 운영 기간 |
|-----------|----------------------------------|-----------|-------------------------|
| 0단계 | 4월 21일 (수) | 오전 9:00 ~ | 5월 8일 (토) ~ 5월 16일 (일) |
| 1단계 ~ 3단계 | 5월 12일 (수) | 오전 9:00 ~ | 5월 22일 (토) ~ 8월 17일 (화) |
| 4단계 | 1차: 5월 12일 (수) | 오전 9:00 ~ | 5월 22일 (토) ~ 7월 26일 (월) |
| | 2차: 5월 25일 (화) | | |
| 5단계(기본) | 5월 25일 (화) | 오전 9:00 ~ | 5월 29일 (토) ~ 7월 20일 (화) |
| | | 오전 9:00 ~ | 7월 3일 (일) ~ 8월 1일 (토) |
| 5단계(심화) | 1차: 5월 25일 (화) 2차: 7월 21일 (수) | 오전 9:00 ~ | 7월 28일 (수) ~ 8월 15일 (일) |

※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운영기관별 1~5단계 시간표 확인은 4월 30일 (금)부터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및 모집 정원은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단계와 5단계(심화)의 경우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하나금융그룹

제13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범적인 결혼이주여성, 어려움을 극복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1. 4. 15(목) ~ 5. 14(금)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6층 하나금융나눔재단 (904521) *우편접수에 한함

일과 및 시상 2021년 7월(예정)

- 각 부문 수상자(개인·단체) 추천기일에 1백만원 이내 직할 여행경비를 위한 워크샵 비용 지원
- 미션발 시 추천기관 담당자 및 3만원 상당 기프티콘 증정
- 상세요강은 하나금융나눔재단 홈페이지 www.hana-nanum.com에서 '공지사항' 참조 또는 재단 사무국 전화 02-728-4092-5으로 문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시상 후라도 공적 초서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상 부문 | 상위 | 1등 | 2등 | 3등 | 유망대상 |
|-------|-----|-----|------|----------------|------|
| 행복가정상 | 대상 | 1명 | 1천만원 | 최우수 공적의 결혼이주여성 | |
| | 우수상 | 3명 | 5백만원 | 결혼이주여성 | |
| 희망가정상 | 대상 | 1명 | 5백만원 | 결혼이주여성 | |
| | 우수상 | 3명 | 3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 |
| 행복도움상 | 단체 | 3단체 | 5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 |
| | 개인 | 3명 | 3백만원 | 제한 없음 | |

후원:  여성가족부



하나금융나눔재단

“동화책 읽으며 서로의 문화 나누고 이해해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여성문학회, 독서동아리 운영



책을 읽은 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독서동아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손편지 사업’으로 인연이 있는 안산여성문학회 회원들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3월부터 월 1회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안산여성문학회 회원이 오전 1팀과 오후 1팀으로 나누어, 한국인 3명과 5개국 결혼이민자 6명이 월 1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독서동아리는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들이 동화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나라별 문화차이로 인해 다르게 느끼는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 동아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자녀에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다.

동아리에 참가한 한 결혼이민자는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 평소에 여러 나라 사람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

하나 반찬 하나’ 참여자를 선착순 10명 모집한다.

참여자는 전화(031-599-1703) 또는 방문 신청받으며 총 6회 진행된다. 재료비 3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1회 ‘소고기묵국, 두부양념조림’ ▲2회 ‘삼계탕, 새콤달콤 오이양파무침’ ▲3회 ‘순두부찌개, 계란야채말이’ ▲4회 ‘오뎅탕, 감자햄볶음’ ▲5회 ‘배추된장국, 제육볶음’ ▲6회 ‘잔치국수, 청경채겉절이’며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 요리교실이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7~12세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한 바둑교실 신청도 받고 있다.

바둑은 집중력과 기억력, 두뇌 발달 효과에 좋으며 수업은 5월 11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전화(031-599-1703)로 신청받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힐링여행 대부도 ‘힐링 꽃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힐링여행을 계획 중인 다문화가족이라면 대부도로 떠나보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부해양본부 청사 주변 유휴지에 축구장 1개 면적보다 넓은 8천㎡ 규모의 ‘힐링꽃밭’과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모두 2천100여만 원이 투입돼 조성된 꽃밭은 해바라기로 채워졌으며, 나무수국 328주도 심어졌다. 이를 통해 여름철인 올해 7~8월이면 해바라기가 만개해 시민들이 황금빛 해바라기 물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나무수국이 풍성한 꽃을 피워 분위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꽃잔디와 형형색색의 튜립 정원이 조성된 이곳은 하루에도 가족 또는 연인 단위의 수백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김영의 기자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бъявляет о наборе участников в 12-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чевом конкурс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ёнгидо с 26 апреля по 21 мая проводит набор участников в "12-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чевом конкурс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12-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чевой конкур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10 июля, -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12 лет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счастливой семьи путём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общения между членами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а также для развития глобальных талантов. Конкурс разделен на 2 категории: «рече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ля бра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и «рече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двух языках»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Учитывая ситуацию, связан

ную с Corona 19, конкурс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онлайн режиме без лич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Требования к участникам конкурса: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е, которые въехали в страну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6 года;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сещающие начальные, средние и старшие школ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ли дети возрасте до 18 лет. Не возмо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лицам, у которых есть опыт участия в речев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л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город /район /округ).

Правила конкурса : время для речев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2 минуты 30 секунд, а для речев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двух языках, 1

минута 30 секунд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1 минута 30 секунд на языке страны родителей (то же содержание, что и на корейском).

8 июня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росмотр видео, присланного участниками в период подачи заявок, а 11 июня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20 финалистов (по 10 человек на категорию). Критериями отбора являются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содержание и тема, произношение и презентацион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В состав жюри дл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и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тбора будут входить профессор и эксперты,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е п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языкам. В финале будут вручены следующие награды: одному самому лучшему участнику, двум лучшим участникам, поощрительные п

ризы двум участникам и пятерым з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о сетив учреждение,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или по обычной почт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о том,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братитесь на домашнюю страницу Кёнгидо (<http://www.gg.go.kr>) или в раздел объявление города/ района.

Между тем, на прошлогоднем конкурсе высшие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проживающий в районе Сихын, школьник Соль Донг Джин, в категории речевого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двух языках, за рассказ " Сихын, я люблю свою родину"; и Пхамнюню из района Ансонг, в категории рече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за рассказ "Муж как отец". <한글 기사 41면> 장을가 기자

“코로나19 시대, 다문화가족 일자리, 교육, 보육 등 점검하고 보완해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원곡초 방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4월 23일 결혼이민자 취창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다문화 교육실태를 점검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진행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정책의 하나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10명과 취창업 프로그램인 ‘빵 만들기’ 과정에 참여하고, 정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애로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안산 원곡초등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민생 및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과 고충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효과적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이날 방문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 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을 비롯해 성준모(더민주, 안산5), 강태형(더민주, 안산6), 원미정(더민주, 안산8) 의원이 참여했다.

또, 윤화섭 안산시장과 경기도.경기도교육청.안산교

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다문화 정책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체험하며 ‘소통의정’ 추진

현장에서 베트남, 러시아,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냈다. 이들은 감염병 확산으로 고립이 심화된 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리엔티난씨(39)는 “친정이 외국이라 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운 탓에 우울할 때가 많다”라며 “한국어교실 등 온라인 수업과 통·번역 선생님과의 전화 통화로 답답함을 달래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 원곡초교로 자리를 옮긴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온라인수업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이중언어교육을 체험한 뒤 학부모, 교직원과 다문화 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곡초교는 전교생 429명 중 97.9%에 달하는 420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3개 학급에서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정

(KSL)을 전담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방안 모색

참석 학부모는 “언어교육은 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학습효과가 높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습에 제약이 많다”라며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가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는 이미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음을 현장에서 더욱 절실히 느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딛고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보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뒷받침해 온 통번역사, 교사 등 6을 선정해 현장에서 의장표창을 수여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독려했다.

김영의 기자



바둑교실

신청하세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집대상
다문화가정 자녀 (7~12세)
10명

수업기간
2021년 5월11일~11월
매주화요일 오후4시30분~5시30분

집중력 짱!!
기억력 짱!!
두뇌발달 효과 짱!!

신청방법
031-599-1703

센터강의실에서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며 수업합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하나 반찬하나

- ✓ 2021년 5월18일~6월22일 매주화 10~13시 6회
-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 요리교실
- ✓ 전화방문신청 031-599-1703 (선착순10명)
- ✓ 재료비 : 6회 30,000원(자부담)

- 1회: 소고기무국+두부양념조림
- 2회: 삼계탕+새콤달콤 오이양파무침
- 3회: 순두부찌개+계란야채말이
- 4회: 오뎅탕+감자행볶음
- 5회: 배추된장국+제육볶음
- 6회: 잔치국수+청경채겉절이

다문화가족 및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 통·번역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 |
|------|-----------------------------|
| 지원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 지원방법 | 전화, 이메일/팩스, 내방, 출장 등 |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 |
| 사업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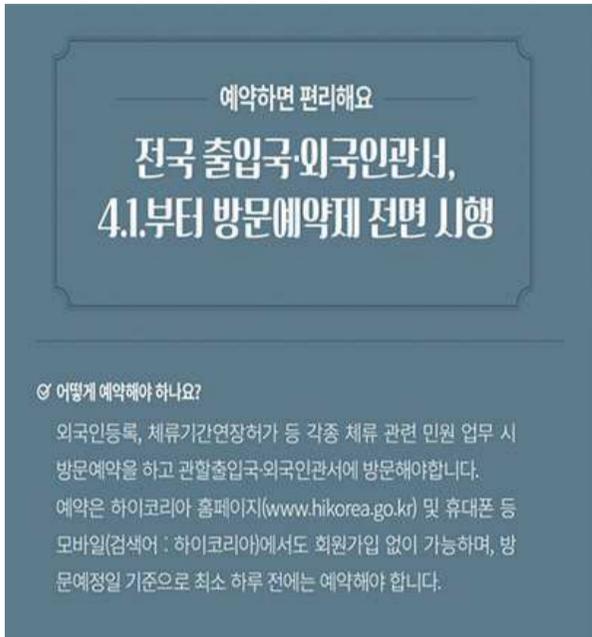
- 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지원
- 입국초기 상담 및 한국생활 정보제공
-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해결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
- 공공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 문제 통·번역 지원
- 국적·체류 관련 법률정보 제공
- 타 지역에서 동반 통역 필요 시 타 센터 연계 지원
- 센터 내 지원되지 않는 언어는 타 센터 연계 지원

중국어 : 김만 ☎ 031-599-1713
 베트남어 : 김현정 ☎ 031-599-1716
 러시아어 : 콜바에바리나베굴라노브나 ☎ 031-599-1723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Ansa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E-9, H-2 비자 외국인근로자, 최대 114,596명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

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

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국어 5면, 베트남어 5면, 러시아어 11면, 일본어 45면, 태국어 26면>

송하성 기자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величит период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один год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продлить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на один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то, что из-за пандемии Corona 19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не могут выехать и въехать в страну, в следствии чего возникает проблема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в малом и среднем бизнесе, а так же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решило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х истекает до 31 декабря этого года, продлить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1 год.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rona 19 с апр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E-9) резко сократилось, а так ж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с визой позволяющей работать (H-2) на 2020 год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10 % от числа за 2019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находящихся в Корее, резко сократилось.

В следствии того, что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трудно въезжать и выезжать из страны (сокращение рейсов и т. п.), а также из-за нехватки рабочей силы, которая ощущается всё больше на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длить период трудовой д

еятельности на 1 год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для которых было ограничение максимум до 5 лет.

План продления периода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 визой E-9, продление текущего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и занятости на 50 дней, заменяется сроком на год, а для приезжающих в Корею граждан с целью устройства на работу (H-2),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выдает сертификат о наличии специальной работы, а так же подавшим заявление о начале занятости, только таким работникам,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 рабоч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длевается на один год.

На этот раз,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ез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заявл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нако работодатель должен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трудового договора с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ком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разрешения на работу. В случае этниче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H-2) работодателю должно быть выдано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собой занятости, далее работодатель или работник должен сообщит

ь о начале работ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E-9, H-2), на которых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данная расширенная мера, как ожидается составит от 70.128 и максимум до 114.596 человек. Министр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Ли Чжэ Габ сказал: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из-за пандемии у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озникнут большие проблемы с заездом и выездом из страны, так же возникают серьезные трудност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и спросом на рабочую силу на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а также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Мы надеемся на то, что трудности как 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так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будут несколько смягчены за счет продления срока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Пак Бом Гье сказал: «Мы ожидаем, что эта мера будет полезна для передовой линии, например дл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которые испытывают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а так же надеемся на то, что из-за карантинной ситуации, ограничение поступл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нормализуется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한글 기사 상단>

장올가 기자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4월 이슈&인물 제16호

노란리본과 박성빈국제인재학교

기념일
박성빈국제인재학교 교장
故 박성빈 학생 어머니

세월호 7주기, 노란리본을 품고있는 4월

7년이란 시간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기대하는 마음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오래 갈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좀 잊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거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드시 할 거라 믿어요. 다만 7주기가 되거나 희생된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뿐이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박성빈국제인재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참사가 나고 진상규명까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세월호 사건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해야 많은 사람이 계속 연대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했죠.

먼저 쉽게 모일 수 있는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이 잊히지 않게 해야겠다고 기획했어요. 큰딸과 함께 미국 시애틀에 이소룡 메모리얼 공원을 모델로 기본 틀을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국가로부터 설립 확정까지 받아냈어요. 이소룡 메모리얼 공원처럼 사람들이 놀러 와서 편하게 사진도 찍고 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당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기억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진흙속 다이아 원석

그다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416 공방'과 바자회 '엄마랑 함께야장'을 개최했어요. 수익금 전액을 지원의 불우한 이웃에 기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416공방 국장님의 추천으로 '고려인 단체 너머의 실상을 알게 되었어요. 지하에 버려진 가구들을 모아 놓고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2017년 여름방학 때부터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죠.

청소년 교육봉사 중 만난 몇몇 아이들은 진흙 속 숨어있는 다이아 원석들이었어요. 35도가 넘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씩 걸어서 수업하러 오는 학생도 있었고, 영하의 추위에 수업 및 시간 전부터 교실 밖에서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인이 미래를 기대 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로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후 점차 '국적과 상관없이 공부하고 자 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서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통로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느낀 건 아이들의 성장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몸을 갖는다는 말은 사실 우리 성인이부터 시작을 했죠.'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2학년 1반의 어떤 엄마가 박성빈 엄마가 누구냐며 찾더라고요. 그 엄마의 말이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한 번도 보냈는데 전교 1등하는 애(성빈이)가 새벽에 나와서 공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이처럼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애들은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꿈이 커져요. 성빈이가 새벽잠 설치고 여러 아이들을 가르친 것처럼 인재가 될 만한 1등을 키우면 각 단위의 리더가 되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통로의 역할을 해주면 되겠다는 계기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고 6-8개월이 지나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점 20점 이었던 아이들이 50점이 되고 60점이 되니까 자기들도 놀라는 거죠.

세월호 정신

'고려인단체 너머에서 온 학생 중에는 고려인 3세인데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학생이 있었어요. 조금은 다른 외모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다가 6개월만에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 화장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선생님 저분이었어요. 저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내가 회장 선거 나갈 때도 선생님한테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막상 하나 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선생님은 나가 외교관을 꿈꾸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니까 자존감이 생겨서 요즘은 얼굴을 펴고 다녀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인생 상담을 해주면서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 해요.

내가 세월호 부모라는 것을 너희 알잖아. 선생님이 너희한테 말하는 거는 물론 첫째로 너희들이 잘 해야 하지만, 너희들이 잘해서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면 선생님은 이쯤에서 너희를 안 가르쳐. 선생님이 너희를 위한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내 줄 수 있는 약이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이게 세월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과 달리 글로벌 인재들의 가정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학구열과 두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박성빈국제인재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안타깝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염려기도 해요.

2017년에 시작하여 2019년 12월 4일 박성빈 생일에 개교한 이래 현재는 힘들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애들과 부모님이 2-3시간 전부터 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다려서 곤란할 때가 많아요. 좀 더 애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박성빈 국제인재학교 개교 기념식 참석 기념품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3~4개 국어가 가능한 이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낼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어떻게 구축할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과제입니다.

우리는 보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는 건 문제없어요. 진짜 문제는 이 친구들이 사회로 나갈 곳이 없어요. 한 마디로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기반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되는 거죠.

1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사회 나가니까 희망이 없어요. 왜 선생님은 저한테 꿈을 가지라는 불확실한 이야기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이거든요. 저는 정말 '내가 가면 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저는 길을 넘어 계단도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도움요청은 복지로 '도움요청'에서 하세요!

복지 도움요청이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 긴급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 또는 이웃이 온라인으로 사연을 작성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도움요청 채널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회원가입 없이 간단히 정보 입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정확한 주소 입력은 필수! 도움요청 후 '나의 요청내역'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움요청 방법

- 본인요청: 생활의 어려움으로 공적지원 또는 민간후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직접 신청하는 방법
- 이웃요청: 제3자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친구, 친인척, 지인 등)을 신청하는 방법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희망의 한마디

한국 아이들도 사립 대학교 갈 때 되면 '선생님! 저 대학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 꿈이 없거든요. '너는 청소년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이 말을 마치 수업을 못하는 아이들 앞에 떨어뜨려 놓고 '해봐! 하면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기를 추천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부든 다른 것이든 작은 것이라도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조언을 계속 들어가면서 수정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계속해 보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보니까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럼 내가 그 다음 꿈을 꾸고 또 그 다음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 작은 성공을 하다보면 꿈이 생길 수 있어요. 꿈은 열에서 꾸라고 해주는데 아니라 본인이 꾸는 거거든요.

꿈을 키워가는 일을 해나가면서 뜻을 같이하는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세월호 일하면서 만난 인연들과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라 믿어요.

2021년 4월 6일 안산 하늘공원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2021년 4월 '이슈&인물'은 4월 7일 박성빈국제인재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어 서지원 사 진 이슬미
전화 (031)-599-1770~1780 / 팩스 (031)599-179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26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3층

agyc@globalansan.com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찾아가는 배움교실' 신규 도민강사 모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대 프로그램 분야 150여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평진원)이 올해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신규 도민강사를 모집한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취업 희망 도민에게는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게는 공교육을 보완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분야별로 국·영·수, 영어뮤지컬, 코딩, 창의로봇, 창작공예, 통합미술 등 평생학습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인성함양 분야 내 도역사(인물, 문화유산)와 어린이 인문학

등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강사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주부, 청년 등으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이거나 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5월 7일까지로 총 15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4가지로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평진원 홈페이지(www.gill.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031-547-6543으로 연락하면 된다. 선정된 강사는 6월 7일부터 도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돌봄센터 등에 파견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공교육 보완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뜻깊은 사업에 새로운 도민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Миёккук 미역국



아가자난 아이다

В сегодня шней стать е я хочу под елиться с В ами ещё од ним замеча тельным бл юдом корей ской кухни, которое называется Миёккук. Ми ёккук-это суп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с говядиной и чесноком. Вкус у супа,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его едят в горячем виде, освежающий и бодрящий. Это отличный вариант для тех, у кого совершенно нет времени долго возиться на кухне, так как готовится он буквально за 30 минут. А ещё в Корее Миёккук считается символом новой жизни, поэтому он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блюдом на столе в дни рождения. 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ую выполняет Миёккук - э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организма после родов и поддержания энергии (за счёт множества витаминов и минералов содержащихся в морской капусте) у женщин после родов, поэтому в Корее женщины после родов в первы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бязательно едят Миёккук. Не возможно пройти мимо такого ароматного и вкусного блюда.

Ингредиенты:

- Миёк - 40гр
- Говядина - 300гр
- Чеснок - 5 зубчиков
- Соевый соус - 5ст.ложек
-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 3ст.ложки
- Вода - 2 литра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Миёк замочить в холодной воде на 20 минут. После чего хорошо отжать и нарезать на средние кусочки. Мясо нарезать на мелкие ку

бики, а чеснок мелко нарубить. В кастрюлю налить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и обжаривать мясо 1 минуту. К мясу добавить миёк и чеснок. Хорошо перемешать и обжаривать 1 минуту. Добавить соевый соус и воду. (Миёккук будет ещё вкуснее ес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ду из под промытого риса). Накрыть крышкой и варить на медленном огне 20 ~ 30 минут. Подавать с отварным рисом и кимчи.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한국에는 생일에 꼭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바다에서 나는 해초 미역과 소고기, 마늘, 간장 등을 넣고 끓인 비교적 간단한 조리법의 음식이지만, 그 맛의 깊이는 바다처럼 깊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미역국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녹색 스프는 대체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저만 했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미역국은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의 이상한 음식 TOP 10에도 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마 미역국을 직접 맛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한번이라도 맛을 봤다면 그렇게 투표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영양소가 풍부하여 출산 후 필수 음식이기도 한 미역국, 함께 도전해 보시고 생일을 맞이하는 가족에게 선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미역을 좋아하다 보니 미역으로 만든 음식도 종류가 많아요. 뜨거운 미역국과 여름에 주로 먹는 미역냉국, 여기에 미역무침, 미역볶음, 생미역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 미역쌈, 미역자반에 미역지짐, 미역김치 등등 미역을 이용한 음식은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예요.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1차)

참여대상
공고일(04.19.)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 만34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 포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저축 시 본인 저축액 포함
580만 원 상당 지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신청기간(1차)
2021. 04. 23.(금) 09:00~
2021. 05. 10.(월) 18:00
(모집은 선착순이 아니며 게시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1차) 5,000명 ※ 2차 모집은 8월~9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신청사이트(account.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세요.

세부내용
경기도청·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필수 확인
사업문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877-9358
(운영시간 04. 19.(월) ~ 05. 10.(월))
경기도 콜센터 031-120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공고문 참조)
시스템문의 : 홈페이지 관리 1661-9101

기타사항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선발
· 유사 자선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등 선정 제외
대상자는 공고문 참조



ควรจดจำข้อมูล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ที่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มื่อต้อง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

-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 หากข้อมูลธุรกรรม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งตนเองเกิดรั่วไหลและเกรงว่าจะ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๑12) : แจ้งแจ้งการจ่ายเงินและแจ้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
กองกำกับดูแลด้านการเงิน (๑1332) : ปรึกษาเรื่อ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และ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คืน
สำนักง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บนเครือข่ายอินเทอร์เน็ต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๑118) : แจ้งเว็บไซต์ฟิชซิง, เบอร์โทรและข้อความสแปม
금융회사 콜센터 : 금융거래 정보 노출로 피해가 걱정되는 계좌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은행과 카드회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참고자료 참조)
경찰청(๑12) : 지급정지 및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๑1332) : 피해 및 환급 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1118) : 피싱사이트, 스텝전화, 문자메시지 신고

คู่มือบริหารการเงิ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ฉบับภาษาไทย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 : 태국어 편

3. 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ใช้การกู้ยืมมาหลอกล่อ

ต้องระวัง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ที่โฆษณาเป็นตัวแทนดำเนินการขอเงินกู้จาก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ที่มีชื่อเสียง(เช่น อูรี, สินอื่น, อานา ฯลฯ) ผ่าน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 โทรศัพท์, ข้อความ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 ฯลฯ โดยไม่มีการพบหน้าลูกค้าโดยตรง 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ลักษณะนี้ส่วนใหญ่จะเรียกค่ามัดจำ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ขอเงินกู้ และเมื่อได้รับเงินจากเหยื่อแล้วก็จะหายตัวไป...

3. 대출빙자 금융사기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생활광고지, 전화,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유명 금융회사(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의 상호를 사칭하면서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는 불법 사기업체로 대출알선(중개)을 목적으로 각종 비용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명의의 통장을 달라고 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뿐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민·형사상의 처벌 및 금융거래 불이익이 따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ตัวอย่า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ใช้การกู้ยืมมาหลอกล่อ

Illustration of a man being scammed by a woman. Text: คุณ K(ชายวัย 50) ได้รับโทรศัพท์จากผู้แอบอ้างว่าเป็นพนักงานธนาคาร OO บอกว่า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การขอเงินกู้ดอกเบี้ยสูงใน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ที่ต่ำลง... K씨(50대 남자)는 OO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에 따라 K씨는 △△저축은행에 1,35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니 특정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대출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범은 1,350만원을 인출하여 잠적하였습니다.

1. ข้อสังเกต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ใช้การกู้ยืมมาหลอกล่อ

- 1. ข้อสังเกต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ใช้การกู้ยืมมาหลอกล่อ
1. ข้อสังเกตสั้น
นักต้มตุ๋นจะส่งโฆษณาชวนเชื่อเกี่ยวกับเงินกู้ดอกเบี้ยต่ำไปให้เหยื่อ เพื่อื่อดึงดูดเหยื่อมาปรึกษาปรึกษาจะหลอกล่อเหยื่อ เช่น เบอร์โทรศัพท์ และข้อมูลส่วนตัวของเหยื่อ
2. เชิญชวนให้เสียค่าใช้จ่าย เช่น ค่าลงทะเบียน, ค่า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มูล
นักต้มตุ๋นมักจะอ้างว่าเหยื่อมีเครดิตต่ำจำเป็นต้องมีค่าชำระค่าบริการทำเงินกู้ดอกเบี้ยต่ำและเรียกเงินก่อนเพื่อนำไปทำประกัน หรืออ้างว่าเหยื่อมีประวัติชำระบัตรเครดิตต้องลบประวัติทิ้งก่อนจึงจะสามารถขอเงินกู้ดอกเบี้ยต่ำได้และเรียกเงินค่ามัดจำสำหรับลงทะเบียน
3. เรียกร้องให้เหยื่อส่งโทรศัพท์, สำเนาสมุดบัญชี, เช็ก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ไปให้
นักต้มตุ๋นจะขอว่าให้ส่งโทรศัพท์, สำเนาสมุดบัญชี, เช็ก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ไปให้เนื่องจากจำเป็นต้องใช้เพื่อขอเงินกู้ดอกเบี้ยต่ำ หากเจอกรณีเช่นนี้ห้ามให้ความร่วมมือ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เพราะนักต้มตุ๋นจะนำสิ่งเหล่านี้ไปใช้ประกอบการต้มตุ๋น

2. 대출빙자 금융사기 특징

- 2. 대출빙자 금융사기 특징
1.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상담전화가 오면 전화번호,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 보증료, 전산비용 등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고 납부를 요구합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증료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신용불량 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 등 각종 비용을 요구합니다.
3. 휴대전화,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대출을 위해 통장사본, 체크카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이 금융사기에 활용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วิธีป้องกัน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ใช้การกู้ยืมมาหลอกล่อ

- 2. วิธีป้องกัน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ใช้การกู้ยืมมาหลอกล่อ
1. แจ้งเบอร์สแปมและบล็อกเบอร์ที่ติดต่อหรือส่งข้อความมาเพื่อโฆษณาเงินกู้
2. เมื่อตัดสินใจเรื่องขอเงินกู้หากมีการเรียกค่ามัดจำล่วงหน้าสำหรับ 'ค่าประมวลผล', 'ค่าประกัน' 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ว่าเป็นการต้มตุ๋น ห้ามให้ความร่วมมือ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
3. ห้ามส่งข้อมูลส่วนตัว, สมุดบัญชี, เช็ก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 ให้ผู้อื่นโดยเด็ดขาด

2. 대출빙자 금융사기 예방 방법

- 2. 대출빙자 금융사기 예방 방법
1. 대출을 알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모두 스팸으로 신고하여 사전에 차단하도록 합니다.
2. 대출신청 시 '전산비',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사전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체크(현금)카드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สรุป ภัยล่อลวง
1. จำเป็นต้องรู้ถึงรูปแบบ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พร้อมทั้งวิธีป้องกันการตกเป็นเหยื่อ
เนื่องจากในปัจจุบันมีการใช้สมาร์โฟนและอินเทอร์เน็ตกันอย่างแพร่หลาย ทำให้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ที่อาศัยสมาร์โฟนและอินเทอร์เน็ตมีพัฒนาการที่ล้ำหน้าขึ้นเรื่อยๆ มีผู้สมัค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รู้สถานการณ์เหล่านี้คือจำนวนไม่น้อยที่ตกเป็นเหยื่อจึง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เป็นพิเศษและพยายามหาข้อมูล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เหล่านี้
2. ควรระมัดระวังอย่าให้ข้อมูลส่วนตัวไว้ให้ใคร
สิ่งสำคัญที่สุดสำหรับป้องกันการ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คือการรักษาข้อมูลส่วนตัวอย่าให้รั่วไหล หากมีผู้อ้างว่าเป็นพนักงาน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ราชการ, 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ธนาคาร ฯลฯ และขอทราบข้อมูลส่วนตัวเป็นพฤติกรรมผิดปกติกฎหมาย 100% มีนักต้มตุ๋นจำนวนมากที่อาศัยจุดอ่อ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รื่องการอ้างเป็นแนวทางหลอกล่อเหยื่อ ดังนั้นไม่ว่าจะเร่งด่วนแค่ไหนก็ไม่ควรเปิดเผยข้อมูลส่วนตัวของตนเอง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
3. ควรมีข้อมูล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ที่สามารถขอรับ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ในกรณีตกเป็นเหยื่อ
ทันทีที่ทราบว่าได้หลอกล่อ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ภัยล่อลวงทางการเงิน ให้โทรแจ้งตำรวจ (๑12) หรือติดต่อบริษัทการเงินเพื่อขอระงับการจ่ายเงินเข้าบัญชีและโทรติดต่อกองกำกับดูแลด้านการเงิน(๑1332) หรือ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เพื่อขอคำปรึกษารองรับเงินคืน
4. การยินยอมให้ผู้อื่นยืมบัญชีของตนเองเป็นพฤติกรรมผิดกฎหมายอย่างชัดเจน
การให้ผู้อื่นยืมบัญชี หรือ ชื่อรายบัญชีให้ผู้อื่น ถือเป็นภาระที่ผิดทางอาญาอย่างชัดเจน ผู้ที่อ้างว่าเป็นต้องใช้บัญชีของผู้อื่นเพื่อให้เป็นเจตนาของการต้มตุ๋น ที่ผู้ยืมและผู้ให้ยืมถือว่าเป็นผู้มีความผิดทางแพ่งและอาญา จึงไม่ควรให้ผู้อื่นยืมบัญชีของตนเองโดยเด็ดขาด
1. 금융사기 유형을 꼭 알아두세요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널리 보급되다 보니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사기의 수준이 점점 더 지능적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물정 등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주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통신사 및 은행 등을 사칭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불법입니다. 특히 취업을 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악정을 악용한 범죄나 사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더군다나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융사기 노출 시 도움받을 곳을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자칫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 통장 또는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금융회사에 피해금에 대한 환급을 상담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에게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으며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민·형사상의 책임, 금융거래 불이익이 따르니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찾는 헌책&장난감 도서관

5월 6일부터 와~스타디움 2층 도서관 마련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5월 6일부터 와~스타디움 2층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헌책&장난감 도서관을 정식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서관에는 지난 11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헌책 1천여 권과 관내 지역 서점 및 도서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만화, 잡지 2천여 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록우산재단에서 무상대여한 장난감 50여종도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와~스타디움 2층 서측 2번 게이트 방향에 위치한 공간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도서와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다.

역대 안산의 책 전시코너, 추억이 가득

한 옛 도서 전시코너, 헌책교환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헌책 교환 코너에서는 1인 10권 이내로 시민이 직접 가져온 헌책과 교환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책 기증 참여와 협조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5월 3~20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해당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적립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 적립해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이지은 기자

Hướng dẫn sử dụng số cá nhân an toàn khi điền vào bảng ra vào tại các khu vực

Từ khi dịch Covid-19 xuất hiện và lan rộng ra toàn cầu, khi đến một khu vực cụ thể nào đó, việc điền các thông tin cụ thể của mình như Họ&tên, số điện thoại cá nhân, nơi định cư, vv là điều không còn gì xa lạ đối với chúng ta nữa.

Tuy nhiên việc điền trực tiếp những thông tin cá nhân của bản thân mình vào bảng thông tin ra vào cơ sở có một số những nguy cơ như lộ thông tin cá nhân gây ra một số những ảnh hưởng nhất định.

Nhằm khắc phục tình trạng để lộ thông tin cá nhân, hệ thống mạng của chính phủ đã cấp cho mỗi cá nhân một số an toàn thay cho số điện thoại chính thức của mình. Cấu tạo của dãy số này bao gồm 4 kí tự số và 2 kí tự chữ, tổng là 6 kí tự. 6 kí tự là số cá nhân an toàn tuyệt đối này các bạn có thể đăng nhập và được cấp thông qua KakaoTalk, Naver hay màn hình quyetys mã QR của ứng dụng PASS.

Khi đến một khu vực cụ thể nào đó, thay vì điền trực tiếp thông tin cá nhân của mình vào bảng kiểm tra thông tin ra vào của khách, các bạn hãy điền dãy số cá nhân an toàn được ứng dụng cấp.

Q1. Cách đăng kí cấp mã số an toàn như thế nào?
“Sau khi các bạn đồng ý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trên màn hình hiển thị mã QR do cơ quan quản lý

cấp mã QR như Naver, KakaoTalk hay PASS cung cấp, các bạn sẽ có thể nhận được một dãy mã số an toàn chỉ dành riêng cho bản thân mình.”

Q2. Tôi đang dùng hệ thống check của Naver, nếu tôi chuyển sang hệ thống KakaoTalk hay PASS thì mã số cá nhân có thay đổi hay không?

“Mã số cá nhân này được cấp cho từng cá nhân, dãy số không hề trùng khớp nhau. Do đó dù các bạn có sử dụng hệ thống cung cấp mã QR khác nhau đi chăng nữa thì dãy số bảo mật an toàn này cũng không thay đổi.”

Q3. Mỗi lần tôi muốn vào một khu vực nào đó thì tôi đều phải mở màn hình có hiển thị mã QR để lấy thông tin về dãy số bảo mật sau đó điền vào bảng quản lý tình hình ra vào của khu vực đó hay sao?

“Mã số bảo mật là mã số cố định, do đó nếu các bạn ghi nhớ mã số bảo mật đó thì không cần thiết phải mở màn hình hiển thị mã QR để xem và điền thông tin.”

Q4. Dãy mã số bảo mật này có thời hạn sử dụng đến khi nào?

“Mã số bảo mật có hiệu lực cho đến khi dịch Covid-19 hoàn toàn chấm dứt”

Chúc các bạn sử dụng dãy bảo mật một cách thuận tiện nhất nhé!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2학기 한국어교육 모집 안내문

책임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 부곡동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Ansa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교육기간 : 2021년 6월 2일 ~ 8월 23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센터 미등록시 추가 서류 요청)
- 교육내용

| 기간 | 배치기준 | 과정 | 운영시간 | 강사 |
|------------------------------|-----------|--------------|---------------------|-----|
| (2학기) 2021.6.2. ~8.23. | 1단계 수준 | 기초반 | 월수 10:00~12:00(2시간) | 홍미경 |
| | | 말하기2반(오전) | 월수 10:00~12:00(2시간) | 차정훈 |
| | 2단계 수준 | 말하기2반(오후) | 화목 14:00~16:00(2시간) | 이기주 |
| | | 쓰기2반 | 월수 14:00~16:00(2시간) | 이미경 |
| | | 쓰기3반 | 화목 14:00~16:00(2시간) | 김영임 |
| | 3단계 이상 수준 | 자녀 학교생활 정복하기 | 월수 14:00~16:00(2시간) | 홍미경 |
| | | 한자로배우는 한국어 | 월수 16:00~17:00(1시간) | 홍미경 |
| | | 속담으로배우는 한국어 | 화목 16:00~17:00(1시간) | 김대옥 |
| | | 말하기3반 | 화목 14:00~16:00(2시간) | 김대옥 |

- (3학기) 2021. 9.1 ~ 11.29
- 교육기간 중 30분이상 지각이 3번이면 1번 결석으로 하며, 3번 결석은 한국어교육 수업 불가
수료기준 : 출석 80%, 시험 60점
- 교재비 별도 (대형서점 또는 인터넷서점 별도 구매)
- 문의: 031- 599- 1708(지민주)
- ※ 센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온라인 교육시 수강생준비사항

- 수업 전 미리 시스템(시스코웹엑스)설치
- 데스크탑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선택
- 헤드셋 또는 마이크 이어폰 필수
- 유선인터넷 권장! (와이파이도 가능하거나 끊길 우려가 있음)
- 돌아다니거나 공공장소에서수강 금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시스코웹엑스)로 진행함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들어와야 출석으로 인정)

WJRC 031-599-1708 | <https://search.zum.com/search>

외국인 대상 예방접종 안내

< 외국인도 75세 이상이라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센터 내원 일정을 예약한 후 거주지 관할 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포함)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예방접종 사업대상자에 포함
*면제자: 「출입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및 자녀 등
- 단, 외국인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필요
-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
- ◆ 여행 등으로 90일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접종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시흥시-(의)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협약식 체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다솔방에서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이사장 최병철)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실 지원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진 및 구급차량 지원 ▲질병 및 감염병 예방과 치료의 우선적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기타 의료서비스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상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최병철 시화병원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시흥시 다문화·북한이탈주민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외국인 약 6만 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나만의 공부방 만들며 성취감 ‘쑥쑥’ 커요

시흥건가다가 능곡분관, 다가온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4월 22일(목) 능곡동 분관에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또래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 및 정서적 지원을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나만의 공부방 만들기’는 아이들이 직접 원목을 이용하여 공부방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지만,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작품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나만의 공부방 만들기’를 진행한 강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직접 원목으로 독서대, 책꽂이, 연필통, 시계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나만의 공부방을 꾸며가는 재미가 있어 참여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1년 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다가온(ON)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시흥시가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팍콘상담’,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공예 기부를 통한 소통프로젝트 ‘반짝반짝 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능곡분관(031-432-7994)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건가다가, 언어발달지원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5월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한다.

만 7살~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지원사업-독서지도법’은 5월 21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줌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독서환경 만들기, 연령별 독서지도, 도서지도 고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전화(031-319-7997)로 접수한다.

‘엄마와 함께 하는-소중한 나의 몸 탐구’는 5월 2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줌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4~6세 유아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정 대상이며 다양한 스킨십 활동을 통한 신체 어휘 익히기가 진행된다. 전화(031-319-7997)로 접수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5월 나들이, 자생화식물원 주말에도 관람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5월 2일부터 연꽃테마파크 내 자생화식물원을 주말에도 관람할 수 있게 개장한다.

연꽃테마파크 내 자생화식물원은 코로나19로 지친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힐링을 제공하는 도심 속 녹색쉼터로, 평일 개장만 하던 자생화식물원을 5월~ 8월(4개월간)에만 주말 연장 개장한다.

자생화식물원은 330㎡ 규모로 올해 새로 포도존을 만들고, 양치식물 종류를 따로 배치하는 등 정원의 느낌을 살렸으며, 사계국화, 애기동국, 매발톱 등 300여 점의 다양한 우리나라 야생화(꽃과 나무)가 식재돼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 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10명 내외)이 동시 관람이 가능하다.

자생식물원 운영시간(화요일, 목요일~일요일)은 10:00~17:00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수요일이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31-310-6220)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언어발달지원사업

독서지도법

| | |
|-----------|--|
| 01 | 수강일정 5.21(금) 16:00~17:00 ZOOM 온라인 강의 |
| 02 | 수강대상 및 인원 만 7살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님 10명 |
| 03 | 프로그램 내용 - 독서환경 만들기 - 연령별 독서지도 - 독서지도 고민(Q&A) |
| 04 | 신청방법 전화접수(언어발달지도사) 031-319-7997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с визами Н-2 и Е-9 с 13 апреля возможно официальное продление периода пребывания 법무부 Н-2, Е-9 비자 소지 외국인주민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С 13 апреля держатели виз с право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2 и Е-9, у которых истекает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3 года и 4 года 10 месяцев, -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официальное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В целях снижения трудностей, связанных с распределением рабочих мест в период коронавирус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официальном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с визами Е-9 (рабочие не специалисты) и Н-2 (поездка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 сайте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www.hikorea.go.kr 13апреля 2021г.

Согласно объявлению "Об официальном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с визами (Е-9 и Н-2)",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у которых в период с 13 апреля по 31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истекает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 3 года либо 4 года 10 месяцев

- могут продлить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на 1 год. Данное правило вступает в действие 13апреля 2021года. Согласно объявлению "Об официальном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чим с визами (Е-9 и Н-2)", в день приведения данного правила в действие - 13апреля 2021года- иностранец, у которого истекает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должен легально находить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Следует учесть, что в случае виз Н-2, иностранцы с данными визами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официально(сведения о начале работы должны быть отпущены в Минтруда).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места работы продление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на 3 месяца.

Внимание! Однако следующие категории исключаются из этого правила:

- те, кто насовсем покидает Корею;

- те, кто на момент вступления в действие данного правила (13апреля 2021г) находился за границей;

- те, кто уже продлил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и прочие процедуры в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либо онлайн;

- покойники; те, у кого отсутствует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должники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налогам;

- те, кто получил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для вылета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у 32 Закона "О 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либо отсрочку даты вылета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у 33 Закона "О 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 те, кто на дату вступления в действие данного правила -13 апреля 2021 г.-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вторный найм в Департаменте труда(нодонгчон).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срок пр

одления не будет отмечен в айдикаде, даже в случае посещения 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фиса. Уточнить точную дату разрешенного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можно на сайте www.hikorea.go.kr. в поле "Запрос на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체류만료일 조회, введя серию паспорта, гражданство и дату рожден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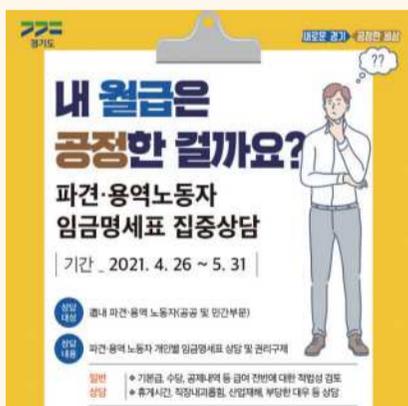
Вс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этого правила, можете, как всегда, уточнить по телефону комплексной службы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0*12*0*русский язык).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очень важн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мигрантов из Узбекистана, так как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меющие рабочий статус, в основном находятся в Корею по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м визам Е-9 и Н-2. Репортер Елена Ким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 기자 단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 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지원한다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과도한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 운영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민선7기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피는 활동을 펼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의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 기간제 근로자 254만5,000원의 83%에 불과하다.

특히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 및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 등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논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 상담 기간 동안 마을 노무사 16명을 상담 전담반으로 구성,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상담’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 공인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권역별 전담 마을노무사를 통해 개별 및 집단 상담에 대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 급여 전반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파견노동이나 용역노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물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상담’에서는 도내 공공(도 및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기관 등에 전담 노무사를 파견, 원청 설계내역서상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검토하고, 관리비 명목 등

로 불법적인 중개기구 수수료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경기도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중간착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와 연계해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 4635)로 문의 요청하면 되며, 이번 집중상담 기간 이후에도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다양한 문화배경 아동 공간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시흥시, 문화감수성 등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월 22일 아동들의 놀이와 쉼 공간 제공 및 문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는 다양한 문화배경의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가놀이지원사업 ▲양육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인성함양지원사업 ▲권리기반 강화사업 등 아동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가 위치한 정왕동(큰술로 67-8)은 이주민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정왕권역의 아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형 공간인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가 지난 1월 개소한 'mom편한 놀이터'와 함께 이주배경아동의 성장환경 격차 해소 및 열린 가족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시는 ‘차일드-퍼스트(Child-First) 시흥’이란 정책 기조로 모든 정책에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언어와 문화차이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다문화가정에게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가 배움과 소통, 나눔의 행복한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누구나학교' 협약체결

시흥시 중앙도서관과 수원시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함께



시흥시 중앙도서관(관장 김경남)은 수원시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과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누구나학교'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누구나학교'는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민주도의 학습공동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는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주도 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누구나학교'는 다양한 분야와 세대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기반의 시민주도 학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동네 카페 바리스타의 일일커피세미나가 열릴

수도 있고, 중화권 유학을 다녀온 청년의 중국어 학습모임이 개설될 수도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개설하고, 참여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올해부터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평생학습공동체 누구나학교>, <시흥 시민들이 들려주는 시흥이야기 아카이빙사업>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휴먼북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누구나학교’사업은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기관이나 전문가가 아닌 개인-시민-학습자에게 부여하는 시민 학습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누구나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건강한 학습공동체로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031-310-52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京畿道对收入减少的危机家庭 发放一次50万韩元的临时生计 支援金

虽然京畿道因“新冠病毒长期化”收入有所减少,但由于不是支付对象,所以针对没有得到第4次灾难支援金等政府支援金的危机家庭,一次性地支付50万韩元的生计支援金.京畿道通过对市、郡的事前需求调查预测,约7.4万户家庭可以获得临时生计支援金.

京畿道将以5月10日的网上申请为开端,开始受理“收入减少危机家庭限时生计支援金”.

“收入减少危机家庭临时生活支援金”的支付对象是今年1至5月期间收入比2019年或2020年有所减少的家庭,收入在今年3月1日为基准,中等收入在75%以下(4人标准365万多韩元),财产在3.5亿韩元以下(军队在3亿韩元以下).金融资产和负债不会另行查询或适用.

但是收到基础生活保障、生活保障及紧急福利、生活支援、供需家庭、紧急雇用稳定支援金、支柱木plus资金在内的第4次灾难支援金的家庭不属于支援对象.教育部支援的大学生劳动奖学金支援对象属于对劳动的薪金性质,因此可以重复得到临时生计支援金.申请的方法有线上和现场访问两种.从线上的情况来看,从5月10日上午9时到28日下午10时,只要登录福利路网站(<http://bokjiro.go.kr>)或移动网站(m.bokjiro.go.kr)即可.只有户主可以根据出生年度尾数单双号制进行申请.

邑面洞行政福利中心现场访问申请从5月17日到6月4日可以申请.与线上不同,户主、同居家庭成员、代理人也可以申请.

两种申请方法均在6月份内经过收入财产调查及确认是否重复等程序,将于6月末向决定支援的家庭账户以现金支付.支付额与家庭成员数无关,是每户50万韩元(一次支付).以农、渔、林业等小规模农户为对象的经营援助券(30万韩元)援助对象将获得20万韩元的差额补贴,用于维持生计.

京畿道福利事业科长지주연表示:“将积极进行宣传,使因新冠病毒长期化和收入减少而生活困难的低收入家庭在申请期限内多申请,并在适当的时间内接受.”

关于临时生计支援金的咨询可在居民登记地址市、郡厅、邑面洞行政福利中心、京畿道咨询中心(031-120)、保健福利部咨询中心(129)和ARS(1577-9333, 26日开始施行)进行.<한글 기사 7면> 왕그나 기자

언어발달지원사업
엄마와 함께 하는 '소중한 나의 꿈' 탐구

교육일정 2021. 5. 28.(금) 16:00~17:00 ZOOM 온라인 교육

참여대상 및 인원 4세~6세 유아들 둔 다문화가족 10가정

프로그램 내용 다양한 스킴십 활동을 통한 신체 어휘 익히기

신청방법 전화 접수
031-319-7997
(언어발달지도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О тандыре. Скоро в Корее тандыром никого не удивишь

우즈베키스탄에서 즐겨먹는 빵 단드르...이제 경기도에서도 만날 수 있어 즐거워

Вы пробовали когда-нибудь хлеб из тандыра?

Тандыр - это керамическая жаровня шарообразной или кувшинообразной формы с круглым отверстием, используемая для выпечки хлеба 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х блюд у народов Азии и Закавказья. Тандыр-один из самых древних видов печи,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ся до сих пор во многих уголках земного шара. Вначале он растапливается дровами, древесным углем или хворостом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 чаще природным газом либо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Затем стенки изнутри протираются от налета гари, спрыскиваются водой и к ним прилепляются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изделия,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выпекания. Они доходят до готовности за счёт жара, накопленного в толстых стенках тандыра. Э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вномерному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ищи, а также сохранению полезности, питательности и вкуса приготовляемых блюд. Вынимают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при помощи крючков с длинными рукоятками или специальных лопаток. Загрузка топлива, продуктов и выемка зольны выполняется через одно и то же отверстие. Так как тандыр происходит с тех мест, где всегда был недостаток древесины, то он отличается большой теплоемкостью и экономичностью при расходе топлива.

Тандырные блюда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руглой формы лепешки - ноны и патыры, а также самса, кабоб, цыплят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Тандыры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отверстием кверху -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амсы и запекания мяса и птицы, либо отверстием сбоку -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выпечки хлеба и самсы.

В сельских местностях Узбекистана, откуда я родом, в каждом дворе непременно установлен глиняный тандыр отверстием сбоку, и члены семьи могут в любое время насладиться свежими и душистыми лепешками с домашнего тандыра.

Самое удивительное, что независимо из каких ингредиентов будет тесто, даже из самого элементарного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на воде и муке получается невероятно ароматный и вкусный хлеб. И я могу вам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заявить, что никакой хлеб в мире не сравнится с ним по вкусу и аромату! А самса с тандыра? Это просто песня! Причем многие знакомые корейцы, попробовавшие узбекские блюда с тандыра, согласны со мной.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больше всего, по чему я скучала, и первое, что я хотела поесть по приезду в Узбекистан, это была тандырная лепешка. Можете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в то время, 10-12лет назад, почти все чемоданы приезжающих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ностранцев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были набиты ими! Ведь перевезти в Корею либо найти мастера по установке тандыра тогда было почти что сверхзадач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и обилии пекарен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выпечки в Корее, все самолеты из Ташкента везли тандырные лепешки, иногда самсу. На тот момент эти изделия были большой редкостью и великой роскошью для нас, с кучающих по этому непередаваемому аромату и вкусу далекой Родины.

Но времена меняются.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Корею приезжает все больш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и Передней Азии, где главным блюдом является хлеб, и в основном хлеб с тандыра, то и на 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появилас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тандыре.

Сейчас уже лепешками, самсой и ли другими блюдами, приготовленными в тандыре, в Корее мало кого удивишь. Стоит побывать в любом районе, густонаселенном иностранцами, и вы наверняка увидите это феррическое серое глиняное сооружение с круглым закопченным отверстием. Хотя, пожалуй, не совсем

так. Учитывая, что современные тандыры отапливают не дровами и углем, а газом либо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а также украшают глянцевой керамической плиткой разных цветов и рисунками, то внешний вид у тандыров достаточно презентабелен и даже отдает намеком на шик.

Причем сейчас уже и в Корее тандыр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прямо на улице. Более того, при желании можно нан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мастеров, которые установят Вам настоящий тандыр на Ваше усмотрение, где захотите: во дворе, в кафе, в др.месте, какой захотите: переносной или встроенный, на любой объем и внешний вид. Думаю, пройдет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и то, по чему иностранцы так страстно тосковали еще лет 10 тому назад, будет совершенно обыденным явлением нашей мигрантск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Как, например, происходит с тандыром.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ля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мигрантов, не выезжая за границу, и попробовать самый вкусный в мире хлеб - хлеб с тандыра!

Репортер, Елена Ким.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사진①우즈베키스탄의 빵 단드르, 사진②우즈베키스탄 마트 옆에 설치된 금단드르 화덕, 사진③이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시장에서 단드르빵을 굽는 화덕을 만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회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青少年热线1388

青少年网络咨询中心

<https://www.cyber1388.kr:447>



□ 青少年热线1388是什么？

- 从青少年的日常烦恼咨询到离家出走、学业中断、上网成瘾等危机时期，拨打1388，可提供心理咨询的服务。
- 青少年心理咨询师，青少年导师，社会福祉师等持有相关国家资格证的专业人员，或具有一定时间青少年心理咨询福利方面工作经验的专业咨询师们，分布在全国220多个青少年咨询福利中心，365天24小时不间断运营。

□ 需要拨打青少年心理咨询1388的情况

- 对同学关系、学习成绩、未来前途等感到苦恼时
- 遭遇家庭·校园暴力、性暴力·性交易等情况时
- 离家出走无处可去时，青少年子女的家长与孩子的关系出现烦恼时
- 需要青少年救助等其他帮助时

□ 在线咨询

- 什么是在线咨询？
 - 青少年网络咨询中心由女性家族部主管，由韩国青少年咨询福利开发院委托运营的心理咨询中心。
 - 青少年可以使用自己比较熟悉的网络，通过网上留言和聊天的方式咨询家庭矛盾、离家出走、上网、成长危机等问题的心理咨询服务。
- 使用方法
 - 全年无休365天24小时，随时随地可咨询
 - 留言咨询：登录www.cyber1388.kr可留言咨询，24小时内答复
 - 聊天咨询：登录www.cyber1388.kr进行1:1聊天咨询(pc、手机均可)
 - 手机聊天咨询时所发生的上网流量费用由咨询者承担

□ #1388短信咨询

- #1388短信咨询是什么？
 - 青少年把自己的苦恼，通过手机短信的形式，发给#1388，由专业心理咨询师答复并提供心理咨询服务。
- 使用方法
 - 编辑咨询内容短信发送至#1388
 - 365天24小时免费使用
 - 脸书链接 (<https://www.facebook.com/masul1388>)
 - 运营机构：东西南北手机沟通(02-6335-1388)

□ #1388 KAKAO TALK咨询

- # 1388 KAKAO TALK咨询是什么？
 - KAKAO TALK添加朋友#1388，添加成功后通过聊天室发送想要咨询的内容，专业心理咨询师将予以答复并提供心理咨询服务。
- 使用方法
 - 只能通过手机使用，KAKAO TALK添加朋友#1388后可进行咨询
 - 365天24小时可咨询
 - 上网流量费用由咨询者承担
 - #1388KAKAO TALK咨询链接 (<http://m.kakao.com/s/1190>)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家庭暴力性暴力综合咨询所

<http://www.shwhl.org>

宣传单



正往分所



新川分所



□ 家庭暴力性暴力综合咨询所

(031-496-9390)

- 地址
 - (正往) (15066)京畿道始兴市马游路330 5楼(大河大厦)
 - (新川) (14910)京畿道始兴市水仁路3378 7楼(盘石广场)
- 主要职能
 - (心理咨询·联系支援) 法律、医疗、女性暴力被害者治愈、子女陪伴支援等
 - (非公开保护机构支援) 帮助解决(离婚·自立生活等)问题，恢复治疗训练，职业训练(咖啡师、咨询师培养等)
 - (受害者医疗支援) 向性暴力和家庭暴力受害者提供全方位支援

女性紧急求助电话(无区号直拨1366/国民呼叫110)

| 地区 | 区号-1366 | 地址 |
|------|----------|----------------------------------|
| 中央中心 | 1366 | 首尔特别市龙山区孝昌园路158 Arim大厦4楼 |
| 首尔 | 02-1366 | 首尔特别市九老区Gama山路272 3楼 |
| 釜山 | 051-1366 | 釜山广域市金井区中央大路2238 |
| 大邱 | 053-1366 | 大邱广域市中区太平路53-13 Haemil大厦内 |
| 仁川 | 032-1366 | 仁川广域市富平区白凡路557街20, 京仁中心5楼 |
| 光州 | 062-1366 | 光州广域市西区Sangmujayul路73 光州女性发展中心内 |
| 大田 | 042-1366 | 大田广域市中区大兴路128 大田YMCA2楼 |
| 蔚山 | 052-1366 | 蔚山广域市中央区中央街162 3楼 |
| 江原 | 033-1366 | 江原道春川市运动村街528 DC MART3楼 |
| 京畿 | 031-1366 | 京畿道水原市灵通区灵通路200街 灵通Urville甲栋303号 |
| 京畿北部 | 031-1366 | 京畿道议政府市屯野路54-1 |
| 忠北 | 043-1366 | 忠清北道清州市上党区木连路27 忠北女性发展中心内 |
| 忠南 | 041-1366 | 忠清南道公州市Hanjeok2街42-20 |
| 全北 | 063-1366 | 全罗北道全州市完山区孝子路67-5 |
| 全南 | 061-1366 | 全罗南道务安郡三都邑Eojinnuri街30 全南女性广场5楼 |
| 庆北 | 054-1366 | 庆尚北道金泉市平华12街10(3楼) |
| 庆南 | 055-1366 | 庆尚南道昌原市义昌郡北面镇转路179-18 |
| 济州 | 064-1366 | 济州特别自治岛济州市友情路6街23 |

※ 全国16个市·道有设立(市·道各1各所，首尔·京畿各加1所)

- 服务对象
 - 家庭暴力·性暴力·性买卖·恋人暴力·跟踪骚扰等女性暴力受害者需要紧急救助、保护及心理咨询等帮助时
- 服务时间：365天24小时运营。
- 提供服务
 - 作为女性暴力受害者初期支援的窗口，提供心理咨询及紧急避难所
 - 联系专业心理咨询机构，各地区政府机关、警察、医院、法律机关等机构共同支援受害女性
- 服务使用方法：(无区号直拨)1366，如要咨询各地区救援中心，可拨打“当地区号+1366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法务部长期非法滞留外国儿童合法滞留救助对策实效性不足



法务部为非法滞留(未登记)中的外国人父母所生,并以非法滞留状态生活的儿童出台了救助对策。

虽然法务部为在韩国出生并在高中毕业后面临被强制出境危机的孩子制定了相关政策,但‘移民多文化’现场的声音却持否定态度。

法务部4月19日公布了《国内出生以非法滞留的儿童为条件的救济对策实行方案》,并表示将于2025年2月接受申请。

根据该方案,以申请日为标准,在国内出生并滞留15年以上,并在2021年2月28日以前小学毕业,在国内初高中就读或高中

毕业的未登记的外国儿童可以与外国父母一起到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申请合法滞留资格。也就是说,在韩国国内居住15年以上的未登记滞留儿童可以有条件地合法滞留制度已经出台。

已经从高中毕业成为成年人的情况,也可以附加就业或升入大学等条件,获得为期1年的临时滞留资格(G-1)。

此前,未注册的儿童没有被强制驱逐出境,可以在韩国生活。这是为了不符合人权国家的形象,也是为了尊重儿童最后的基本权利。

但这些孩子们在未登记的状态下,即使高中毕业也不能升入大学,而且很难找到合适的工作,因此陷入了无法梦想自己未来的痛苦境地。

如果通过此次措施,这些孩子们能够获得到高中毕业为止为了学业的滞留资格(D-4),那么在进入大学的同时,还可以期待就业,并描绘自己的未来。

父母也将在这些孩子成年之前获得临时滞留资格签证(G-1),并可以进行劳动活动。

大多数未登记的外国人不能使用的制度 尽管如此,非法滞留期间的罚款缴纳问题和子女长大后成人父母必须离开韩国这两点仍是最大的绊脚石。

申请救助的未登记外国父母在7年以上未登记的情况,如果在得到通知后3个月内能够缴纳罚款,就要缴纳900万韩元(3千万韩元中减免70%)。但在得到通知后超过3个月交纳罚款,减免的比率就会减少,交纳的金额就会增加。

如果未登记的期限是5年以上~7年以下,那么从2500万韩元中减免70%,交纳750万韩元即可。但是,生育15岁以上子女的大多数外国居民的未登记时间超过7年,从这一点看,需要交纳900万韩元的情况可能会更多。

最近,在因新冠病毒盛行,工作岗位不足的情况下,他们能否筹集900万韩元罚款的问题,在移居多文化现场,答案几乎是不可能。”

京畿全球中心代表宋仁善遗憾地说“向大部分经济状况非常困难的未登录移民者要求筹集900万韩元罚款,这无异于

通报不能参与这一制度。原以为未登录移民子女可以得到救助,但却成为给这些孩子带来另一种挫败感的政策。”

有人指出,虽然通过此次措施得到了救助,但如果子女长大后成人,父母就要离开韩国的条件也非常苛刻。

也就是说,如果升入大学,将需要最多的资金,但如果父母离开韩国,那么这个孩子如何继续学业?

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似乎在本国人的法律鉴定和平衡性争议之间煞费苦心。

对此,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有关负责人表示“在国民对非法滞留外国人尚未形成共识的情况下,这一制度似乎有些强硬。截至4月23日,非法滞留外国人三个家庭申请通过该制度予以救济。今后将仔细观察制度的执行过程,讨论需要什么样的变化。”

<한글 기사 3면>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왕그나 기자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주간’ 시민 연대

시흥시 응원주간 운영에 다양한 계층 시민 참여 응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월 12일부터 2주 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 ‘미얀마 응원주간’이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응원주간에는 유관단체, 초·중·고 학생, 노인,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응원 활동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미얀마의 안타까운 희생과 아픔을 공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손피켓을 만들어 응원에 동참했다. 선거, 민주주의, 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용기 있는 실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다.

응원 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심각해져 가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과 희

생자 발생에 대해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미얀마 국민에게 희망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연대이다.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지켜보고 지지하는 것뿐이지만 끝까지 응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주간과 관련해 “민주화 과정에서 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얀마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시흥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주간’에서 촬영한 응원 동영상은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얀마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공동협약 체결”

시흥시·시의회·교육지원청-군서미래국제학교



교’의 첫 개교학교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다국적 학생과 한국 학생이 어울려 생활하는 초·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다. 특히 각 나라의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과 프로젝트 활동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흥시는 현재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다.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군서미래국제학교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서미래국제학교가 미래학교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시흥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월 19일 군서미래국제학교 지원 협력을 위해 시흥시의회, 시흥교육지원청, 군서미래국제학교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개교한 군서미래국제학교가 지역 내 글로벌 인재양성 학교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군서미래국제학교 우수인재 유치, 지역사회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경기미래학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아동, 심리정서 지원 함께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 업무협약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와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문상록)는 지난 4월 22일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역량 강화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리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함께 실시하는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양 기관의 대표자들은 다문화와 가족,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환담을 나눴다.

문상록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원하는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부천 지역 내 다문화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연계하는 등 통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운영 센터장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겼지만 막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한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심리치료 서비스 및 가족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 지역의 아동복지 및 아동권리옹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서도 종합비타민 80개과 화장품 100개, 저소득여아지원용품 키트 10개 등을 후원했다.

송하성 기자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늘려 부천시, 외국인 주거생활 편익도모



부천시는 매해 증가하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언어영역별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17년 처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30개소를 지정한 이후 2020년까지 전체 53개 업소를 지정했다.

이후 중개사무소의 폐업, 전출 등의 사유로 현재 41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업소 중 영어가 25개소, 중국어 6개소, 일본어 9개소, 몽골어 1개소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며, 거주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부천시에서는 지정업소에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유효표 등의 언어별 번역물을 지원한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5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심사를 거친 후 지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 청년 및 근로자 희망 키우는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 '눈길'

다문화가족도 참여, 청년저축계좌 2기 가입자 모집하고 저소득 근로자 통장에 희망적립금

청년저축계좌 2기 가입자 모집

부천시에서 5월 3일~20일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1회/총 3회)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 통장에 희망적립금

부천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II)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다.

희망키움통장(II) 사업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II) 만기 해지 조건으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이 있으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키움통장(II)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한국 국적 취득하는 법 Trở thành công dân Hàn quốc(Phần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강한 뒤 시험 등 통과해야...범죄 경력 있으면 취득 어려워

1. Là công dân Hàn quốc ngay từ khi được sinh ra.
 Những đối tượng nào được gọi là công dân Hàn quốc? Luật quy định những điều kiện hay tư cách của một người để được gọi là công dân Hàn quốc chúng ta định nghĩa là Luật quốc tịch. Có một số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sẽ không phụ thuộc vào quốc tịch của bố mẹ,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ở nước nào thì sẽ có quốc tịch của nước đó, tuy nhiên Hàn quốc lại không như vậy. Theo luật Quốc tịch của Hàn quốc quy định những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bởi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đứa trẻ đó sẽ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ặc biệt, theo điều luật trước kia, dù bố hoặc mẹ của đứa trẻ l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hưng mẹ hoặc bố của đứa trẻ lạ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hì đứa trẻ đó cũng không được gọi là công dân Hàn quốc. Tuy nhiên điều luật này đã được thay đổi, một trong hai người là bố hoặc mẹ của đứa trẻ nếu có quốc tịch thì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cũng sẽ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uy nhiên nếu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xác nhận được bố mẹ của đứa trẻ hoặc bố mẹ của đứa trẻ không phải là người Hàn quốc thì dù đứa trẻ có được sinh ra ở Hàn quốc đi chăng nữa thì đứa trẻ đó cũng không được gọi là công dân Hàn quốc.

2. Những phương pháp để trở thành công dân Hàn quố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① Phục hồi và đăng kí mới quốc tịch Hàn quốc

Có 2 phương pháp cơ bản để có thể lấy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đó chính là phục hồi quốc tịch và đăng kí mới quốc tịch. Phục hồi quốc tịch ở đây được định nghĩa rằng một người nào đó đã từng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nhưng bị mất và hiện tại có nguyện vọng phục hồi lại quốc tịch Hàn quốc đã từng bị mất. Đăng kí mới

quốc tịch được định nghĩa rằng một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à chưa từng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có nguyện vọng lấy quốc tịch Hàn quốc trong thời điểm hiện tại. Hai trường hợp đăng kí quốc tịch trên đều phải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Bộ trưởng mới có thể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② Những điều kiện để có thể đăng kí quốc tịch

Đối với đăng kí mới quốc tịch, chúng ta lại có 3 loại hình đăng kí, bao gồm đăng kí "quốc tịch thông thường"-dành cho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n quốc tịch Hàn quốc, "đăng kí quốc tịch tối giản"-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liên quan đến Hàn quốc và loại hình thứ ba đó chính là "đăng kí quốc tịch đặc biệt"-dành cho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công với quốc gia Hàn quốc. Các điều kiện đăng kí cho từng loại hình quốc tịch như sau:

③ Những điều kiện khác

Để có thể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ngoài việc đáp ứng yếu tố cơ bản liên quan đến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ì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ần phải đảm bảo được một số những yếu tố khác nữa.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có tiền án tiền sự hay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gây ảnh hưởng đến trật tự xã hội là những người không thể trở thành công dân Hàn quốc, nói cách khác là không thể có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Để đăng kí quốc tịch loại hình thông thường và loại hình tối giản, người đăng kí phải đảm bảo được yếu tố kinh tế nhằm duy trì cuộc sống cá nhân, các giấy tờ cần thiết phải nộp để chứng minh cho năng lực kinh tế của mình được quy định trong luật Quốc tịch của Hàn quốc.

Ngoài ra, người đăng kí cần phải thông qua một số bài thi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Bài thi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này được chia thành 2 phần chính là thi lý

thuyết là thi phỏng vấn. Những nội dung được đề cập đến trong phần thi lý thuyết đó chính là năng lực tiếng Hàn quốc, những hiểu biết về văn hóa, lịch sử, xã hội, chính trị, vv của đất nước Hàn quốc. Mục đích được đặt ra ở đây đó chính là đảm bảo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í quốc tịch phải nắm bắt được những kiến thức cơ bản nhằm thích nghi với xã hội Hàn quốc sau khi trở thành công dân Hàn quốc. Trong phần phỏng vấn, ban giám khảo sẽ trực tiếp hỏi người đăng kí bằng tiếng Hàn quốc để đánh giá năng lực thực sự của người đăng kí, người đăng kí có những ý chí phấn đấu để trở thành một công dân có ích cho xã hội hay không.

④ Giáo dục về Hội nhập xã hội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nhận quốc tịch Hàn quốc có thể đăng kí học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được tổ chức bởi Bộ tư pháp. Nội dung được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đào tạo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ó chính là ngôn ngữ, văn hóa, xã hội, kinh tế, chính trị, lịch sử, vv của Hàn quốc. Toàn chương trình được chia làm hai quá trình nhỏ là Đào tạo Ngôn ngữ và Đào tạo những kiến thức về Văn hóa, Lịch sử, Chính trị, vv Tuy nhiên nếu không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í quá trình thì có thể không đăng kí học Hội nhập xã hội. Tuy nhiên khi hoàn thành khóa học Hội nhập xã hộ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ẽ nhận được một số những ưu đãi đó chính là được miễn bài thi lý thuyết của thi Quốc tịch. Sau khi đăng kí cho đến khi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thời gian chờ đợi cũng sẽ rút ngắn đi rất nhiều. Những người đã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có thể đăng kí học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do Bộ tư pháp tổ chức.

<43면 참고>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京畿道招募第12届全国多文化家庭演讲大赛参赛者

本次大会(7月10日)分为韩语演讲和双语演讲两个部分进行报名 본 대회 앞서 2개 부문 접수

京畿道从4月26日到5月21日招募 第12届全国多文化家庭演讲大会”参赛者。

今年7月10日举行的第12届全国多文化家庭演讲大会是为了通过多文化家庭成员之间的理解和沟通,建立幸福的家庭,培养全球性人才而举行的,该大会已举办了12年。

大赛分为以结婚移民者为对象的“韩国语演讲大会”和以多文化家庭子女为对象的“双语演讲大会”。考虑到新冠病毒情况,将进行在线竞赛。

参加资格是2016年1月1日以后入境并居住在国内的

结婚移民者和在全国小学、初中、高中就读或未满18周岁的多文化家庭子女。如果有在全国单位或广域地方政府主管(市、郡、区可以参加)的韩语演讲大赛上获奖的经历,不可参加。

大赛规则规定,韩国语演讲大会限时2分30秒,双语演讲大会“韩语”和“父母国家语言(与韩国语相同的内容)”各限时1分30秒,自由选材。

在报名期间内,参赛者提交的视频将于6月8日进行预选赛审查,并于6月11日公布20名出线选手(各部门10人)。审查标准包括表现力,内容构成及主题,发音,发表

能力等。与此相关的语言教授、专家等将担任预选和本选的评委。在本选中,各项目最佳1人、优秀2人、奖励2人、获奖5人将被授予奖状。

参赛者可通过访问,电子邮件和邮件申请。申请方法等详细事项可以参考京畿道网站(<http://www.gg.go.kr>)或告示、公告。

另外,在去年的比赛中,双语部分由始兴地区的薛东进学生的“始兴,我爱我的故乡”,韩语部分由安城地区팜뉴뉴的“像爸爸一样的丈夫”获得了各部门的最优秀奖。 <한글 기사 41면> 왕그나 기자



다문화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치료비 지원 부천소사로타리클럽, 부천시에 치료비와 후원물품 등 기부

지난 28일 국제로타리3690지구 부천소사로타리클럽은 부천시에 글로벌 보조금 치료비 5,200만원 및 후원물품 8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부천시 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로타리3690지구 부천소사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총예산 USD47,000 (한화 약 5,200만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제로타리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부모, 조손 가정 아동들과 다문화, 이주민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천소사로타리클럽은 '아름다운 사진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다'라는 주제로 초청작가 사진전 개최

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부천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약 800만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할 예정이다.

김홍렬 회장은 "부천소사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는 부천소사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소사로타리클럽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슬기로운 한국어생활 시즌2 '나의 첫 학생들에게'

박윤정 한국어교육 강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초급2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정 선생님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학기 다른 반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과 만난 수업이 첫 센터 수업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도 처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긴장을 했겠지요.

첫 한국어 선생님, 첫 수업, 첫 만남.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외국 생활에서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센터에서 저의 첫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수업마다 늘 웃음 빵빵 터지게 했던 저의 첫 학생들.

임신한 몸으로 힘들었을 텐데 만반의 수업 준비를 마치고 예쁘게 앉아 늘 열심히 하던 드OO이 씨, 도도한 눈빛으로 카리스마를 뽐지만, 소녀 같은 유O 씨, 저보

다도 더 '짠' 한국어를 구사하는 제O린 씨(제O린 씨의 밝음에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에너지를 팍팍), 유쾌한 농담과 웃음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과일 부자 주O만 씨, 어린 아기를 돌보면서도 늘 공부에 진지하고 열심히 했던 탄O 씨, 한국어에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 담당이었던 모범생 이O 씨, 한국어가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내 준 수O 씨까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선생님 코로나 끝나면~ 끝나면~" 하며 같이 만나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자고 했는데, 결국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시험 날, 얼굴 한 번 보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었네요. 저는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위로 받았습시다. 그리고, 저의 첫 수업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학기 다른 수업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저의 첫 학생들에게 지금이나마 너무 감사했고, 외국에서 살면서 한국어 공부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고 토닥토닥여 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수업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부천시, 외국인 및 법인 단체 토지거래허가 1년간 연장 공고

부천시는 외국인과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 국내 법인 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면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를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택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등 시장의 진정 효과는 보이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투기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재지정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32-625-4911

이지은 기자

2021년 한국어교육

- 기초입문반 - 월/수/금 10:00~12:00
- 기초심화반 - 월/수/금 10:00~12:00
- 기초 말하기반 - 월/수 14:00~16:00
- 기초 쓰기반 - 화/목 14:00~16:00
- 기초 어휘반 - 월/수 14:30~16:30
- 심화 말하기반 - 화/목 10:00~13:00
- 심화 쓰기반 - 화/목 10:00~13:00
- 중급 한국어 - 화/목 10:00~12:30
- 토픽반 - 월/수/금 13:30~15:30
- 중도입국재년반 - 화/목 16:00~18:00

문의)070-4457-6107
담당자: 최미선

작가의 꿈을 펼쳐보세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및 작품창작활동

- 대상: 한국어를 배우고, 글을 쓰고 싶은 외국인주민
- 초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한 한국어 공부
- 작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 자녀에게 국어교과서 지도 가능
- 내가 쓴 작품으로 전시 및 문집 발간

- 수업일정: 매주 화/목 13:30~16:30-3시간
- 수업방법: 온라인교육(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문의: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4457-6104

호 trợ chi phí sinh hoạt nhất thời 1 lần 500,000won/gia đình có thu nhập giảm trên địa bàn tỉnh Gyeonggi ... Thời gian đăng kí online đến từ 10/5 đến 28/5, đăng kí trực tiếp từ 17/5 đến 4/6

Tỉnh Gyeonggi đã có thông báo mới nhất hỗ trợ nhất thời dành cho gia đình có thu nhập giảm mà không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lần thứ 4 của tỉnh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kéo dài với số tiền là 500000won/hộ gia đình. Thông qua việc khảo sát đầu vào, có đến 74,000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này.

Từ ngày 10 tháng 5 trở đi, các hộ gia đình nằm trong danh sách được nhận hỗ trợ sẽ được phép đăng kí nhận tiền hỗ trợ từ phía tỉnh.

Cụ thể,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sinh hoạt cơ bản do giảm thu nhập là những gia đình có thu nhập trong năm nay giảm hơn so với năm 2019 hoặc năm 2020, thu nhập tính đến ngày 1 tháng 3 năm nay chỉ nằm trong khoảng dưới 75% thu nhập dạng trung(khoảng 3,650,000won/gia đình 4 thành viên) và tổng tài sản dưới 350 triệu won(đối tượng sinh sống tại thị xã là dưới 300 triệu won). Tài sản tín dụng hay số tiền nợ sẽ không được áp dụng điều tra thêm trong dự án hỗ trợ này.

Tuy nhiên những đối tượng như gia đình đang nhận tiền hỗ trợ chi phí sinh hoạt cơ bản, gia đình đang

nhận chi phí sinh hoạt phúc lợi khẩn cấp, tiền hỗ trợ ổn định lao động khẩn cấp, khoản hỗ trợ của gói sản phẩm Beotimmok+ cũng như những gia đình đã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lần thứ 4 về tiền hỗ trợ sẽ là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được đăng kí trong dự án hỗ trợ này của tỉnh. Chỉ có những sinh viên đang nhận sự hỗ trợ của Bộ giáo dục về học bổng lao động mới có thể đăng kí nhận sự hỗ trợ này.

Có 2 phương pháp để đăng kí đó chính là đăng kí online hoặc đến trực tiếp địa chỉ quy định. Thời gian đăng kí online là từ 9h ngày 10 tháng 5 đến hết 22h ngày 28 tháng 5, địa chỉ trang web để đăng kí online là <http://bokjiro.go.kr> hoặc m.bokjiro.go.kr. Chỉ chủ hộ mới có thể đăng kí, việc đăng kí sẽ dựa vào năm sinh số căn và số lẻ.

Từ 17 tháng 5 đến ngày 4 tháng 6 sẽ tiếp nhận hồ sơ dành cho những hộ gia đình đăng kí trực tiếp tại Ủy ban quận huyện, tại đăng kí trực tiếp, chủ hộ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đăng kí mà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hay 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cũng có thể đăng kí thay.

Tất cả hai phương pháp đăng kí trên đều sẽ được

nhân viên hành chính điều tra về tổng số thu nhập cũng như tổng số tài sản và có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trùng lặp hay không trong khoảng thời gian vào giữa tháng và sẽ chính thức hỗ trợ số tiền 500,000won/hộ gia đình 1 lần vào cuối tháng 6. Những hộ gia đình thuộc diện kinh doanh nông ngư lâm nghiệp sẽ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là 200,000won còn lại sau khi đã trừ đi số tiền hỗ trợ 300,000won đã được trợ cấp trước đó.

Trường khoa dự án phúc lợi tỉnh Gyeonggi Ji Joo Yeong cho biết rằng "sẽ tiến hành thông báo, quảng bá một cách tích cực để nhiều hộ gia đình nằm trong diện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có thể đăng kí nhằm giảm bớt gánh nặng về kinh tế trong mùa dịch Covid-19 kéo dài".

Mọi thông tin chi tiết mọi người có thể liên hệ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nhân dân quận huyện hoặc tổng đài của tỉnh Gyeonggi(031-120), tổng đài bộ phúc lợi y tế(129) hoặc ARS(1577-9333, tiến hành tiếp nhận từ ngày 26).

〈한글 기사 7면〉

강혜나 기자

รัฐบาลจะเพิ่ม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นึ่งปี 체류 및 취업기간 1년 연장

รัฐบาลได้ตัดสินใจ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ออกไปหนึ่งปี รัฐบาลพิจารณาถึง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หมู่บ้านเกษตรกรรมและชาวประมง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กำลังคน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การ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ละแรงงานจากการเข้าและออกจากเกาหลีเนื่องจากโคโรนา 19 แล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ออกไปอีกหนึ่งปี .

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โคโรนา 19 ขนาดของการนำ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E-9) ลดลง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ตั้งแต่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ของปีที่แล้วและจ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จดทะเบียน ณ ปี 2020 มีจำนวนประมาณ 10% เมื่อเทียบกับปี 2019 ในเกาหลีจำนวน 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ในเกาหลีลดลงอย่างมาก

ดังนั้นจึงมีมติให้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ต่างชาติดังกล่าว จำกัด สูงสุดไม่เกิน 5ปี เป็นภายใน 1ปี เนื่องจา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เข้าและออกจากประเทศเนื่องจากเที่ยวบินลดลงและ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

ยังคง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นใน SMEs และ พื้นที่ชนบท.

วางแผนที่จ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

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มีวีซ่า E-9 การ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ปัจจุบัน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 50 วัน จะเปลี่ยนเป็นการขยายเวลา 1 ปี และสำหรับการเยี่ยมเยียนชาวเกาหลี (H-2) ศูนย์จัดหางานจะออกใบรับรองความพร้อม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พิเศษ และ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ริ่มงา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และการหางานจะขยายออกไปอีกหนึ่งปีสำหรับคนงานที่ทำเช่นนั้นเท่านั้น

รัฐบาลจ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ต่างชาติดังกล่าวโดยไม่ต้อง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ละนายจ้างเป็นรายบุคค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นายจ้างจะต้องยื่นขอ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สัญญาจ้างแรงงานกับคนงานต่างชาติและ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ทำงาน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น ในกรณีที่ไปเยี่ยมชาวเกาหลี (H-2) นายจ้างจะต้องได้รับใบรับรองความพร้อม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พิเศษและนายจ้างหรือคนงาน

จะต้อง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ริ่มงาน

ดังนั้นจ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E-9, H-2) ที่อยู่ภายใต้มาตรการขยายนี้คาดว่าจะสูงสุด 114,596 จากขั้นต่ำ 70,128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 Lee Jae-gap กล่าวว่า "แม้ว่าจะมี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อย่างมากในการเข้าและออก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นื่องจาก Corona 19 แต่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การจัดหาและ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กำลังค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ขนาดเล็กและ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หมู่บ้านเกษตรกรรมและประมง ที่ไม่สามารถช่วยชีวิต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ได้ก็เป็นเรื่องร้ายแรงเช่นกัน "ฉันหวังว่า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ของคนงานและนายจ้างจะลดลงเล็กน้อย"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Park Beom-gye กล่าวว่า "เราคาดว่ามาตรการนี้จะเป็ประโยชน์ต่อพื้นที่แนวหน้าเช่นโรงงานผลิตและเกษตรกรรมและหมู่บ้านชาวประมงซึ่งกำลังประสบ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 ฉันกล่าว 〈한글 기사 11면〉

이아리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죄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접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의료 사각지대 난민 지원 '눈길'

경기글로벌센터, 난민 신생아 생명 구해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발굴과 지원을 아낌없이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는 국내 거주 이민자들의 고충 상담을 통하여 공공 기관이 신경쓰지 못하는 이민자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가나 국적의 난민 여성(29세)은 같은 처지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임신을 하고 얼마 전 00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다. 하지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호흡 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인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황급히 이송됐다. 갓 태어난 아기는 기도로 관을 삽입하여 호흡과 함께 이물질을 배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상태가 일부 호전되었다. 집중치료 약 보름이 지난 후 아기는 드디어 자가 호흡이 가능해졌고

퇴원 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난민 여성은 아기 입원치료비 약 2000만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다. 병원 측도 난감한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병원 측은 의료비도 안 받고 퇴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대로 두자니 의료비는 계속 늘 것이 뻔해 진 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해결사를 자처한 곳이 바로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이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긴급 의료비 모금 활동에 들어가 삼백만 원을 모금했다.

이후 병원 사회사업부와 협의해 300만원 외 치료비 전액을 해결했다.

경기글로벌센터는 이와 같이 이민자 긴급 의료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의 생명을 구하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글로벌센터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관으로써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통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를 찾아 지원하는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송하성 기자

내외국인 장애인 복지정책 차별 여전

<기고>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이민자 200만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무시와 차별은 여전한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동포 C씨(남, 51세)는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척추 장애를 입고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게 됐다.

그리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두고 온 가족들이 C씨를 돌보기 위해 원치 않는 가족 이민을 하게 됐다. 하지만 자녀들은 한국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C씨 가족은 고난을 남다르게 이겨내며 하나가 되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귀화신청을 해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한국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이 되기 전까지는 산업현장에서 똑같은 장애를 입고 똑같은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장애인 이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생활 곳곳에서 외국인 장애인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물론 명백한 차별이다. 그러나 이제 귀화를 하고 보니 내국인과 외국인의 장애인 처우와 복지 등 더욱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이처럼 장애를 입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모자라 장애인 시설 이용과 복지혜택에서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

내국인은 장애인이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분에 따라 각종 복지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몸과 마음을 다친 외국인 장애인들은 이러한 차별 대우를 납득하기 어렵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중증장애를 입은 외국인 장애인들도 내국인 장애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더 이상의 무시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상명대학교 한국학과 이민통합 박사 송인선 010-2756-3229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다문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나요?
도움요청 할 방법을 몰라 곤란하신가요?

위기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등 위기로 외상을 경험한 가족

일반가족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족

통합가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족

● 사례관리란?
다문화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

● 사례관리 지원내용?
심리검사,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 상담기관 연계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이용요금? 무료

여성가족부 지정 경기도 부천시 위탁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4 ☎ **070-4457-6110**
<http://bucheonsi.liveinkorea.kr> / E-mail : bcmfsc@hanmail.net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Trường hợp quản lý là gì?
Là khi gia đình đa văn hóa gặp khó khăn thì cung cấp dịch vụ phù hợp 1 với 1 để cùng nhau tìm cách khắc phục khó khăn và nỗ lực giải quyết.

- Gia đình có nguy cơ
- Gia đình đã từng bị tổn thương do những nguy cơ như tử tự, ly hôn, bạo lực gia đình
- Gia đình bình thường
- Gia đình không được nhận các dịch vụ của xã hội như là khó khăn về kinh tế, thiếu thông tin
- Gia đình tổng hợp
- Gia đình gặp khó khăn lâu dài và tổng hợp.

● Nội dung hỗ trợ?
Kiểm tra tâm lý, tư vấn pháp lý, gia đình có nguy cơ khẩn cấp, cung cấp các dịch vụ và kết nối với những cơ quan ở bên ngoài

● Phí sử dụng dịch vụ? miễn phí

● 事例管理?
多文化家庭发生困难时, 提供1:1的针对性服务, 共同寻找克服困难的方法帮助度过难关

- 危机家庭
- 因家庭暴力、离婚、自杀等危机情况有问题的家庭
- 一般家庭
- 因信息匮乏、经济困难等受不到特殊照顾的家庭
- 统合家庭
- 因多种原因长期有困难的家庭

● 事例管理服务内容
为解决多元文化家庭成员复杂多样的问题和要求, 提供心理咨询、法律咨询、危机家庭紧急支援、联系相关其他机构等综合服务

● 利用事例管理服务的费用? 免费

● What is case management?
When multicultural family has in trouble, we support 1:1 personal service to solve the problems

- crisis family
- a family which have trauma as like violence, divorce, suicide
- normal family
- a family which have no social service such as lack of information, financial/economic difficulties
- an integrated family
- a family who have complicated and long-term challenges/problems

● Service Content?
Psychological examination, Legal advice, Emergency support for emergency families, External consultation agency connection etc.

● Service charge? Free

여성가족부 지정 경기도 부천시 위탁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68번가길 4 ☎ **070-4457-6110**
<http://bucheonsi.liveinkorea.kr> / E-mail : bcmfsc@hanmail.net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성과보고회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산대학교 청학관에서 ‘오산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연구용역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20여 명으로 참가 인원을 축소해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오산시청 주무부서 관

계자, 연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오산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는 오산시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오산시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현황을 분석,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해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된 휴먼도시 실현을 위한 다문화가족 중

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정보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는 2020년 12월 4일 착수 협약식을 하고 4개월에 걸쳐 오산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연구용역 최종성과보고회를 열게 됐으며, 조사대상은 오산시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사례 수 205명) 및 자녀(사례 수 133명)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문화가정 방역물품

오산경찰서는 지난 4월 14일 오산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를 방문, 외사자문협의회와 다문화가정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오산경찰서 외사계와 외사자문협의회에서 방역 마스크 5,000장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 등에게 전달되어 전해질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마스크를 전달하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됐다.

이병희 센터장은 “어려운 시기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물품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엄마의 애착관계 진단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만들어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머니집단상담 ‘슬기로운 엄마생활’ 진행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머니집단상담 ‘슬기로운 엄마생활’을 4-5월에 걸쳐 총 5회기 진행한다.

‘슬기로운 엄마생활’은 대상관계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초기 애착경험을 통합하고 모.자녀의 상호작용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며,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각 참가자 가정에서 온라인 줌(ZOOM)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오산시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애착의 정의, 중요성을 이

해하고 어머니.자녀 간 상호작용의 패턴에 따른 안정애착, 불안정을 파악하고 회피, 불안정-저항의 유형 점검을 통해 나의 애착패턴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자신의 아동기 애착 경험을 회고하고 자신의 애착기억 중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통합해 부모를 이상화시키지 않고 편안하고 객관적으로 애착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부모의 애착 인물에 대한 내적 표상을 수정함으로써 우울감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게 된다.

특히 부모의 내적 작동모델 중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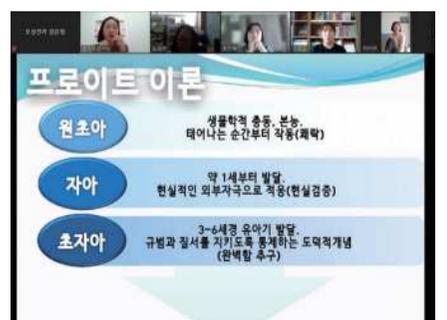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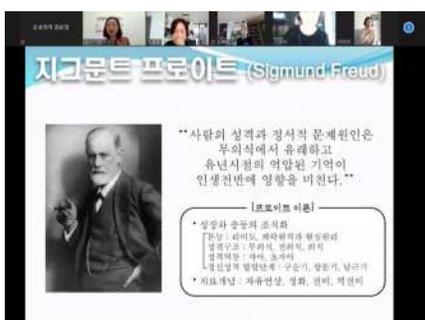
중요한 자아와 애착인물에 대한 내적 표상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롭게 정리하면서 자기 이해를 돕는다. 이는 부모의 애착패턴을 안정시켜 현재 자녀의 내적 작동모델을 바르게 하고 자녀에게 안정 애착 패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며 자녀 양육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한다.

특히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제반 지식과 양육기술을 습득하여 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을 알고 어머니.자녀의 정서적 친밀감을 향상한다.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3일 ‘대상관계

애착이론’, ‘나는 나, 나의 엄마’를 시작으로 4월 20일 ‘투사적 동일시, 자아통합’, ‘엄마 닮았네, 내 속에 있는 것들’, 4월 27일 ‘자아분리 및 건강한 자아형성’, ‘섭섭이를 몰아내자, 나 이런 사람이야’ 등이 진행됐다. 5월에는 4일 ‘모성물두 경험’, ‘그래도 멋진 나’, 11일 ‘주 양육자와 관계수용, 통합의 경험’, ‘어머니가 내게 주신 것, 독립을 향하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꼭 방문해 보자.

김영의 기자



아동학대예방 위해 '상담 및 치료, 교육'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나서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와 간담회 갖고 대책 논의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오전, 센터에서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소장, 이병희 센터장 등 총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장 인사로 시작된 간담회는 기관 실무자 소개 및 기관 사업소개, 연계 사업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기관 사업소개에서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서비스 운영사업(4개 영역, 33개 단위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5개) ▲다양한가족지원 별도예산 사업(6개) ▲다문화가족지원 별도예산 사업(도비 9개/법무부 1개/공모사업

1개)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센터 관계자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개 팀으로 나누어 총 55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팀은 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사업, 2팀은 전반적인 사업 운영, 3팀은 상담특성화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는 상담 및 치료, 교육, 아동학대 법적절차지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예방 사업 관련 업무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아동학대 법적절차지원 등-GN아동보호 통합지원 모듈 프로그램 제공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아동놀이 캠페인,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진행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사례 종결 논의 후에도 3개월의 기간 동안 재학대 모니터링 진행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의 연계사업 관련 ‘아이돌봄지

원사업’의 경우 이용가정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법, 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의심 시 신고 사례, 아이돌봄비 활동자 아동학대 의심행동 범주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에 따라 1개라도 체크가 되면 아동학대라고 보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신고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으므로 아동학대 의심될 시 즉시 신고하고, 상흔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경우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로 분리되어 가정복귀까지 절차가 있으며, 절차에 따라 최대 1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은 아동학대캠페인 주간 활동 협업, 릴레이 캠페인 등이 논의됐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영상을 제작할 계획

이다. 제작영상은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전에 틀어놓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해 수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상 제작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영상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아동학대캠페인을 매월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매월 함께 협업하면 좋을 것 같으나 올해는 어렵고 캠페인 주간 활동 시 협업하기로 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경우 사례관리 의뢰건 연계, 통합사례회의 참석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매월 1건의 사례를 가지고 1시간 이상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한 가정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필요에 따라 참석하기로 논의가 진행됐다.

‘가족상담’은 부모 상담 및 가정폭력 상담 연계가 논의됐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 · 오산시 지원

2021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교육기관 모집

현재 우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 |
|-------------|--|
| 교육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 11월 30일(화) / 기본 3회기 제공 |
| 교육장소 | 신청기관 내 교실 |
| 교육대상 | 오산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소속 아동 (5세 이상/2017년생 이상) |
| 교육내용 |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소개 · 체험을 통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 신청방법 | 네이버 폼 신청서 작성·제출 (http://naver.me/xgaXprjJ) |
| 신청기간 | 2021년 4월 7일(수) ~ 선착순 마감까지 |
| 문의 | 가족지원 2팀 김예영 (☎ 031-372-1335) |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하나금융나눔재단 AI 교육도시 오산

청소년 진로탐색 동아리 '꿈잡기' 동아리원 모집

활동기간 2021년 5월~11월
활동대상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모집 3팀
신청방법 전화신청(372-1335) ▶ 방문(성호대로 83) ※면접
활동내용 다문화·비다문화 통합 청소년 진로탐색 동아리 “꿈잡기(job)기”는 참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정기 활동(월 2회 이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진로에 선제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아리 특혜

1. 동아리별로 매월 10만원의 활동비 지급
2. 매월 1회 활동 주제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 봉사시간 부여
3. 모임 장소가 필요할 때, 장소 제공
4. 기관 견학, 직업체험을 원할 경우 기관과 연계하여 체험 제공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청소년과 군가족 복지 전문가, 다양한 가족 지원 위해 파주 가족복지 현장에 서다

〈인터뷰〉 조성심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우리 사회 복지의 출발은 가족이다”

올해 1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부임한 조성심 센터장은 가족과 아동청소년 전문가이자 2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이자다.

학교사회복지사로 10년간 현장에서 근무하며 청소년과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된 이후에는 한국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맡아 군가족 복지문제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거기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도 맡고 있어 가족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그의 존재만으로 파주시의 다양한 가족 복지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이다. 4월 초에 센터에서 그를 만났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소감을 말해 달라

“가족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4월 3일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39명 15가족이 참여하는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참여해 가족봉사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파주는 휴전선에 접해 있어 군가족이 많고 그분들의 행복도 중요하다. 군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병사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결국은 다시 가족문제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대부분 가족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센터 운영면에서는 실무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인드와 자세,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임 후 센터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어떤가?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직원 표정이 많이 경직돼 있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경직된 마음을 풀기 위해 ‘감사합니다 우편함’과 ‘정책건의함’을 만들어 자신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센터 운영의 개선점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합니다 우편함’에 올라오는 글들은 주로 다른 직원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함께 읽고 박수 치며 분위기를 다지고 있다. 정책건의함에는 대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용 핸드폰 제안이 들어와 최근 4대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가족들도 행복하다는 명제를 실천하는 일은 중요하다.

“동료나 선배에게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안하지만~, 번거롭겠지만~’ 등의 말을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먼저 전해져야 행복한 직장이 되지 않겠나. 업무와 관련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1달에 1~2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슈퍼 비전, 문서 작성 등의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감정 등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모두 편안하게 웃으며 일한다”

-다문화가족 서비스는 처음 맡은 것 같다. 어떤 생각인가?

“막내 동서가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이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무척 힘들어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 고부갈등, 문화차이, 자녀언어 문제 등 맞닥뜨리는 문제가 적지 않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이 절실히 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했다. 우리 사회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문화적응, 시댁과 관계, 남편과 의사소통 등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점점 자라 입대하는데 국방부의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작년 7월 현재 서울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일 때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군입대, 군가족의 높은 이혼률, 제대하는 군인들의 진로 문제 등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청소년기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군에 입대해도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현재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 군인성교육진흥원장도 맡고 있다. 복지의 출발은 결국 가족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파주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하겠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가가호호방문서비스를 통해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신한대학교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 영재발굴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발굴해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 아이들을 위한 자원을 연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선다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파주 출신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영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각오 한 말씀 해달라.

“우리 센터의 모토가 ‘으뜸 명품 가족을 만들어 가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신한대학교의 비전인 사랑과 봉사, 도전과 발전, 소통과 공감, 지성과 창의를 기본 철학으로 파주시의 다양한 계층의 가족은 물론 타 시도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가족像’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창의적인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비싸고 좋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파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소망과 애정을 갖고 센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I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ОХ ТУХА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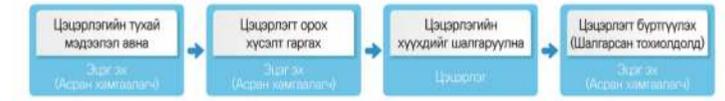
| Нас | Сургуулийн ангилал |
|-----------------|--|
| 3-5 нас | Цэцэрлэгт орох <small>[Эцэг эхийн бүрдүүлэх материал] "Чоом хактору" (www.go-firstschool.go.kr) веб хуудас¹⁾ нэг сонгогч өмчтэй болж бүртгүүлнэ.</small> |
| | 10-12 сарын үед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ээс хамаараад өөр байна) |
| | Дараа жилийн 1-2 сарын үед |
| 6-11 нас | Бага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ох <small>[Эцэг эхийн бүрдүүлэх материал]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ох тухай мэдээллийн хуудас хүлээн авч, сургуульд орох хувийн бэлтгэл хийнэ.</small> |
| | Сургуульд орохын өмнөх жилийн 12 сарын 20-ныг хүртэл |
| | 1 - 2 сар |
| 12-14 нас | Дунд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ох <small>[Эцэг эхийн бүрдүүлэх материал] байхгүй/болбогдох материал багасч, бага сургуулиас нэгдсэн журамд багариулна.</small> |
| | 1 сарын дунд үеэр |
| | 2 сарын дунд үеэр |
| 15-17 нас | Ахлах сургуульд элсэн орох |
| | 1 сарын эцэсээр |
| | 2 сарын дунд үеэр |
| 18 наснаас дээш |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

¹⁾ Цэцэрлэгийн бүртгэлийн систем болон "Чоом хактору" (www.go-firstschool.go.kr)-г ашиглаж боломжгүй бол цэцэрлэг дээр өмч бүртгүүлж боломжтой.

01 Цэцэрлэгт орох тухай



- Цэцэрлэгийн өмчийн хэлбэр**
 - **Төрийн өмчит цэцэрлэг:** Төрөөс байгуула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цэцэрлэг
 - **Орон нутгийн өмчит цэцэрлэг:** Орон нутгийн өөрөө удирдах байгууллагаас байгуула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хот мужийн өмчийн цэцэрлэг
 - **Хувийн хэвшлийн цэцэрлэг:** Хувь хүн, хуулийн этгээдийн байгуула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цэцэрлэг
- Хамрагдах хүүхэд**
 - Цэцэрлэгт 3 нас ~ бага сургуульд элсэх хүртэлх насны хүүхэд орох боломжтой.
- Элсэлтийн хугацаа**
 - **Хичээлийн шинэ жилийн элсэлт:** Цэцэрлэгийн хичээлийн жил 3 сарын 1-нээс дараа жилийн 2 сар хүртэл үргэлжлэх бөгөөд **хичээлийн шинэ жил нь ихэвчлэн 3 сард** эхэлдэг.
 - **Албан бус элсэлт:**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лаас хамаараад **албан бус элсэлт авах** тохиолдол ч байдаг тул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ээс хүүхэд ор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ийг лавлана.
- Элсэлтийн журам**
 - Цэцэрлэгийн бүртгэл, элсэн орох бүхий л ажиллагаа Цэцэрлэгийн бүртгэлийн систем буюу "Чоом хактору" веб хуудас(www.go-firstschool.go.kr)-р явагдана.



Q TIP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дүүргэгт харьяалагдах цэцэрлэгийг хайх

-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дүүргээг харьяалагдаж байгаа цэцэрлэгийн мэдээллийг "Цэцэрлэгийн бүртгэлийн систем(Чоом хактору)", "Ючивон аллими" веб хуудаснаас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Мөн цэцэрлэгт хүүхэд элсүүлэх журам, хугацаа, сургалт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мэдээлэл ч авах боломжтой.
- Чоом хактору(www.go-firstschool.go.kr): Цэцэрлэгийн насны хүүхдийн эцэг эхчүүд(асран хамгаалагч) хүссэн үедээ, хүссэн газраасаа цэцэрлэгийн тухай мэдээлэл авч, бүртгүүлэх, шалгаруулалтын хариу харах боломж буюу цэцэрлэгийн бүртгэлийн цахим систем юм.
- Цэцэрлэгийн мэдээлэл(www.childschoolinfo.moe.go.kr): Дүүргээг харьяалагдаж байгаа цэцэрлэг, түүни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мэдээллийг авах боломжтой.
- Бага насны хүүхдэд боловсрол олгох байгууллагыг сонгохдоо дараах 4 нөхцөлийг баримтлах нь зүйтэй.
 - [Байрлал] Гэр болон эцэг эхийнх нь ажлын газартай ойрхон газар
 - Цэцэрлэгт гарах нь хол байдаг хүүхэд явчлан стрессэнд ордог.
 -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үзэл бодол] Эцэг эх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үзэл бодолд тохирсон газар
 - Цэцэрлэгт тус бүр боловсрол олгох тухай өөрийн гэсэн өнцлөг, арга барилтай байдаг тул ням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дээр голлон ажиглаж байгааг нь сайн ажиглаж судална.
 - [Цэцэрлэгийн байр]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орчин сайн хангагдсан газар
 - Хүүхдэд цэцэрлэг дээр бүтэн өдөр өнгөдөг тул хүүхд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г хангасан, төрөл бүр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орчин хангалттай бүрдсэн эсэхийг сайн ажиглаж судална.
 - [Бэлч] Харилцааны өндөр чадвартай бэлч
 - Бага насны хүүхдийн өвч хяналт, хүмүүжлийн энэ насанд зөвгө хандлагатай бэлчийн харилцаа чухал байдаг.

Цэцэрлэгт орох хүсэлт гаргах

- Бүртгүүлэх хугацаа
 - Тухайн орон нутаг, цэцэрлэ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онцлогоос шалтгаалаад өргөдөл хүлээн авах хугацаа нь хоорондоо ялгаатай байдаг боловч ихэвчлэн **10-11 сарын хооронд дараа жилийн хичээлийн шинэ жилийн элсэлтийн бүртгэл явагддаг.**
- Бүртгүүлэх арга
 - Цэцэрлэгт орох өргөдлийг **онлайн**ар болон **цэцэрлэг дээр очиж бүртгүүлэх** бөгөөд нэг хүүхэд дээд тал нь 3 цэцэрлэгт өргөдөл гаргах боломжтой.
 - **Онлайн бүртгэл:** Эцэг эх(асран хамгаалагч) "Чоом хактору" веб хуудсаар дамжуулан цэцэрлэгт орох өргөдлийг бүртгүүлнэ.
 - **Цэцэрлэг дээр очиж бүртгүүлэх:**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 дээр очвол таны өмнөөс цэцэрлэгт орох өргөдлийг бүртгүүлж өгч болно.
- Цэцэрлэгт орох өргөдлийн бүртгэлийг **эн түрүүнд элсүүлэх хүүхэд, өрдийн элсэлт гэж** ангилдаг. **Эн түрүүнд элсүүлэх хүүхдийн тоонд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хүүхдийг оруулсан тохиолдол байдаг тул энэ тухай цэцэрлэгээс лавлана уу.**
-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хүүхэд мөн гэдгийг нотлох материалыг цэцэрлэгийн зүгээс нэмж шаардах тохиолдол байдаг тул энэ тухай бүртгэлийн зар болон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ээс лавлана уу.

Цэцэрлэгийн хүүхэд сонгон шалгаруулж, элсүүлэх тухай

- Цэцэрлэгийн хүүхдийг бүртгүүлсэн дараагаар нь сонгон шалгаруулж элсүүлдэггүй. Бүртгүүлсэн хүүхдийн тоо элсүүлэх хүүхдийн тооноос хамааран сугалаагаар шалгаруулан элсүүлдэг. Шалгаруулалтын хариуг "Чоом хактору" веб хуудас болон бүртгүүлсэн угтасны дугаарт явуулсан мессежнээс шалгана.
- Бүртгүүлсэн бүх цэцэрлэгийн сугалаанд таараагүй болон сугалаа таарсан цэцэрлэгт оруулахаас татгалзсан тохиолдолд элсэлтийн тоо нь гүйцээгүй цэцэрлэгт хүүхдээ оруулж болно. Нэмэлт элсэлтийн мэдээллийг "Чоом хактору" веб хуудаснаас мэдэх боломжтой.
- Цэцэрлэгт орох эцсийн шийдвэр гарвал эцэг эх(асран хамгаалагч)-үүд цэцэрлэгийн чиглүүлэх сургалт өдөрлөгт оролцож, цэцэрлэгт орохоос өмнө заавал мэдвэл зохих мэдээлэлтэй танилцана.

Цэцэрлэгт орох бэлтгэл ажил

- Цэцэрлэгт орох бэлтгэл ажлыг эцэг эхийн бэлтгэх зүйлс, хүүхдийг цэцэрлэгт ороход бэлтгэх гэж ангилна.
 - **Эцэг эхийн бэлтгэх зүйлс:** Сургалтын төлбөрийн тэтгэлэг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 цэцэрлэгт ороход шаардлагат ай нэмэлт материал(эцэг эх нь хоёлаа ажил хийдэг бол хүүхдээ албан сургалтын дараах хөтөлбөрт хамруулах өргөдөл зэрэг), зураг, цэцэрлэгийн зүгээс шаардаж буй бусад эд зүйлсийг бэлдэнэ.
 - ※ Эцэг эхчүүд хичээлийн шинэ жилийн нээлт хийхээс өмнө цэцэрлэгийн чиглүүлэх сургалт өдөрлөгт оролцож хангалттай мэдээлэл ав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Мөн хүүхдээ цэцэрлэгт оруулахаас өмнө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 дээр дагуулан очиж нь цэцэрлэгтээ хурдан дасдагч д өмчтэй байдаг.
 - **Хүүхдээ цэцэрлэгт ороход бэлтгэх:** Аху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зааж сургах, эцэг эх(асран хамгаалагч)-с нь хол, тусад нь байлгаж дасгах, үеийнх нь хүүхдүүдтэй тоглуулах, ахуйн өрөнхий зуршил(бие засах, хооллох зуршил)-г хэвшүүлэх, цэцэрлэгийн автобусанд суухад анхаарах зүйлсийг зааж сургана.



Хавсралт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боловсрол олгох үйл ажиллагаа

- Хичээлийн жил, анги хуваарилалт**
 -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боловсрол олгох сургалт нь жилд хоёр улирлаар явагдана.
 - **дүгээр улирал:** 3 сарын 1 (3 сарын 1-нд улсын хэмжээний тэмдэглэлт өдөр таардаг тул 3 сарын 2-нд хичээл эхэлдэг)-нээс цэцэрлэгийн хичээлчмаргалтын хоног, хичээлийн явцыг тооцоолон цэцэрлэгийн эрхлэгчийн гаргасан сар өдөр хүртэл (ихэвчлэн 8 сарын дунд эцэсээр таардаг)
 - **дугаар улирал:** 1 дүгээр улирлын хичээл дууссаны маргаашнаас дараа жилийн 2 сарын эцэс хүртэл
 -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алт нь өдөрт 4-5 цаг үргэлжлэх бөгөөд хичээлийн дараа хүүхэд савтуулах болон бусад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явагддаг.
 -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ийн нөхцөл боломж, сургалтын арга барилаас хамаараад 3 нас, 4 нас, 5 нас, хол имог насны анги гэж хуваагдана.
- Хичээлийн хоног, хичээлд орох**
 -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боловсролын хичээлийн жилийн хоногийг жилд **180-с дээш хоног** байхаар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ийн эрхлэгч тогтоон хэрэгжүүлдэг.
- Сургалт (Тоглоомд суурилсан сургалт)**
 - Сургуулийн өмнөх сургалтыг "**Нури буюу тоглоомд суурилсан сургалт**" гэж бөгөөд энэ сургалтын зорилго нь бага насны хүүхдийг тоглож байгаа тоглоомоороо дамжуулан сэтгэл зүй, эрүүл мэндийн хувьд өв тэлж өсөж торниход нь тусалж, ардчилсан нийгмийн иргэн болох суурийг тавьж өгөхөд оршино.
 - Нури сургалт нь 5 хэсэг(биеийн идэвхтэй хөдөлгөөн,эрүүл мэнд, хэл яриа, нийгмийн харилцаа, урлаг, байгалийн ажиллагаа) -с бүрдэх бөгөөд тухайн тоглоом бүртэй сургалт хүмүүжлийн ажлыг нэгтгэн зангидаж өгдөг.
 - Нури сургалтад тулгуурлан тухайн байдаг тохирсон төлөвлөгөө гарган хэрэгжүүлдэг бөгөөд тухайн цэцэрлэгийн хичээлийн хуваарьт гадаа тоглуулах цагийг оруулах зэрэгээр бага насны хүүхдүүдийг хангалттай тоглож нөхцөлийг бүрдүүлэн ажилладаг.
- Өдрийн хуваарь**
 -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сургуулиас ондоо зүйл нь цэцэрлэгт сурах бичиг байдаггүй. Цэцэрлэгт бага насны хүүхдийг сонирхол, шохоорлолдоо тохирсон тоглоомдоо чөлөөтэй оролцож, хөгжилтэй байлгахыг зорин ажилладаг.
 - Цэцэрлэгийн нэг өдрийн хуваарийг бүрдүүлдэг тоглоом, өдөр тутамд хийдэг зүйлс, үйлдэл бүрээсээ э хүүхдүүд янз бүрийн зүйл сурч байдаг. Гадаа тоглох цагийг оролцуулан тооцвол өдрийн хуваарийн н хамгийн олон цагийг тоглох цаг эзэлдэг.
 - Өдөр тутмын хийдэг зүйлст цэцэрлэгт ирэх, гараа угаах, 00 орох, хөнгөн зуушны цаг, өдрийн хоолны цаг, өдрийн унтлага, амралтын цаг зэрэг багтдаг. Үүний үр дүнд хүүхэд бие мэхбодийн хувьд эрүүл, чийрэг байж, цэцэрлэгийн орчинд өдрийг хөгжилтэй өнгөрөөдөг юм.
 - Хүүхдийг тоглож байгаа тоглоомдоо тулгуурлан орчин, нийгмээ танин, мэдэж суралцахад нь багшийн тус дэмжлэг зайшгүй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Тиймээс багш нар хүүхдүүдийн тоглоомыг илүү үр дүнтэй болгож, дэмжих үүднээс үйл хөдлөл, үйлдэлд нь төлөвлөгөө гарган ажилладаг. Жишээлбэл)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сургалт, шинэ дуу сурах, ярилцах, үлгэр сонсох зэрэг



“파주 지역사회 이웃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시 가족봉사단 발대식’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성심)는 지난 4월 3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파주시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가족봉사단 안내 및 봉사단 선서, 봉사자 직무 소양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

올해 파주시 가족봉사단은 총 15가족으로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하며 가족의 건강성 및 의사소통 향상,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족들간의 자조모임을 통한 이웃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조성심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봉사단에 참여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가족봉사단은 베이커리 활동과 수공예품 만들기 및 나눔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제12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京畿道、第12回全国多文化家族スピーチ大会 参加者募集



本大会(7月10日)に先立ち韓国語スピーチ、二重言語スピーチの2部門受付... <사진은 지난해에 개최된 경기도 말하기대회>

京畿道가 ‘第12回全国多文化家族スピーチ大会’ 참가자를, 4月26日から5月21日まで募集する。

7月10日に開催される第12回全国多文化家族スピーチ大会は、多文化家族構成員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向上を通し幸せな家庭環境をつくり、グローバル人材を育てるために12年間開催されてきた行事だ。大会は結婚移民者を対象にした‘韓国語スピーチ大会’と、多文化家族の子どもの対象にした‘二重言語スピーチ大会’にの二部門に分けて行われる。코로나19狀況を考慮して非対面オンライン競演で進行する予定。参加資格は2016年1月1日以後に入国した韓国国内居住結婚移民者と、全国の小・中・高等

学校に在学、または満18歳未満の多文化家族の子ども。全国単位、広域地方政府主管(市・郡・区は参加可能)の韓国語スピーチ大会で入賞経歴があれば参加することはできない。大会規則は韓国語スピーチ大会は2分30秒、二重言語スピーチ大会は韓国語1分30秒と両親の国の言語(韓国語と同一内容)1分30秒を、それぞれ自由なテーマで発表する。

受付期間内に参加者が提出した動画で6月8日に予選審査を行う。6月11日の本選進出者20人(部門別10人)を発表する。審査基準は表現力、内容構成およびテーマ、発音、発表力などだ。該当の言語に関連する教授・専門家などが予選および本選の審査を行う。本選で部門別最優秀1人、優秀2人、奨励2人、入賞5人に賞状が授与される。

参加希望者は直接訪問、メール、郵送で申し込むこと。申し込み方法などの詳しいことは京畿道ホームページ(<http://www.gg.go.kr>)、あるいは告示・公告を参考にすること。

昨年の大会では二重言語部門は、始興地域のソル・ドン진 학생의 ‘始興、私の大好きな故郷’、韓国語部門は安城地域 팜뉴우 뉴우 さんの ‘お父さんみたいな夫’ が、それぞれ最優秀賞を勝ちとった。 <한글 기사 41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봄제철 무료 요리교실 수강생 모집**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성심)는 오는 5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봄 제철 음식 만들기 무료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통해 갈등 해소 및 의사소통 향상을 도모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가족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부부역할지원(노년기 부부지원) 프로그램인 ‘봄 제철 음식 만들기 요리교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요리교실은 이마트 파주운정점 인근 현대프라자 6층의 파주요리학원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봄 제철 음식 만들기 요리교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031-949-9161

신한대학교가 파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한대학교의 비전인 사랑과 봉사, 도전과 발전, 소통과 공감, 지성과 창의를 기본 철학으로 파주시의 다양한 가족은 물론 타 시도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가족 像’의 표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 측은 건강한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유형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의 역량강화, 맞춤형 부모교육,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서비스, 문제유형별 가족 갈등 완화,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문화, 가족 관계증진, 가족과 함께하는 친화적인 지역 공동체 형성의 각 영역별 다양하고 창의적인 세부사업 내용들을 구상하고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2021년 부부역할지원(노년기 부부지원)

참가비 전액 무료
냉이달래 쇠고기 전골
봄 제철나물 만들기

일 시: 2021년 5월 12일(수) 14시~16시(2시간)
장 소: 파주요리학원(파주시 와석순환로 125 현대프라자)
대 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부부 또는 개인
모 집: 20명 선착순 모집(전화접수 031-949-9161~4)



다문화가족의 5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고! 재미있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하고 운영해요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세계문화로 만나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세계문화로 만나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및 세계여러나라 음식 만들기가 진행되며 몽골과 일본 편으로 나눠 이뤄진다. 5월 15일에는 몽골의 초췌(볶음칼국수) 만들기가 오전 10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후 11시부터 진행된다. 5월 29일에는 일본 오니기리도시락 만들기가 오전 10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후 11시부터 진행된다.

군포시 7세~ 자녀를 둔 가족 대상이며 각 과정당 3가족 10명 이내로 운영된

다. 무료로 다가온(ON)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문의는 다가온(070-4279-4079)으로 하면 된다.

#청소년 유튜브 동아리 '레인보우 픽쳐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소년 유튜브 동아리 '레인보우 픽쳐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1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초등학교 4학년~ 중학생 대상이다.

교육은 5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11회기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활동 장소는 다가온 내 유튜브크리에이터ON이며, 채널개설 및 영상 업로드부터 스마트폰 편집기술, 채널 운영전략, 저작권교육, 마케팅교육,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체험 등이 이뤄진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다가온(070-4279-4049)으로 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맘스쿨'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맘스쿨' 참여자를 오는 5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해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부모코칭은 5월 14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5월 21일 '베이비마사지'(10시~12시.18개월 미만), 6월 1일과 6월 8일 '오감놀이'(오후 4시~6시. 3~4세), 6월 15일과 22일 '책놀이'(오후 4시~6시. 5~7세)가 운영된다.

교육은 센터 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화(031-395-1811) 또는 방문 접수한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과정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多)잡(JOB)고(GO) '화훼장식(꽃) 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5월 25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031-392-1812)로 접수하며 취업 의지가 있는 한국어 수준 3급 이상 결혼이민자 9명 대상이다.

교육은 6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현꽃예술학원에서 진행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실기시험 접수 비용인 15만원은 개별 부담해야 한다. 취업소양교육 1회(7월 중 예정) 및 정착단계 집단상담 2회가 5월 16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웹엑스 비대면 교육으로 이뤄진다.

김영의 기자

2021년 5월 세계문화로 만나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및 세계여러나라 음식만들기(몽골&일본편)

| | |
|---|---|
| 5/15(토) 몽골: 초췌(볶음칼국수) *1회기: 10시~11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2회기: 11시~13시 초췌(볶음칼국수) | 5/29(토) 일본: 오니기리도시락 *1회기: 10시~11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2회기: 11시~13시 오니기리도시락 |
|---|---|

모집대상 | 군포시 7세~ 자녀를 둔 가족 누구나(각 과정당 3가족-10명 이내)

신청방법 | 센터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http://gunpo.familynet.or.kr>)

- 동행자 추가하여 참여자 전원 정보기입(필수!)
- '비고'란에 신청날짜와 국가입력(ex.5/15 몽골편)
- 신규신청자 우선 접수

신청기간 | 2021.4.27.(화)~ 신청마감시 까지

교육장소 | 다가온(ON)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2

이용요금 | 무료. 참여자 명단은 확정 후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문의: 다가온 070-4279-4079
가족지원 3팀 031-392-1811

청소년 유튜브 동아리 "레인보우 픽쳐스" 모집

2021.04.12(월)~정원 마감시까지

모집대상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10명 (초등4~중학생)선착순

활동장소
다가온 내 <유튜브크리에이터ON>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2

교육일시
*일시: 2021.5.6.~2021.7.15.
(매주 목요일 11회기)
*시간: 16:00~18:00

교육내용

- 채널개설 및 영상업로드부터
- 스마트폰 편집기술, 채널운영전략
- 저작권교육, 마케팅교육
-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체험

신청문의 | 다가온 070-4279-4049 / 가족지원 3팀 031-392-1811

Tỉnh Gyeonggi, tiếp nhận đăng kí cuộc thi nói lần thứ 12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Tỉnh Gyeonggi tiếp nhận hồ sơ đăng kí từ ngày 26 thán 4 đến hết ngày 21 tháng 5 dành cho đối tượng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nguyện vọng tham gia Cuộc thi nói lần thứ 12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trên toàn quốc. Ngày 10 tháng 7 tới đây, Cuộc thi nói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sẽ được tổ chức lần thứ 12 với mục đích giải quyết cùng nhau hiểu thêm và cùng nhau tìm hiểu thêm về những mâu thuẫn trong sinh hoạt tại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với hy vọng cùng họ tạo lên một xã hội hạnh phúc hơn.

Cuộc thi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kết hôn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họ sẽ tham gia trong phần "Nói tiếng Hàn quốc" và đối tượng là những trẻ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sẽ tham gia phần "Nói song ngữ".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cuộc thi sẽ được tổ chức thông qua kênh Online.

Điều kiện để đăng kí tham gia là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từ sau ngày 1 tháng 1 năm 2016 và những trẻ đang theo học cấp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với độ tuổi dưới 18 trên toàn quốc.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có kinh nghiệm tham gia Cuộc thi nói sẽ không được đăng kí tham gia lại.

Nội quy của Cuộc thi, phần Nói tiếng hàn sẽ kéo dài cho mỗi thí sinh là 2 phút 30 giây, giới hạn của phần thi song ngữ

là 1 phút 30 giây. Trong thời gian tiếp nhận hồ sơ, ngày 8 tháng 6 sẽ tiến hành duyệt bài mà thí sinh đã từng nộp, ngày 11 tháng 6 sẽ công bố danh sách 20 thí sinh được tham gia cuộc thi chính(mỗi phần thi bao gồm 10 thí sinh). Điều kiện duyệt bài bao gồm khả năng biểu hiện, nội dung và chủ đề của bài viết, phát âm, khả năng phát biểu, vv. Đội ngũ giáo sư và chuyên gia trong mảng chuyên môn sẽ là những người tham gia chấm điểm cho các thí sinh. Giải đặc biệt là 1 thí sinh, giải nhất 2 thí sinh và giải nhì 2 thí sinh và giải khuyến khích là 5 thí sinh.

Những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tham gia có thể trực tiếp đến đăng kí, đăng kí qua mail hoặc đăng kí thông qua gửi hồ sơ qua bưu điện. Mọi thông tin cụ thể người đăng kí có thể tham khảo tại trang web của tỉnh Gyeonggi <http://www.gg.go.kr>.

Ngoài ra, trong cuộc thi lần vừa qua, giải nhất trong phần Song ngữ thuộc về một học sinh tên Seol Dong Jin sống tại khu vực thành phố Si Heung với chủ đề 'Siheung, Tôi yêu quê hương tôi', giải nhất phần thi Nói tiếng Hàn thuộc về thí sinh mang quốc tịch Việt Nam họ Phạm với chủ đề "Người chồng giống như một người cha" đang sinh sống tại khu vực thành phố Anseong. <한글 기사 41면> 강혜나 기자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지역 특색 맞게"

한대희 시장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도시재생현장 찾아



군포시가 현장 행정 확인과 시민소통 강화 차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 지난 4월 27일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지구 현장을 찾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날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현재 군포의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측면이 있지만, 산업단지와의 접근성과 교통 등을 고려했을 때 거시적인 측면으로 중요한 지역임은 분명하다"라며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청년 창업의 유입과 다문화가정 포용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과 동

시에 인근지역과 상생·발전하고 소통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이어 "군포역세권 구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세권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 재공동은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재공 생활용품 공유센터'를 설치해, 4월 29일 한대희 군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생활용품 공유센터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방역소독기와 사다리, 공구 세트, 휠체어, 이동형 스피커,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라돈측정기 등 14개 물품을 비치하고 재공동 주민들에게 1박2일동안 무료로 대여한다.

생활용품 공유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재공동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맘 스쿨"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해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
집

- 모집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 모집기간 : 2021.4.10~5.10 (선착순)
- 교육장소 : 센터 내 / 온라인
- 접수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문의 : 031.395.1811 담당: 유해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多)잡(JOB)고(GO)

화훼장식(꽃) 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 모집 기간** 2021. 4.30(금)~5.25(화)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
☎ 문의: 031-392-1812
- 모집 대상** 취업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자 9명
(※ 한국어수준 3급 이상)
- 교육 기간** 2021.6.7(월)~8.3(화) 매주 월, 화 10:00~14:30
(점심시간 11:50~12:30 학원 외부 근처식당에서 개별적으로 식사)
- 교육 장소** 0현꽃예술학원 (금정역 도보 5분거리 위치)
- 유의 사항** ※ 자부담 150,000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실기 시험 접수 비용 개별부담)
※ 취업소양교육 1회(7월 중 예정) 및 정착단계 집단상담 2회
(5/26(수), 5/28(금) 10:00~12:00) 필수이수(웹엑스 비대면 교육)
※ 중도 탈락 시 1년 내 취업교육 참여 불가 (출석 80% 이상 필수)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75岁以上外国人新型冠状病毒预防接种指南>

- 接种对象:**在韩国长期滞留(超过90天)的75岁以上(1946年12月31日以前出生)外国人
- 疫苗种类:** Comirnaty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 ※ 以21天为间隔注射2次疫苗
- 接种场所:**各地方自治团体(市郡区)新型冠状病毒预防接种中心
 - ※ 因每个地区的开始运营时间不同, 所以申请接种时另行通知。
- 接种程序**
 - ① **接种申请(4~6月):**向邑面洞居民中心提交预防接种同意书(亲自访问提交)
 - ※ 没有外国人登录证的长期滞留者和外国人登记免除者(《出入境管理法》第31条第1项)在得到保健所发放临时管理号(携带护照等身份证)后, 可以在邑面洞居民中心申请接种。
 - ② **确定接种日期:**邑面洞居民中心通过电话联系、短信等个别通知
 - ③ **施行接种:**接到通知后, 访问预防接种中心接受第1次接种, 21天后再次访问并接受第2次接种
 - ※ 访问时必须携带身份证
 - ④ **接种后管理:**接种后至少3天注意观察健康状况
 - ※ 发热或肌肉痛持续3天以上时, 到医疗机构就诊, 出现严重过敏反应时, 立即到急诊室就诊。
- 咨询处**
 - 疾病管理厅呼叫中心 ☎1339 (外语指南)
 - 居住地邑面洞居民中心

75歳以上の外国人に対す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予防接種のご案内

- 接種対象:**大韓民国に長期滞在(90日以上)している75歳以上(1946年12月31日以前に出生)の外国人
- ワクチンの種類:** Comirnaty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 ※ 21日間隔で2回に分けて接種
- 接種場所:** 地方自治体(市郡区)別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予防接種センター
 - ※ 地域別に運営開始の時期が異なるため、接種申請時に別途ご案内いたします。
- 接種の手順**
 - ① **接種の申請(4~6月):** 邑・面・洞住民センターに予防接種の同意書を提出(直接訪問して提出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 ※ 外国人登録番号がない長期滞在者や外国人登録の免除者(「出入国管理法」第31条第1項は、保健所で一時管理番号を発行/パスポート等の身分証明書を持参を受け、住民センターで接種申請可能)
 - ② **接種日時の確定:** 邑・面・洞住民センターから個別に電話やショートメッセージ等のご案内
 - ③ **接種の実施:** 案内を受けた日時に予防接種センターへ訪問し、第1次接種を受け、21日後に再び訪問して第2次接種を受ける。
 - ※ 訪問時には必ず身分証明書を持参
 - ④ **接種後の管理:** 接種後、最低3日間は健康状態を注意深く観察する。
 - ※ 発熱または筋肉痛が3日以上続く場合には医療機関での治療を受け、深刻なアレルギー反応がある場合には、すぐに救急室を訪問する。
- お問い合わせ**
 - 疾病管理庁コールセンター ☎1339(外国語案内)
 - お住まいの地域の邑・面・洞住民センター

COVID-19 VACCINATION INFORMATION FOR FOREIGNERS AGED 75 AND ABOVE

- WHO IS ELIGIBLE:** Foreigners aged 75 years or older (born before December 31, 1946) who are long-term residents in Korea (longer than 90 days)
- VACCINE TYPE:** Comirnaty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 ※ 2 doses with an interval of 21 days in between
- VACCINATION LOCATION:** COVID-19 Vaccination Centers by district (free vaccination)
 - ※ Since each district will start vaccination at different times, you will be guided separately when applying for vaccination.
- VACCINATION PROCEDURE**
 - ① **Applying for vaccination (April to June):** Submit a written vaccination consent form to the local (Eup/Myeon/Dong) Community Center (In principle, it should be submitted in person by visiting the physical location.)
 - ※ Long-term residents who do not have a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and those who are exempt from foreigner registration (Article 31 (1) of the Immigration Act) can apply for vaccination at the local (Eup/Myeong/Dong) Community Center after receiving a temporary administration number from a public health center. (You will need to bring your passport or ID.)
 - ② **Receive confirmation of your vaccination date and time:** You will be receiving this information from the community center individually via phone call, text message, etc.
 - ③ **Get vaccinated:** Visit the vaccination center at the assigned date and time to receive the first dose. Revisit after 21 days to receive the second dose.
 - ※ Make sure to bring your ID when you visit
 - ④ **After vaccination:** Carefully observe your health condition for at least 3 days after vaccination
 - ※ If fever or muscle pain persists for more than 3 days, seek medical attention from a healthcare provider. If a serious allergic reaction occurs, visit an emergency room immediately.
-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1339 (foreign language help available)
 - Local Eup/Myeon/Dong Community Center

75세 이상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대한민국에 장기체류(90일 초과)하는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외국인
- 백신 종류:** Comirnaty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 ※ 21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접종
- 접종 장소:** 자치구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 ※ 지역마다 운영 시작 시기가 상이하므로 접종 신청 시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 접종 절차**
 - ① **접종 신청(4~6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예방접종 동의서 제출(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
 -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와 외국인등록 면제자(「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여권 등 신분증 지참)받은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종 신청 가능
 - ② **접종일시 확정:** 읍면동 주민센터가 전화 연락,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
 - ③ **접종 시행:** 안내받은 일시에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여 1차 접종을 받고, 21일 후에 재방문하여 2차 접종을 받음
 - ※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④ **접종 후 관리:** 접종 후 최소 3일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함
 - ※ 발열 또는 근육통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응급실 방문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외국어 안내)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5. 반려동물

대화-아파트 광장에서

은숙 :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메이 : 어제 비가 와서 추위질 줄 알았는데 따뜻하고 맑은 날씨예요.
 민정 : 날씨가 좋아서 저도 우리 집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왔어요.
 리엔 : 한국에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민정 :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꽤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메이 : 저도 예전에 고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는데 지금도 잘 있는지 궁금해요.
 리엔 :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동물을 키우지 못 하게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민정 :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주의사항이 많아요.
 은숙 : 맞아. 산책할 때 강아지 목줄과 배변봉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해.
 리엔 : 저는 큰 개는 좀 무서워요.
 민정 : 그래서 반려견 중 몸집이 크거나 특정한 종은 꼭 입마개를 해야 해요.
 메이 : 민정 씨는 강아지 키우면 힘들지 않아요?
 민정 : 처음에 친구 집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1달 동안은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애가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리엔 : 저도 키우고 싶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 했어요.
 민정 :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면 나에게 말해.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 줄게.
 은숙 : 요즘 애완견이라고 하지않고 반려견이라고 부르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
 메이 : 맞아요. 정말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숙 :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꼭 생명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안진숙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 중 대부분의 경우 개를 키우는데 가족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 반려동물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 그 분들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이제는 반려견 한 마리와 함께 살고 계셔.
 1인가구, 노령인구 등의 증가로 인해 외로운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의 모습이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국문화 - 반려동물 사육 시 주의사항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소음, 환경오염 등 민원이 늘어나고 유기동물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제 같은 새로운 준수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 목줄과 입마개 착용, 외출시 배변봉투 지참,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내 소음 예방, 폭력이나 유기 금지 등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 철저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국적 홍보단 웰커머 6기 발대식

광명동굴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외국인 관광객 안내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 다국적 홍보단 ‘광명동굴 웰커머(Welcomer)’ 6기 발대식을 지난 4월 2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명동굴 웰커머 6기는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총 5개 나라의 언어로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팸투어 단체관광객에게 동굴을 안내하고 해설한다. 아울러 광명동굴의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한다.
 광명동굴 웰커머는 2016년에 출범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팸투어 고객에게

외국어 해설을 제공하고 광명동굴 홍보 글을 SNS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역동적으로 진행해왔다.
 매년 외국인 관람객에게 외국어 해설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안내 주요 행사에서 통역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휴장으로 웰커머 활동에 다소 영향이 있었으나, 2021년은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광명동굴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기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김영의 기자

일본 역사 퇴행적 행위, 고립 자초할 것

유근식 도의원,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3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가 불법 점거되어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긴급안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적지가 독도이면서 현재 독도향우회 부회장을 맡은 유근식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자행해 왔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주권에 대한 침해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로 드디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교과서를 이용해 자국의 미래세대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역사왜곡 작태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을 악용한 역사왜곡 작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은 결국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더욱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 주문 ▲일본의 역사왜곡은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대처 주문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영의 기자

'육아 품앗이'로 우리 아이도 어른도 마을도 함박웃음

광명건가다가, 함께라서 즐거운 양육 환경 '품앗이 활동' 지원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남은정)는 광명시민을 위해 품앗이 활동을 지원한다.

광명시 경기육아나눔터 품앗이는 같은 마을 주민 간 협동 양육이 중심이 된 지역 품앗이 활동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10세 이하의 자녀와 양육자가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형 활동이다. 같은 공동체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을 정하고 아이를 돌보며, 함께라서 즐거운 양육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번 품앗이 그룹이 하고자 하는 주제는 미술, 요리 등 만들기 활동과 동네 탐방, 숲 체험 등 야외활동은 물론 영어,

한자 등 교육 기반 활동 등으로 다양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을 원하는 그룹이 많고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또, 안전한 공간 사용을 위해 육아나눔터(철산다락방, 소하다락방, 역세권다락방, 씨밋다락방 등 네 곳)를 찾기도 한다.

안전을 위해 각 육아나눔터는 매회 사용 후 소독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여 방역을 위한 조치를 한 층 높였다.

품앗이가 좋아 이 년 연속 참여하고 있다는 한 참가자(36세, 철산동)는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기대된다”라

며 “다른 가족과의 교류와 소통 또한 장점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남은정 센터장은 “품앗이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은 늘리고 스트레스는 줄이는 광명시민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센터(02-6265-1366)로 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의 위탁을 받아 (사)한국재활복지회가 운영하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명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돌봄, 문화지원 등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가족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광명’,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주민참여로 이웃 공동체를 만드는 광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광명건가다가 연중 수시 마음튼튼 놀이터 운영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남은정)는 다문화가정 자녀 또는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마음튼튼 놀이터’를 운영한다.

놀이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심리 놀이 활동으로 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마음의 의미를 찾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아이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잠재된 발달 가능 가능성을 찾아줄 수 있다.

유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이며 회기당 5,000원의 이용료가 있다.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용 시간은 주 1회 50분이며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주말반을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운영한다. 2단계반과 3단계반이며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진다. 전화로 접수한다. 02-6265-1366

김영의 기자

마음튼튼 놀이터

놀이치료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심리놀이활동!
놀이를 통해 표현되는 마음의 의미를 찾으며 성장하는 곳

- ☑ 우리 아이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 ☑ 우리 아이에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면
- ☑ 아이의 마음을 읽고 잠재되어 있는 발달 가능성을 찾아주고 싶다면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취약계층 자녀

연령층 유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요금 회기당 5,000원(취약계층 무료)

이용시간 주 1회, 50분(부모상담10분포함)

모집기간 연중수시(1월-12월)

문의사항 02-6265-1366

한국재활복지회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한국어 교육

한국어 주말반

~주말반 수강생 모집~

- 대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 기간** 3월 13일 ~ 7월 24일 / 매주 토요일
- 시간** 10:00-13:00 (3시간)
- 과정** 2단계 / 3단계 반 운영
- 방법** 온라인 수업 (Cisco Webex 활용)
- 신청** 전화접수 (02-6265-1366, 담당자 장원희)

자유로운 주말 수업 안전한 온라인 수업 재미있는 한국어교실

문의 | 02-6265-1366

한국재활복지회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가 행복해야 김포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과 아동도 행복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육아를 하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만12세 이하)에게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김포시 다양한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160

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육아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예술놀이를 통한 아이돌보미 힐링!’을 온라인원격 프로그램 줌(ZOOM)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음악으로 추억을 회상하는 과거 시간여행을 갖고 힐링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2회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신지영 김보미 강사가 진행을 맡아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돌보미 집담회는 아이돌보미 활동 경험 사례 공유를 통하여, 아이돌봄서비

스의 질을 향상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위주로 진행됐다. 집담회는 이용자 가정의 모니터링 내용을 중심으로 민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 A씨는 “집담회를 통해 이용자 가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돌보미의 자세를 배우고 가족, 아동과의 소통방법을 다양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아이돌보미들 간의 소통 시간이 마련되어 인사를 나누고 질의응답을 하며 돌봄 활동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와 복지를

위해 개인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집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또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031-996-5922)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2021년 김포의 방임(보호) 아동 및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모사업 선정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방임(보호) 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1년 방임(보호) 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 청소년이 원만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문화발달을 지원하고자 마련

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가정으로부터 방임(보호)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발굴하고 부모자녀 상담 교육을 실시하며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개별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관계개선 프로그램은 ‘가족여가지원’, ‘역사 예술 문화체험’, ‘가족의사소통교육’, ‘가족캠프’, ‘가족일상컨설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또한 지역의 네

트워크 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김연화 센터장은 “기존 통합센터의 교육 문화 상담 사업의 ONE-STOP 서비스와 이번에 선정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연계해 원가정으로부터 방임(보호)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다문화가족사례관리와 가족역량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의 가족기능성 강화를 위해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파견, 가족교육, 상담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에보안내 131

Impormasyon sa Libreng Konsultasyon ng COVID19 para sa mga Dayuhan

Kahit sino ay maaring mahawahan at hindi namamalayang maikalat ito sa pamilya at mga kapitbahay.

- Ang mga dayuhang hinihinalang na may sintomas ng COVID19 ay dapat sumailalim sa pagkuha ng konsultasyon.
- Kahit sino ay maaaring mahawahan at hindi namamalayang maikalat sa mga mahal sa buhay at kapitbahay kaya, kahit na walang sintomas kumuha ng konsultasyon.

Nababahala ba dahil isang iligal na dayuhan? Huwag mag-alalang kukuha ng libreng Konsultasyon!

- Kahit na iligal ang isang dayuhan hindi na sinusuri ang bisa, kaya huwag mag-alalang kukuha ng libreng konsultasyon ng COVID19 sa pinakamalapit ng pansamantalang klinika.
- Ang impormasyong personal na binigay ninyo sa klinika ay hindi ginagamit para sa ibang layunin maliban sa kuwentenas at hindi na isusumbong sa Ministro ng Hustisya ang pagka-iligal.

para sa lokasyon ng pinakamalapit ng klinika 1339 kapag nangangailangan ng interpreter 1345 / 1577-0071 / 1330

Kung nais mong malaman ang lokasyon ng pinakamalapit na klinika makipag-ugnay sa Sentro para sa Pagkontrol at Pag-iwas sa Sakit(1339), kapag nangangailangan ng interpreter tatalawag sa Pangkalahatang Sentro ng Impormasyon para sa mga Dayuhan Ministro ng Hustisya(1345), Sentro ng Konsultasyon sa mga Dayuhang Manggagawa Ministro ng Pagtatrabaho at Panggagawa(1577-0071) o kaya sa Sentro ng Impormasyon para sa mga Turista(1330).

| Numero ng Telepono | Oras ng Pagpapatakbo | Mga magagamit na wika para sa konsulta at interpretasyon |
|--|-----------------------------|--|
| (☎1345) Ministro ng Hustisya Pangkalahatang Sentro ng Impormasyon para sa mga Dayuhan (☎1577-0071) | 24 na oras 09:00 ~ 18:00 | 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ese, Thai, Indonesian, Russian, Mongolian, Bangladeshi, Pakistani, Nepali, Cambodian, Myanmar, French, German, Spanish, Filipino, Arab, Sri Lanka |
| Sentro ng Konsultasyon sa mga Dayuhang Manggagawa Ministro ng Pagtatrabaho at Panggagawa (☎1330) | 09:00 ~ 18:00 | Vietnamese, Filipino(English), Thai(Laotian), Mongolian, Indonesian(East Timor), Sri Lankan, Chinese, Uzbek, Kyrgyz, Pakistani, Cambodian, Nepali, Myanmar, Bangladeshi |
| Sentro ng Impormasyon para sa mga Turista Organisasyon ng Turismo sa Korea (☎1330) | 24 na oras 08:00 ~ 19:00 | 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ese, Thai, Malay/Indonesia, Russia |

Ministro ng Hustisya

Гадаадын иргэн ковид-19-ийн үнэгүй шинжилгээ өгөх зааварчилгаа

Хэн ч байсан халдвар авч болно, өөрийн мэдэлгүй хайртай гэр бүл болон ойр орчмын хүмүүст халдвар тарааж болно.

- Гадаадын иргэн танд ковид-19 халдварын шинж тэмдэг илэрвэл заавал шинжилгээ өгөөрэй.
- Хэн ч байсан халдвар авах магадлалтай, өөрийн мэдэлгүй хайртай гэр бүлдээ халдвар тараах талтай учраас шинж тэмдэг илрээгүй байсан ч шинж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арай.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даадын иргэн гэдэг шалтгаанаар айдас түгшүүртэй байна уу? Айж эмээх зүйлгүйгээр үнэгүй шинж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арай!

- Оршин суух хугацаа нь хэтэрсэн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даадын иргэн виз-ний а нгилал хамаарахгүйгээр үнэгүй ковид-19-ийн шинжилгээ өгөх боломжтой бөгөөд түргэ вчилсэн шинжилгээ өгөх цэгүүдэд айж эмээх зүйлгүйгээр шинж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арай.
-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өгсөн хувийн мэдээллийг зөвхөн халдварт өвчин сэргийл эх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х ба Хууль зүйн яамнаас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аа гэдэг шалта наар албадан барьж хорихгүй.

Өөрт ойр шинжилгээ өгөх цэгийг мэдэхийг хүсвэл 1339, ор чуулагч хэрэгтэй бол 1345 эсвэл 1330

- Ойр байгаа түргэвчилсэн шинжилгээ өгөх цэгийг мэдэхийг хүсвэл Эмгэг судлалын оронхий гээ рын лаалах(1339), орчуулагч хэрэгтэй бол Хууль зүйн яам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нэгдсэн зөвлөг өө өгөх төвд(1345) хандах эсвэл Ажлал жуулчлалын лаалах төв(1330)-өөс асуух боломжтой.

| Утасны дугаар | Ажлын цаг | Зөвлөгөө болон орчуулга хийх хэл |
|--|----------------------|--|
| (☎1345) Хууль зүйн яам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нэгдсэн лаалах төв | 24цаг 09:00~18:00 | Англи, Хятад хэл Япон, Вьетнам, Тайланд, Индонез, Орос, Монгол, Б англадеш, Пакистан, Непал, Камбож, Мьянмар, Фран ц, Герман, Испани, Филиппин, Араб, Шриланк хэл |
| (☎1577-0071)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 Гадаад ажилчдад зөвлөгөө өгөх төв | 09:00~18:00 | Вьетнам, Филиппин(Англи), Тайланд(Лаос), Монгол, Ин донез(Зүүн Тимор), Шриланк, Хятад, Узбекистан, Кирги стан, Пакистан, Камбож, Непал, Мьянмар, Бангладеш |
| (☎1330) Солонгосын Ажлал Жуулчлалын газрын Ажлал жуулчлалын лаалах төв | 24цаг 08:00~19:00 | Англи, Хятад, Япон хэл Вьетнам, Тайланд, Малайз/Индонез, Орос хэл |

Хууль Зүйн Яам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മിസ്സൗൽ കരണങ്ങളെ കൂട്ടിക്കൊല്ലാൻ സഭയാ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മിസ്സൗൽ കരണങ്ങളെ കൂട്ടിക്കൊല്ലാൻ സഭയാ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മെ സിൻ മിറ്റിംഗി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1339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1345/ 1577-0071 / 1330

-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സ്മരണകൾ നമ്പർ | സേവകൾ നമ്പർ | സ്മരണകൾ നമ്പർ |
|---|---------------------|--|
| (☎1345)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24 09:00 ~ 18:00 | English, Chinese, Thai, Vietnamese, Indonesian, Russian, Mongolian, Bangladeshi, Pakistani, Nepali, Cambodian, Myanmar, French, German, Spanish, Filipino, Arab, Sri Lanka |
| (☎1577-0071)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09:00 ~ 18:00 | Vietnamese, Filipino(English), Thai(Laotian), Mongolian, Indonesian(East Timor), Sri Lankan, Chinese, Uzbek, Kyrgyz, Pakistani, Cambodian, Nepali, Myanmar, Bangladeshi |
| (☎1330)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അറബി 19 വിദ്വേഷ അറസ്റ്റർ മിറ്റിംഗിന് സഭയാ ഞാമിൾ പരിഷ്കരണം | 24 08:00 ~ 19:00 | 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ese, Thai, Malay/Indonesia, Russia |

අධිකරණ අලාන්කාරය

外国人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無料検査のご案内

誰もが感染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自分が知らずに家族や近くの人に感染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疑われる外国人は必ず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 誰もが感染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自分が知らずに受する家族や近くの人に感染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症状がなくても診断検査を受けてください。

不法滞在の外国人で不安でしょうか。安心して無料で検査を受けてください！

- 不法滞在の外国人でもビザを確認することなく無料で新型コロナ診断検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ご心配なさらずに臨時選別診療所で検査を受けてください。
- 医療機関に提供した情報は防疫以外の目的で利用されず、法務部は不法滞在の取締りはしません。

**近くの診療所が知りたい場合は1339
通訳が必要な場合は1345/1577-0071/1330**

- 近くの選別診療所の位置が知りたい場合は、疾病管理庁コールセンター(1339)、通訳が必要な場合は、法務部の外国人総合案内センター(1345)、雇用労働部の外国人相談センター(1577-0071)または観光案内センター(1330)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電話番号 | 営業時間 | 相談と通訳が可能な言語 |
|------------------------------|---------------------|---|
| (☎1345) 法務部 外国人総合案内センター | 24時間 09:00~18:00 | 英語、中国語 日本語、ベトナム語、タイ語、インドネシア語、ロシア語、モンゴル語、バングラデシュ語、パキスタン語、ネパール語、カンボジア語、ミャンマー語、フランス語、ドイツ語、スペイン語、フィリピン語、アラビア語、スリランカ語 |
| (☎1577-0071) 雇用労働部 外国人相談センター | 09:00~18:00 | ベトナム語、フィリピン語(英語)、タイ語(ラオス語)、モンゴル語、インドネシア語(東ティモール語)、スリランカ語、中国語、ウズベキスタン語、キルギス語、パキスタン語、カンボジア語、ネパール語、ミャンマー語、バングラデシュ語 |
| (☎1330) 韓国観光公社 観光案内センター | 24時間 08:00~19:00 | 英語、中国語、日本語 ベトナム語、タイ語、マレー・インドネシア語、ロシア語 |

法務部

코로나 시대에 세계 떠돌며 고통 받는 줌머인들의 삶, 보이사비 축제로 위로받다

재한줌머인연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 '보이사비 맞이 국제 줌머 디아스포라 포럼' 개최

재한줌머인연대(회장 라트나)는 지난 4월 25일 오후 '2021 보이사비 맞이 국제 줌머 디아스포라 포럼'을 개최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한국과 방글라데시, 인도 등 세계를 연결한 가운데 노래, 공연, 포럼 등이 진행됐다.

차크마어, 영어 등 여러나라 언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로넬 씨의 진행으로 코로나 시대에 줌머인들이 처한 상황을 주로 소개했다.

라트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을 포함해 150명의 줌머인들이 김포에서 거주하며 한국 문화와 더불어 줌머 문화를 배우며 살고 있다"며 "한국인과 김포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라트나 회장은 코로나 초기 줌머불교 사찰이 한국 정부에 1500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줌머불교사찰은 질병에 걸린 줌머인들을 위해서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보이사비 축제가 코로나 이후에도 즐겁고 유익한 나눔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 사태속에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소식과 더불어 인도를 비롯해

세계로 이주한 줌머인들의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에 거주하는 무리날 차크마 박사는 "인도는 최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큰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는 인도 전체에 봉쇄령이 내려졌지만 이전에 봉쇄가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대도시와 지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됐다. 이들에게는 자가격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무리날 박사는 또 "차크마족은 외부와 고립된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안전망도 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같은 차크마족들의 지역공동체가 학교, 회관 등을 열어 지원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며 오랜 봉쇄

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이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크마족은 원래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줌머 11개 종족 중 최대 종족이다.

줌머인들은 1970~80년대 방글라데시 정부가 치타공 지역에 다수민족인 벵갈인들을 이주시키고 군대를 파견하자 고통받기 시작했다.

벵갈인들은 줌머인들의 토지를 빼앗았고 군인들은 벵갈인들을 편들며 폭력과 방화, 고문 등 각종 범죄를 일삼았다. 그 결과 수 만 명의 줌머인들이 고향을 떠나 세계를 떠돌고 있다.

송하성 기자



"정서지원 음악활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희망의 두드림 진행



김포시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음악을 매개로 한 정서지원활동의 기회를 얻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사)한국음악치료학회(학회장 최병철) 후원으로 마송중앙초등학교(교장 박순자) 다문화가정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음악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다양한 악기 연주를 통해 자기표현기술과 자아상 확립, 타인과의 관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26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타악기 중심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감을 오감으로 느끼고 자신의 기분을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자존감과 더불어 자아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음악활동을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연말에 시행되는 '온택트 희망의 두드림 음악회'를 통해 그동안 배운 음악적

재능과 성장된 모습을 선보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온택트 희망의 두드림 음악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방식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융합하여 온라인 콘서트로 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9일 (사)한국음악치료학회와 2021 희망의 두드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음악치료학회는 특색있는 음악프로그램과 함께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아동에게 집중교육과정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과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지는 기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만 19~39세 모든 청년 대상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청년정책 발굴에 있어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기간은 오는 5월 17일까지이며 응모주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능력개발, 복지, 문화, 결혼, 출산 등)의 청년정책 또는 최근 대두되는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라면 특정분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inu201394@korea.kr), 우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으로 접수 가능하며 심사방법은 1차 서류 심사(6월) 및 2차 발표 심사(8월)로 당선자에게는 상금(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5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지는 기자

“자신의 이야기로 한국어 실력 뽐내요”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개최

경기도, 본대회(7월 10일)에 앞서 한국어 말하기, 이중언어 말하기 2개 부문 접수

경기도가 ‘제12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오는 7월 10일 개최되는 제12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년째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대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경연으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와 전국 초·

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다. 전국 단위 혹은 광역 지방정부 주관(시·군·구는 참가 가능)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으면 참가할 수 없다.

대회 규칙은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2분 30초,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는 한국어 1분 30초와 부모 나라 언어(한국어와 동일 내용) 1분 30초 동안 각각 자유주제로 발표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참가자가 제출한 동영상으로 6월 8일 예선 심사를 진행, 6월 11일 본선 진출자 20명(부문별 10명)을 발표한다. 심사기준은 표현력, 내용구성 및 주

제, 발음, 발표력 등이다. 해당 언어 관련 교수·전문가 등이 예선 및 본선 심사를 맡는다. 본선에서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입상 5명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방문,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혹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서 이중 언어 부문은 시흥지역 설동진 학생의 ‘시흥, 내 고향 사랑합니다’, 한국어 부문은 안성지역 팜뉴뉴의 ‘아빠 같은 남편’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국어 23면, 베트남어 34면, 러시아어 9면, 일본어 32면> 송하성 기자

과천시, 시민을 위한 ‘꽃과 심이 있는 거리 조성사업’ 등 아름다운 꽃길 조성



과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꽃과 심이 있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과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중앙동 6-3, 정부과천청사 버스정류장 인근의 가로 쉼터 화단을 꽃과 허브 향기가 흐르는 자연친화적 치유정원(Therapy Garden)으로 재조성했다. 이 치유정원에는 로즈마리 외 20여종의 허브

와 야생화 등을 식재하였으며, 꽃 조형물로 꾸며진 포토존을 설치하였다. 치유정원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짧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연과 꽃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감성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중순부터 관내 가로변 및 주요 화단에 프렌치 라벤더 외 20여종, 약 110,000여본의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꽃과 함께 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김종천 시장은 “앞으로도 꽃과 심이 있는 과천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시민참여형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

화로 답답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직접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며, 지역밀착형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속에 자연친화적 심신치유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4일에는, 사전에 참여신청을 한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부림1교와 부림2교 사이의 양재천변 산책로에 꽃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초화 30,000여본을 식재하고 코스모스 씨앗 등을 파종했다.

과천시는 오는 5월 7일,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 과천동, 갈현동 마을공동체와 함께 중앙공원부터 부림1교 사이의 양재천변 산책로에 꽃 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다함께가족 공감행
가족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3달에 한번, 3째주 토요일, 3대가족 다함께

- 대상: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부모님 등 5가정
- 신청기간: 4월 12일(월) ~ 5월 7일(금)
- 장소: 참여자 가정(비대면,Zoom 활용수업)
- 일정: 5월 15일, 8월 21일, 11월 20일(토) 17:00~19:00

| | | |
|-------------------------|-------------------------|--------------------------|
| 1회기 5월 15일(토) | 2회기 8월 21일(토) | 3회기 11월 20일(토) |
| 다문화 감수성의 이해 | 우리가족 슬기로운 소통 방법 | 가정 내 원형 찾기 |
| 다름이 주는 긍정하트 | 아내 나라 음식 체험 | 모자소리 따라 할음 일제안단 |
| 키트 제공 | 생애곡선 마사지 | 역알곡 |
| | | 우리가족 사용설명서 |
| | | 남편 나라 음식 체험 |
| | | 가치업서 작성 |
| | | 키트 제공 |

다함께가족 공감행 프로그램 신청하기

다문화사회 이해 온라인 캠페인

우리는 함께 합니다.
다문화시대, 또 하나의 가능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동영상 시청

소감작성

신청을 통해 **여권놀이 제공 (40명)**
*도움 불포함

세계탐험 여권놀이

두두영 이미지 제공

동상동몽 부모자녀 관계방정 프로그램

아이와 함께 놀면서 대화해요.

- 대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5가정 (10명)
- 신청기간: 4월 12일(월) ~ 5월 7일(금)
- 장소: 참여자 가정(비대면,Zoom 활용수업)
- 일정: 5월 15일, 22일(토) 10:00~12:00

| | |
|-------------------------|-------------------------|
| 1회기 5월 15일(토) | 2회기 5월 22일(토) |
| 10:00-11:30 (부모자녀합반) | 11:30-12:00 (부모반) |
| 느낌과 욕구 이해 | 부모-자녀 새롭게 만나고 알아가기 |
| | 자녀와 공감 트레이닝 |
| | 느낌으로 표현하고 공간으로 놀기 |
| | 부모와 NVC(비폭력대화) 전문가 토크 |
| | *부모 1명, 자녀 1명으로 신청 |

동상동몽 프로그램 신청하기



지역사회 어린이들에 어린이날 기쁨 전해요

안양건가다가, 안양시지역아동센터에 선물꾸러미 전달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연주)는 지난 4월 27일 오후 센터에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식 및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봉사단이 직접 제작한 선물꾸러미를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전달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선물꾸러미 전달은 안양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21개소 816명 아동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연주 센터장은 “11년간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다. 또 전화 자원봉사도 운영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나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진희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봉사단 회장은 “자녀들에게 봉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 딸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있다”며 “한번 봉사를 할 때 50~60명 가량이 참여한다. 지난해부터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센터에서 재료를 수령해 물품을 만드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양건가다가, 가족이 함께 요리 하며 맛있는 소통으로 관계 향상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지원 사업 ‘가족요리교실’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가족요리교실’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일원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의 양방향 소통의 기회 제공을 통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매월 2회씩 11월까지 총 16회기 진행되며 각 가정 내 비대면 진행으로 이뤄진다.

매회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각 5가족 대상이다. 가정마다 1번씩 돌아가며 요리 소개 및 시연하게 되며 비대면 진행으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키트로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리에 대한 유래와 설명 등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나누며 참가 가족 간 소통하며 진행된다. 6회기는 전문 강사가 요리를 소개하며 특강으로 마련된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이해하고 소통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소속감 증진 및 비다문화 가족의 인식개선 도모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나라의 음식 체험을 통한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소속감 증대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생활 전반의 문제, 상담으로 심리.정서적 지지

안양건가다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진행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개인과 주변 가족의 가정생활 전반의 문제에 대한 ‘2021년 다문화 개인.가족상담’을 실시한다.

개인.가족상담은 심리.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자기 성장을 통한 문제해결력을 향상함으로써 가족 문제의 예방 및 치료, 건강한 가정의 형성 및 유지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에서 동반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인, 부부,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통합적인 접근으로 가족 간 갈등 및 가족폭력, 가족해체 현상에 개입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 상담은 다문화가정을 통합 가족치료로 접근하여 다문화가정이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았던 시기인 만

큼 결혼이민자가정은 상담을 신청할 때 이미 부부관계나 시대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와서 관계개선 보다는 이혼 절차, 체류에 대한 상담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갈등 초기에 상담에 올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상담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다문화 개인.가족상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 친인척 등이다.

부부.가족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이 센터 내 면접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으로 이뤄지며 상담 신청은 상시 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한다.

센터 관계자는 “2021년 다문화 개인.가족상담’은 현재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예방 및 치료(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심리상담 및 검사 등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며 “문제해결 및 자기 발전의 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의 기자

“찾아가는 1인가구 지원사업”

따뜻하고 행복한 나의공간








- ♥ 대상 : 안양시 거주 20대~80대 1인 가구 10명 (10차)
* 30대 9명, 50대 2명, 그 외 연령대 각 1명씩 지원
- ♥ 신청 : 2021년 4월 5일 (월) ~ 모집 종료 시 까지
- ♥ 진행 : 2021년 5월 ~ 10월 10:00~17:00(6시간 소요 예정)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2 가구 | 2 가구 | 2 가구 | 1 가구 | 1 가구 | 2 가구 |

* 신청 후 진행 일정 협의 / * 코로나19 및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 내용 : 찾아가는 수납 정리 서비스 및 교육 제공

접수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
프로그램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호본 (압기자료표기)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사전

진행 일정 협의
집 내부 공간 사진 및 동영상 제출

당일

집 내부 수납 정리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종료 후, 워크시트(소갈문) 및 만족도조사 제출

- ♥ 문의 : 교육상담팀 이소영 Tel. 0318045-5570
-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후, 센터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health55@daelim.ac.kr)
*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Để trở thành công dân Hàn quốc 한국 국적 취득하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안내...국적 취득 후에는 이전 국적 상실 절차 밟아야 완전한 국적 취득

1. Sau khi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ì quốc tịch cũ của bản thân mình sẽ như thế nào

Trong 6 tháng kể từ khi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người đăng kí phải làm thủ tục để cắt quốc tịch cũ của mình. Tùy theo quy định của quốc gia đó, người đăng kí sẽ phải nộp những thủ tục để cắt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giấy chứng nhận đã cắt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ẽ phải nộp lại cho Bộ tư pháp(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Nếu trong khoảng thời gian đó, người đăng kí không làm thủ tục cắt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hì quốc tịch Hàn quốc đã nhận được sẽ bị mất. Lý do là vì Luật quốc tịch của Hàn quốc không cho phép một người đồng thời có được hai quốc tịch.

Tuy nhiên có một số quốc gia mà thời gian cắt quốc tịch quá 6 tháng do đó giấy xác nhận đã cắt quốc tịch không thể nộp ngay lại giấy đó cho Bộ.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đăng kí phải chứng minh được sự thật rằng bản thân mình đang tiến hành làm thủ tục cắt quốc tịch cũ(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à giấy có lời khai của chính mình rằng không thể nộp được giấy đã cắt quốc tịch trong vòng 6 tháng quy định đó. Lúc này

Bộ sẽ cho người đó thêm thời gian nộp hồ sơ là trong vòng 2 năm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quốc tịch Hàn quốc. Trong 2 năm đó bắt buộc người đăng kí phải nộp đủ hồ sơ, nếu không nộp thì quốc tịch Hàn quốc sẽ bị mất đi.

2. Những quyền lợi của Công dân Hàn quốc

Hiến pháp của Hàn quốc nêu rõ những quyền lợi của một người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Quyền cơ bản của công dân được quy định sẵn trong Hiến pháp, ▶Quyền tự do bao gồm quyền mưu cầu hạnh phúc, quyền bình đẳng, ▶Quyền cơ bản mang tính xã hội như mưu cầu những quyền lợi cần cho việc sinh tồn, ▶Quyền cơ bản mang tính yêu cầu như quyền kiến nghị những ý kiến cá nhân khi bị ảnh hưởng đến quyền lợi và lợi ích cá nhân, cuối cùng là ▶Quyền cơ bản về tham gia chính trị.

3. Nghĩa vụ của công dân

① Nghĩa vụ nộp thuế

Tất cả công dân Hàn quốc đều có chung nghĩa vụ phải nộp thuế.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là chỉ những công dân Hàn quốc mà ngay cả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hoạt động kinh tế tại Hàn quốc đều phải nộp thuế.

② Nghĩa vụ quốc phòng

Là một công dân của Hàn quốc bắt buộc phải thực hiện nghĩa vụ quốc phòng. Nghĩa vụ quốc phòng được định nghĩa rằng quốc phòng sẽ huấn luyện những chiến sỹ anh dũng sẽ bảo vệ bờ cõi quốc gia khi có chiến tranh xảy ra.

③ Nghĩa vụ lao động

Nghĩa vụ lao động được đặt cho toàn bộ công dân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thường có đủ năng lực lao động nếu không thực hiện đúng nghĩa vụ thì quốc gia sẽ không chịu trách nhiệm dành cho người đó.

④ Nghĩa vụ giáo dục

Tất cả trẻ em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ều được nhà nước bảo hộ quyền giáo dục. Chế độ giáo dục hiện tại theo từng cấp bậc giáo dục là cấp Tiểu học 6 năm, cấp Trung học cơ sở 3 năm và cấp Trung học phổ thông là 3 năm. <23면 참고>

강혜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京畿道、所得が減少した危機世帯に生計支援金一回50万ウォン、一時支給

オンライン申し込みは5月10日から28日まで、現場訪問申し込みは5月17日から6月4日まで

京畿道がコロナ19長期化により所得が減少したが、支給対象ではないので4次災難支援金など、政府の支援金を受け取れない危機世帯を対象に、生計支援金50万ウォンを1回限定支給する。京畿道は市・郡事前需要調査を通じて、約7万4,000世帯に一時生計支援金が支給されると推定している。

京畿道は5月10日にオンライン申し込みをスタートさせ、‘所得減少危機世帯一時生計支援金’受付を始める。

‘所得減少危機世帯一時生計支援金’支給対象は、今年の1~5月期間の所得が2019年または2020年より減少した世帯。所得が今年の3月1日基準で中位所得75%以下(4人基準365万ウォン)で、財産が3億5,000万ウォン(郡は3億ウォン以下)以下であること。金融財産と負債は別途照会したり適用しない。

ただし基礎生活保障生計給与、および緊急福祉

生計支援受給世帯、緊急雇用安定支援金、つばばり棒プラス資金をはじめとする4次災難支援金など、今年政府支援金を受け取った世帯は支援対象から除外される。教育部で支援する大学生勤労奨学金支援対象は、勤労に対する給与と性格のため、一時生計支援金と重複して受給可能。

申し込み方法はオンラインと直接訪問など二通り。オンラインは5月10日午前9時から28日午後10時まで、福祉ロ・サイト(<http://bokjiro.go.kr>)、もしくはモバイルサイト(m.bokjiro.go.kr)にて。世帯主のみ可能で、出生年度の最後の数字制に従って申し込むこと。

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現場訪問申し込みは5月17日から6月4日まで。オンラインと違って世帯主、同一世帯世帯員、代理人まで申し込み可能だ。

2種類の申し込み方法はすべて6月中に所得・財産

調査および重複確認などを経て、6月末に支援決定世帯の口座に現金で支給する。支給額は世帯員数と関係なく、1世帯あたり50万ウォン(1回支給)だ。農・漁・林業人小規模農家などを対象にした経営支援バウチャー(30万ウォン)支援対象は、一時生計支援金で差額20万ウォンを受ける。

チ・ジュヨン京畿道福祉事業課長は、“コロナ19長期化と所得減少で生活に困難をきたしている低所得世帯が、申し込み期限内に申し込むことができるよう、積極的に広報するなど、最善を尽くす”とした。

一時生計支援金関連問い合わせは住民登録住所地市・郡庁、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京畿道コールセンター(031-120)、保健福祉部コールセンター(129)とARS(1577-9333、26日から)にて。

<한글 기사 7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양시청 031-8045-7000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705 안양여성외전화 031-468-1366 안양일자리센터 031-8045-2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글쓰고 사진 찍고 영상 만드는 크리에이터 도전!

화성건가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다문화가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순철)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은 비대면 교육환경이 가정까지 확산되며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이주여성들의 글쓰기 등 미디어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이를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컴퓨터 기초활용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기사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과 편집을 거쳐 자신의 기사를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미디어와 디지

털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기사를 쓸 줄 아는 기자로서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의 기사는 첨삭하는 과정을 거쳐 웹진에 게재되며 원고지 1매당 1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수업과 실습수업, 1:1 첨삭 지도 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미디어리터러시의 기본 개념, 최근 미디어 환경 등을 학습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습을 바탕으로 매달 기사 작성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협성대학교 교수진과 현직 기자, 콘텐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 생활이 비대면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기사를 쓰는 미디어 교육은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031-267-8750

이지은 기자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특례지원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신순철 센터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지원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경우 오전 8시~오후 4시(평일)까지 이용시간 중 정부지원시간 차감면제 및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방역 등 필수인력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비율 인상 등 한시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의료·방역인력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순철 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의료·방역 인력 및 화성시민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031-267-8782~3

이지은 기자

우리동네 큰엄마가 도와드립니다!

우리동네, 빅아마 대상아동 모집

화성시내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에게 우리동네 큰엄마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화성시내 돌봄이 필요한 다문화 아동

서비스 기간

2021년 1월 ~ 12월 (총 80회기 지원)

서비스 내용

학습 및 숙제지도, 식사 및 일상생활 지도
놀이활동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등

서비스 절차

1.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신청접수
2. 접수된 신청자는 우선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 실시
3.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 결정 및 확정 안내
4. 지역에 따른 자녀돌봄 선생님 연계
5.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주2~3회)

☎ 031-267-8765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통합사례관리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문의 TEL .031. 267.8765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부모-자녀 상호작용

엄마가 교육 받고 아이와 집에서 놀자~~

| 그룹별 | 운영기간 | 온라인교육시간 | 놀이키트 배부기간 | 모집인원 |
|-----|-----------|----------------|-----------|------|
| A그룹 | 4.5~5.10 | 월.금10:00~11:00 | 3.31~4.2 | 5명 |
| B그룹 | 4.5~5.10 | 월.금11:00~12:00 | 3.31~4.2 | 5명 |
| C그룹 | 6.14~7.19 | 월.금10:00~11:00 | 6.9~6.11 | 5명 |
| D그룹 | 6.14~7.19 | 월.금11:00~12:00 | 6.9~6.11 | 5명 |
| E그룹 | 10.4~11.8 | 월.금10:00~11:00 | 9.28~9.31 | 5명 |
| F그룹 | 10.4~11.8 | 월.금11:00~12:00 | 9.28~9.31 | 5명 |

문의 및 신청 : 031-267-8781 이중언어 코치
놀이키트 수령방법 : 교육 참여자 센터에서 놀이키트 수령 / 가정에 배송
교육참여: 부모코칭 1회, 부모-자녀 상호작용 10회 참여 필수

코로나19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овный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детям-нелегальным мигрантам, родившимся и п 법무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합법체류 구제대책 마련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овный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детям-нелегальным мигрантам, родившимся и прожившим в Корее дл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В случае пребывания в Корее более 15 лет после рождения, применяется в течение ограниченного времени и на 4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р Пак Бом Гье), Детям-иностранцам, родившимся в Корее и прожившим в стране более 15 лет, получившим корейское среднее, старшее 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окончившим старшую школу в Корее, посл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рки, например, были ли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и др.,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учебы.

-Если в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читесь в школе, в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

статус на обучение (D-4), а если вы закончили старшую школу, в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 статус време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G-1).

Однако, данная политика для детей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течение ограниченного времени с 19 апреля 2021 года по 28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только для тех, к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предел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 План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Причины ограничения срок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ля всех детей, рожденных в Корее, в случае постоянного действия политики возможен приток нелегальных семей иммигрантов и т.д.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как с пособ нелегальной иммиграции, пе

риод для детей, окончивших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1 февраля, также временно сокращен.

*Так как детям до окончания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относительно легк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в свою родную страну.

Февраль 21 года. Возраст ребенка, заканчивающего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составляет минимум 12 лет, а день достижения 15 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и старше наступает через 3 года, т.е. 31 декабря 24 года.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ебывании в стране в течение 15 лет или боле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статочный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в течение 4 лет.

◆ Дет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Окончившие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до

28 февраля 21 года и на момент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ет всем следующим требованиям:

- ① Рожденные в Корее;
- ② Прожившие в Корее 15 лет или более;
- ③ Зачисленные в среднюю или старшую школу или окончившие старшую школу на дату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Окончившие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до 28 февраля 21 года, даже если не подходят к требованиям на дату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так как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до 28 февраля 25 года, при условии выполнения всех 3 вышеуказа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воз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о истечения периода действия.

<한글 기사 3면>
장울가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政府、外国人就業期間1年間延長、“事業場と農漁村人手不足解消”

E-9、H-2ビザ外国人勤労者、最長114,596人在留および就業活動期間延長

政府が外国人勤労者の在留および就業活動期間を1年延長することにした。

コロナ19により入国と出国が難しくなった外国人勤労者と、勤労者を集めることができずに人手不足となっている中小企業、農漁村の状況を考慮し、今年の12月31日まで国内在留および就業活動期間が満了する外国人勤労者の在留、就業活動期間を1年間延長する。

コロナ19拡散による影響で昨年4月以後、外国人勤労者(E-9)の導入規模が急激に減少した。また訪問就業同胞(H-2)も、2020年基準外国人登録者数が2019年比較で約10%水準を記録して、韓国内の在留外国人勤労者の数が大きく減少した。

それに伴い外国人勤労者は航空便の減少などにより出入国が困難になり、中小企業と農漁村では人手不足が深刻になった。

そこで最長5年以内と制限されている外国人勤労者

の就業活動期間を1年以内の範囲で延長することにした。

就業活動期間延長方法

E-9ビザをもつ外国人勤労者の場合、現在の在留および就業活動期間50日延長措置を1年間延長に変更する。訪問就業同胞(H-2)の場合、雇用センターの特例雇用可能確認書発給および勤労開始申告をした勤労者に限り、在留および就業活動期間を1年間延長する。

今回外国人勤労者に対する就業活動期間延長措置は、外国人勤労者および雇用事業主の個別在留、就業活動期間延長の申し込みなしで一括延長する予定だ。

ただし事業主は外国人勤労者との勤労契約期間延長および雇用許可期間延長申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訪問就業同胞(H-2)の場合、事業主が特例雇用可

能確認書の発給を受け、事業主または勤労者が勤労開始申告をすること。

今回の延長措置対象となる外国人勤労者(E-9、H-2)は最少70,128人から最大114,596人になると予想される。

イ・ジェガブ雇用労働部長官は、“コロナ19により外国人勤労者の出入国状況に困難をきたし、外国人勤労者の人手不足な中小企業と農漁村現場も深刻な状況だ”とし、“今回の外国人勤労者の就業活動期間延長措置で、外国人勤労者と事業主の状況が少しでも良くなることを願う”とした。

パク・ボムゲ法務部長官は、“今回の措置が人手不足の製造業、農漁村などの現場の状況改善に少しでも助けとなることを期待し、防疫状況によって制限的な新規外国人労働力導入が一日でも早く正常化することを望む”とした。<한글 기사 11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사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Key Guidelines for K-ETA

How to apply

You must apply for K-ETA at least 24 hours before boarding your flight or ship bound to the Republic of Korea.
- Your application may be filled out by proxy.
You can apply for up to 30 people at once.

Check the result

You can check the result within 24 hours of application either via email or on the website.

Period of validity

The period of validity is **2 years** from the date of authorization.

Fees

The fee is **10,000 KRW** (approximately \$9-10, Additional fee excluded).

Re-application

You must re-apply for K-ETA even if your current K-ETA is still valid, in case you entered incorrect information or the information you entered changed, such as your name, sex, date of birth, nationality, passport information (passport number or expiration date), criminal history, and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

Exempt from arrival card

Those who have the authorized K-ETA are exempted from filling out the arrival card upon arrival.

Information and Inquiry

Visit the official K-ETA website at www.k-eta.go.kr for more details.

For questions, send e-mail to the K-ETA Center
Visit the website 'Contact Us' (service open from May 2021)
- Available in Korean, English, Russian, and Thai

Available Countries

112 countries: 66 countries that concluded a visa waiver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46 designated visa-free entry countries

| | | | |
|--------------------------------|-------------------------------|--------------------------|----------------------------------|
| Albania | Estonia | Lithuania | Romania |
| Andorra | Fiji | Luxembourg | Russia |
| Antigua and Barbuda | Finland | Macau | San Marino |
| Argentina | France | Malaysia | Samoa |
| Australia | Germany | Malta | Saint Kitts and Nevis |
| Austria | Greece | Marshall Is. | Saint Lucia |
| Bahamas | Grenada | Mauritius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 Bahrain | Guam | Mexico | Saudi Arabia |
| Barbados | Guatemala | Micronesia | Serbia |
| Belgium | Guyana | Monaco | Seychelles |
| Bolivian Republic of Venezuela | Haiti | Montenegro | Singapore |
| Bosnia and Herzegovina | Holy See (Vatican City State) | Morocco | Slovakia |
| Botswana | Honduras | Nauru | Slovenia |
| Brazil | Hong Kong | Netherlands | Solomon Is. |
| Brunei Darussalam | Hungary | New Caledonia | Spain |
| Bulgaria | Iceland | New Zealand | Sweden |
| Canada | Ireland | Nicaragua | Switzerland |
| Chile | Israel | Norway | Taiwan |
| Colombia | Italy | Oman | Thailand |
| Commonwealth of Dominica | Jamaica | Palau | Tonga |
| Costa Rica | Japan | Panama | Trinidad and Tobago |
| Croatia | Kazakhstan | Paraguay | Tunisia |
| Cyprus | Kingdom of Eswatini | Peru | Turkey |
| Czech Republic | Kiribati | Poland | Tuvalu |
| Denmark | Kuwait | Portugal | United Arab Emirates |
| Dominican Republic | Latvia | Qatar | United Kingdom |
| Ecuador | Lesotho | Republic of South Africa | United States of America |
| El Salvador | Liechtenstein | Republic of Suriname | Uruguay |

COVID-19 Notice

K-ETA is currently available only to nationals of **21 countries** who are allowed to enter without a visa

21 countries

Albania, Andorra, Barbados, Bolivian Republic of Venezuela, Commonwealth of Dominica, Guam, Guyana, Holy See (Vatican City State), Ireland, Malta, Mexico, Monaco, New Caledonia, Nicaragua, Palau, Saint Kitts and Nevis,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loven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Eligible countries are subject to change based on the COVID-19 situation.
Please check the website announcements for details.

Going to KOREA?
Don't forget your

K-ETA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is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that visa-free foreign visitors need to obtain before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by submitting relevant information online such as their travel information. Purpose of travel should be tourism, visiting a family member, participating in events or meetings, or commercial business (excluding pursuit of profit). Starting May 2021, you can travel to Korea more conveniently and safely by getting your K-ETA.



Exemption from submitting the arrival card



Quicker immigration process



Tourist information guide



Apply



Examin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Result



Ticket Issuing and Boarding



Immigration

Step. 1

Verify email

Step. 2

Enter personal and travel information

Step. 3

Pay fee

Items to prepare

valid passport, credit card(for fee payment), email address, recent profile photo

Examin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Result



Approved



Disapproved

The result will be sent to your email within 24 hours of application

You can check the result on the K-ETA website and print out the K-ETA

Only K-ETA approved persons will be able to board.

The exemption from submitting the arrival card makes the immigration process quicker and more convenient



Продленка в г.Хвасон для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захавших в Корею

화성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이주민 자녀 학교생활 적응 등 지원

В г.Хвасон для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захавших в Корею, детей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учащихся в начальной,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ей школах, действует бесплатная продленка, а также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другие программы.

В г.Хвасон запущен проект 2021г. по поддержке детей мигрантов, захавших в Корею, и иностранных детей, испытывающих труд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адаптацией к школьной жизни, языковым барьером, отношениями с ровесниками и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и др. В рамках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тся обеспечить поддержку по 4 регионам г.Хвасон:

- западный: районы Сесоль, Сонсан, Социн, Мадон, Намьянг, Бибонг;
- восточный: районы Кибэ, Хвасан, Донган, Чинан, Пенджом, Панволь;
- южный: районы Пальтан, Хянган, Янгам, Чанган, Уджонг;

-Понгдам: районы Месонг, Понгдам, Чонгнам.

С 22 марта в г.Хвасон в самом густонаселенном иностранными семьями и южном районе Хяннам(화성시 향남읍) открылась школа Каритас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г.Хвасон) для помощи иностранным детям в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Ежедневно с 14:00 по 18:00 дети могут посещать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одленку, 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Также планир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оф.подготовке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их школ,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психологом и другие программ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писаться в школу Каритас и узнать подробнее о расписании и проводимых программах, позвоните по тел.070-4296-6529 и оставьте данные ребенка (ФИО, гражданство, школу и класс обучения и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родителей

я)или обратите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центр для мигрантов Каритас 까리따스 이주민 화성 센터 2этаж по адресу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34.

Также в минувший понедельник 6 апреля, во втором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иностранцев западном районе г.Хвасон Намьянг открылась продленка и курсы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Глобал школа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Намьянг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зия центр). Дети иностранцев, захавшие в Корею, в том числе и дети за рубежом русскоязыч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реинов, учащиеся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и еще не поступившие в школы,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 также вместе с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разобраться с домашними школьными заданиями и непонятными вопросами по шко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Время работы центра с пон.по пт. с 13:30~17:30. Кроме того, в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зия центре также планируют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т.п.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и вечерние занятия для детей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ей школ. Если хотите записаться и уточнить программу занятий, позвоните по тел.031-8005-8806 либо обратитесь в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зия центр по адресу 화성시 남양성지로 143, 6этаж.

Я считаю, что внимание к ситуации детей иностранцев, захавших в Корею и находящихся тут, которое уделяется в г.Хвасон, имеет очень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едь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программам дети мигрантов, захавшие в Корею, имеют хорошую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изучить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но и найти друзей, интересы и быстрее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школьную и внешкольную среду.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기자단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까리따스 어울림학교

교육대상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민 자녀, 다문화 가정 2세 청소년 (9~24세)

교육장소
까리따스 이주민 화성센터 2층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신청

교육기간
2021년 3월 22일 ~ 12월 17일 (어름방학 추후 예정)

교육 신청 문의
☎ 070) 4296-6529

주요 프로그램
한국사회 적응교육 :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방과후 학습 : 교과보충수업, 예체능교육 등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 학교진학, 취업연계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 상담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시간표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4:00~16:00 | 한국어교육 (초등반) |
| 16:00~18:00 | 한국어교육 (중등이상) |
| | 방과후 학습 |

* 문화체험활동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 교육시간 별도 진행 예정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Продленка и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етей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Намьянге

| Программа | Набор | Время | Примечания |
|---|-----------|--|-------------|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нач.школы | 10-15 чел | 13:30 - 15:30 (пон-пт, 5 дн. в неделю) | С 5 апреля~ |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нач. школы | 10-15 чел | 15:30 - 17:30 (пон-пт, 5 дн. в неделю) | |
| Продленка | 10-15 чел | 13:30 - 17:30 (пон-пт, 5 дн. в неделю) | |

Регистрация Тел: 031-8055-8806, 031-267-1526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порядке очередности)

Адрес: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43 (남양의원빌딩), 6층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
Намьянг сагори, здание CMS, 6 этаж, Намьянг глобал Азияцент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더큰이웃아시아, 남양글로벌아시아센터



“취약 외국인주민 여성·아동 지원, 힘모아요”

화성건가다가,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신순철 센터장, 화성건가다가)와 화성동탄경찰서(총경 송호송),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는 4월 20일 외국인 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주여성 및 외국인 주민 자녀가 언어소통의 한계와 체류자격의 불안정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방치될 위험이 크고, 정보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3개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기금조성(화성상공회의소) △기금관리·대상자 선정(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지원(화성동탄경찰서) 등 외국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성된 기금은 총 1200만원으로 방과 후 소외된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학원·공부방을 지원하는 학습지원과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물품지원으로 나누어 사용될 계획이다.

신순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외국인주민 취약계층 가정에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호송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지원의 손길이 닿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내외국인 구별 없이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권 회장은 “기업인에게 외국인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어 감사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나눔,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돕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지자체 최초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 장학금 틀 깨 화성시, 보편적 학습권!

화성시가 지자체로는 최초로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과 대학생 위주였던 장학금의 틀을 깨고 성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화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관내 3년 이상 거주 만 30세 이상~3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장학금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온국민평생장학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취업, 직무 및 직업 전환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 해당 교육비를 사후 현금 정산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650여 명, 약 5억원 규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학력보완, 인문교양, 문화예술까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차후 전 시민이 장학금을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은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 ‘기본학비’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 화성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형온국민평생장학금은 2021년 화성시의회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27일 화성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사업 수행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과 지원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위한 화성시의 노력

주거취약 아동에 수호천사 집수리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저소득 주거취약 아동들을 위한 ‘수호천사 집수리’사업에 나섰다 28일 밝혔다.

조손가정과 한 부모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송산면, 반월동, 진안동, 기배동, 양감면 등 8개 지역 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으며, 오는 5월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이 10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각 가구에는 LED 등 교체, 도배, 장판 등 100만원 내외의 재료비로 개보수 공사가 지원됐으며,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삼성전자가, 시공은 화성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자활근로사업단’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 22일 송산면에 거주하는 한 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노후 싱크대 수리와 도배를 이번 사업을 통해 해결했다.

또한 청소와 소독 서비스까지 제공되면서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완성됐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 주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계동에 다함께돌봄센터 문열어

화성시가 19일 청계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득에 관계없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특히 이번 청계센터는 초등학생 수가 많은 청계동에

위치해 방과 후 돌봄교실 대기자 수가 많은 예술초, 청목초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줄 전망이다.

청계센터는 신안1차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에 135㎡ 규모로 조성됐으며, 센터장과 돌봄교사 1인으로 구성됐다.

정원은 30명이며, 만 6세 이상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일상생활부터 급식·간식, 놀이, 독서, 숙제지도 등이 제공된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초등돌봄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청계센터 외에도 봉담, 송림이음터, 장지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지은 기자